

ISSN 3058-6615

BUCHEON & MUSEUMS



MUSEUMS



MUSEUMS



MUSEUMS

부천문화재단
Bucheon Cultural Foundation부천시립박물관
BUCHEON CITY MUSEUM부천활박물관
BUCHEON BOW MUSEUM부천펄벅기념관
BUCHEON PEARL S. BUCK MEMORIAL HALL수주문학관
SUJU LITERATURE MUSEUM고강선사유적체험관
GOGANG PREHISTORY MUSEUM

부천과 박물관

2024년
제2호

2024년 제2호

부천과 박물관

특집 논문 : 시승격 이후 부천시의 성장

부천시의 산업발전 현황과 향후 전망 박철

부천의 전통시장 형성과 변천 고현아

부천 50년의 빠대, 경인선 전현우

1990년대 초 수도권 광역화 속 열망의 교차점, 중동 신도시 전가람

부천 시승격 50주년 부천시 교육의 변화와 학교 연계 박물관교육 방안 전정희

연구 논문

인천시립박물관의 전시가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기까지 김래영

설림(說林)

부천시립박물관 유물 수집 현황과 수집 방향 김태동

부천활박물관의 유물 현황과 향후 전략 방향 채지원

부천펄벅기념관의 소장유물현황과 수집방향 박민주

수주문학관 소장 기증유물의 현황과 수집 방향 정보람

부천시박물관

부천시박물관

부천고 박물관

2024년 제2호

부천시박물관

목차

특집 논문 : 시승격 이후 부천시의 성장

부천시의 산업발전 현황과 향후 전망	박 철	7
부천의 전통시장 형성과 변천	고현아	31
부천 50년의 빠대, 경인선	전현우	57
1990년대 초 수도권 광역화 속 열망의 교차점, 중동 신도시	전가람	97
부천 시승격 50주년 부천시 교육의 변화와 학교 연계 박물관교육 방안	전정희	129

연구 논문

인천시립박물관의 전시가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기까지	김래영	161
---------------------------------	-----	-----

설립(說林)

부천시립박물관 유물 수집 현황과 수집 방향	김태동	193
부천활박물관의 유물 현황과 향후 전략 방향	채지원	211
부천펄벅기념관의 소장유물현황과 수집방향	박민주	225
수주문화관 소장 기증유물의 현황과 수집 방향	정보람	239

특집논문

시승격 이후 부천시의 성장

부천시의 산업발전 현황과 향후 전망
박 철

부천의 전통시장 형성과 변천
고현아

부천 50년의 빼대, 경인선
전현우

1990년대 초 수도권 광역화 속 열망의 교차점,
중동 신도시
전가람

부천 시승격 50주년 부천시 교육의 변화와 학교
연계 박물관교육 방안
전정희

부천과 박물관

BUCHEON &
MUSEUMS

부천시의 산업발전 현황과 향후 전망

박 철¹⁾

I. 머리말

부천시 산업은 1930년대 이후 경인공업지대의 형성과 성장으로 인해 본격화되었다. 당시 인구 70여만의 수도 경성과 인구 10만의 항구도시 인천, 그리고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약 30km 정도의 지대를 총칭하여 경인공업지대라고 하였다.

경인공업지대는 경성과 인천을 두 축으로 하고 있었으며, 교통 및 시장 견인형 입지 요인으로 인해 주로 방적 및 기계 기구공업이 번창하였고, 또한 배후에 키다란 소비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미업 등 소비지 지향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교육기관이 많아서 숙련공의 양성이 쉬운 점도 경인공업지대의 장점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인공업지대 공업시설이 거의 파괴되었으며, 휴전 이후 국가적인 피해복구가 진행되어 1954년 이후 점차 회복되었다. 당시 부천군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1959년에는 16개 기업체가 총 1,567명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196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농업 중심 사회였던

목차

I. 머리말

II. 부천시 시대별 산업 현황

III. 부천시 산업 위기 및 전망

IV. 맺음말

1) 부천산업진흥원 산업유치팀장

부천에서도 공업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970년~1990년 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규모 소비 지역과 인접한 환경과 경인고속 도로, 경인국도 및 경인철도 등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기계 및 금속산업이 발달하였다.

본고에서는 부천지역의 시대별 산업 현황과 산업의 성장과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향후 부천시 산업 전망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부천시 시대별 산업 현황

일제강점기에 조선이 식량, 원자재 등 일본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생산에 집중하던 식민지 경제정책을 탈피하고 조선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로 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이 극에 달했던 1930년대 이후였다. 1931년부터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1945년까지 약 15년간이 조선의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장 전형적인 공업지대를 형성한 곳은 경인공업지대였으며, 당시 인구 70여만의 수도 경성과 인구 10만의 항구도시 인천, 그리고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약 30km 정도의 지대를 총칭하여 경인공업지대라고 하였다.

다음의 표는 1938년 경기도의 업종별 공업통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경인공업 지대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적 부문에 있어 112개 공장 중 82개 공장이 경성과 인천 시내에 있었고, 기계 기구공업의 경우에는 183개 공장 중 164개가 경인공업지대에 있었다. 이는 경인공업지대의 융성과 이곳에 있는 공업 분야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1. 경기도 업종별 공업 현황(1938)²⁾

(단위 : 천원)

업종	연도	생산고	종업원수
방적	112	70,526	18,412
금속	116	5,652	2,325
기계기구	183	15,113	6,073
요업	91	3,753	2,706
화학	97	24,066	6,157
제제·목제품	140	5,800	2,047
인쇄·제본	129	12,460	4,114
식료품	410	124,261	8,261
연초	2	27,761	1,962
와사·전기	2	1,722	62
기타	221	9,281	6,633
총 계	1,503	300,405	58,752

당시 경인공업지대는 경성과 인천을 두 축으로 하고 있었으며, 교통 및 시장 견인형 입지 요인으로 인해 경인공업지대는 주로 방적 및 기계 기구 공업이 번창하였다. 또한 배후에 커다란 소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미업 등 소비지 지향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교육기관이 많아서 숙련공의 양성이 쉬운 점도 경인공업지대의 장점이었다.



도1. 1940년대 유한양행 소사공장³⁾

한편 일제강점기 부천 지역에 있는 기업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유한양행을 들 수 있으며, 이 회사는 의약품의 수입·판매 및 제조를 위해

2) 조인석, 「공업」『부천시사』, 부천시, 1988, 704쪽.

3) 김용승, 「공업」『부천시사』2, 부천시, 2002, 615쪽.

1926년 6월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 기업으로 1936년에는 주식회사로 등기하면서 소사에 대규모 공장을 건립하였다. 8·15해방 전까지 (주)유한양행의 성장은 지속되어 동남아 일대에 지사와 공장을 설치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일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1954년 정부 환도에 따라 서울로 복귀하여 회사자금과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시설자금으로 근대적 시설을 갖추었고, 1962년 8월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1969년 10월 소사공장을 폐쇄하고 현재 본사 사옥이 있는 서울시 대방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부천에서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민건강 및 질병 치료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운영되던 기업체들이 해방과 함께 귀속사업체로 인수되었는데 당시 부천군 내 귀속사업체의 현황을 다음의 표를

표2. 부천군 귀속사업체 현황⁴⁾

업종	사업체명	주요생산품	경영형태	자본구성	해방전 기업형태
금속	오류동제염공작소	제연	관리	20,000주	주식회사
기계	경삼제작소 조선공장	기계제작	-	-	개인회사
기계	서울기계제작소	주물	-	3,000,000주	주식회사
기계	극동정공사	철공업	-	482,244주	주식회사
기계	조선순철회사	철공업	-	1,500,000주	주식회사
화학	조선아스베르회사	석면고무	-	1,000,000주	주식회사
요업	조선내열요업주식회사	요업	관리	3,900주	주식회사
요업	삼성요업회사	요업	-	-	
섬유	조선연마포공업사	연마포	관리	3,960주	주식회사
식품	마산정미소	정미	대표	-	개인회사
식품	부천정미소	정미	대표	-	개인회사
식품	주안정미소	정미	대표	-	개인회사
광업	조선연마지석주식회사	연마지석	관리	20,000주	주식회사
기타	한인쇄자제작소	쇄자	관리	8,900주	개인회사

4) 조인석, 앞의 책, 1988, 713쪽.

통해 살펴보면, 경기도 내 총 257개의 귀속사업체 중 부천군에 위치하였던 것은 14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8·15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인공업지대 공업시설이 거의 파괴되었으며, 휴전 이후 국가적인 피해복구가 진행되어 1954년 이후 점차 회복되었다. 당시 부천군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1959년에는 16개 기업체가 총 1,567명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업종별로는 섬유공업의 종사자가 830명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 종사자 252명, 식료품공업 종사자 142명, 그리고 요업 종사자가 128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1년에는 기업체 수가 39개로 증가하였다.

표3. 부천의 업종별 기업체 현황(1957~1961)⁵⁾

연도	업종	섬유	금속	기계	요업	화학	음식 료품	제지	기타	총계
1957	2	2	2	3	6	2	-	2	19	
1959	4	4	2	1	2	-	1	2	16	
1960	4	5	5	5	2	1	1	2	25	
1961	6	5	9	7	2	2	1	7	39	

※ 주 : 통계수치 간의 큰 기복은 업종 분류상의 차이 및 누락에서 발생한 것임

※ 자료 : 부천군 『통계연보(1958, 1960, 1961, 1962)』,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기업체총람(1958, 1962)』.

1962년부터 공업화의 추진 및 자립경제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농업 중심 사회였던 부천에서도 공업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천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규모 소비 지역과 인접해 있어 음식료품 공업 및 섬유공업 등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또한 경인고속도로, 경인국도 및 경인철도 등 편리한 교통 여건 등으로 원료나 상품 물류 수송에 장점이 있었고 특히 인천항, 김포공항의 접근성이 좋아 수출·수입에 유리하였다.

5) 김용승, 앞의 책, 2002, 629쪽.

표4. 부천시 주요기업 현황(1957~1961)⁶⁾

업종	주요기업	주요생산품
섬유	대한항길직물, 근선연사공업, 경인직물공장, 에덴학원공장, 소사공과기술학교실습장, 소사견직공장	면직물, 면창주, 소창직, 나일론양단, 테이프 등
요업	조성내열요업(주), 조선연마지석(주), 월산산업(주), 부천토기공장, 소사토기공장, 조광토기공장, 금성연마공업사	내화연와, 연마지석, 내화벽돌, 토기, 풍로, 도자식기, 슬레이트연통, 그라인더 등
화학	(주)유한양행, 경기화학공업(주), 태창화학공업, 김포화학공업, 삼성화학공업사, 에덴학원공장, 대한전기화학공업, 제일식품화학공업	의약품, 카바이드, 성냥, 화장비누, 포마드, 염소산칼리, 필름, 석회, 글루타민산소다 등
기계	대륙공업소, 경인철공소, 구일사, 신흥철공소, 중앙철공소, 서울기계제작(주), 협진공업사, 한국엔진, 유성기계공업사	농기구주물, 인젝터소화기, 탈곡기, 쟁기, 철도차량 부품, 양조, 식기, 재생엔진, 자동차용 스프링 등
금속	동양금속공업사, 대한제철(주), 한국철강, 삼양금속합명회사, 부국주물공장	주물, 철재, 박철판, 기계부속 등
기계	신흥제지공업사, 안성제지공업, 에덴학원포장공장, 태평산업건설(주)	선화지, 크라프트지, 계란 포장지, 책상, 형광등, 전선 등

1965년 부천시 기업체는 음식료품, 섬유, 기계, 금속, 기타 업종 104개 사로 종업원은 5,832명 규모였으며, 경기도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가내수공업센터가 설치되어 주로 가발을 생산하여 미국, 일본, 캐나 등에 수출하였다.

1970년대 정부는 경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이 한계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술·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 부문을 우선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부천지역도 음식료품 공업, 섬유공업, 비금속광물 공업은 별다른 성장 추세 없이 약간의 변동을 보이지만, 화학공업은 1981년에는 1976년에 비해 업체 수에서는 207%, 종업원 수에서는 298% 증가하였고, 전자전기 공업의 경우는 1976년 대비, 1981년의 성장을

이 각 339%, 257%에 달하였다.

표5. 업종별 기업체 및 종업원수(1972~1981)⁷⁾

구분 연도	계		음식료품		섬유		화학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1972	96	4,649	5	-	9	-	2	-
1976	364	22,302	13	479	38	3,009	74	2,342
1977	469	36,094	10	1,020	43	1,535	79	1,239
1978	566	42,225	19	835	58	5,008	92	5,053
1979	680	43,706	20	1,072	46	3,385	183	9,446
1980	776	43,527	17	813	40	3,201	169	7,381
1981	823	43,989	20	831	54	4,093	153	6,980

구분 연도	비금속광물		기계		금속		전기전자		기타	
	업체 수	종업 원수								
1972	-	-	29	-	-	-	7	-	34	-
1976	20	1,100	109	6,683	-	-	41	3,070	69	5,619
1977	22	2,302	57	3,922	129	12,726	38	4,218	91	9,132
1978	33	3,040	103	9,384	144	11,560	63	3,608	54	3,742
1979	20	1,350	288	7,694	86	4,643	89	7,371	128	8,850
1980	18	1,223	246	10,674	78	4,600	92	7,165	116	8,470
1981	18	1,324	263	10,994	64	4,025	139	7,880	112	7,862

이 시기 화학공업 분야에서는 의약품 산업과 더불어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인 한국화장품(주), 홍진화학공업(주)이 1970년대에 설립되어 부천 화학공업을 이끌었다. 또한 기계·금속공업 분야에서는 정부 지원 정책과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혁신 등으로 1960년대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기업으로 경원기계공업(주), 대흥기계공업(주), 반도기계(주), 동양에레베이터(주), 삼양중기(주), 서울주철공업(주), 신한주철(주) 등이 있다.

6) 김용승, 같은 책, 2002, 630~635쪽.

7) 김용승, 같은 책, 2002, 663쪽.

부천에서는 1970년대 전자전기공업분야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삼성전자의 모체인 한국반도체가 1974년 부천 도당동에 설립되었으며 1978년 삼성에 인수되었다.

1970년대 말 석유파동으로 부천지역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0년대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1986년 전체 기업체 수는 1,853개로 업종별로 기계·금속 업종이 788개로, 전체의 42.5%로 가장 비중이 크며, 전자전기공업 분야가 353개, 화학공업 분야가 260개가 있었다.

이 시기 고용종업원 수 기준으로 1,000명 이상 기업은 아남산업(주), 경원기계공업(주), 삼성반도체통신(주) 3개사가 있었으며, 종업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82.9%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대 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지만 건설 및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표6. 부천의 업종별 기업체 현황(1986)⁸⁾

구분 연도	업체 수		종업원 수	
	수	구성비(%)	수	구성비(%)
계	1,852	100	752,313	100
음식료품	45	2.4	1,674	2.3
섬유	155	8.4	9,372	13
목재·제지	109	5.9	2,592	3.6
화학	260	14	8,807	12.2
비금속광물	50	2.7	2,424	3.4
기계·금속	788	42.5	27,763	38.4
전자전기	352	19	16,119	22.3
기타	93	5	3,562	4.9

8) 김용승, 같은 책, 2002, 686쪽.

1990년대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의 수출로 경제가 급성장하였지만, 일본의 엔화약세, 고금리, 원자재 가격상승 및 개방으로 인해 경쟁 격화 등의 요인으로 1997년 IMF 외환 위기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천의 대기업은 1989년 26개에서 1993년 19개로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1,534개사에서 2,887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종업원 규모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7. 규모별 기업체 및 종업원수(1989~1993)⁹⁾

구분 연도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1989	1,560	78,501	23	19,794	1,534	58,707
1990	2,500	115,412	25	15,195	2,475	64,962
1991	3,387	93,231	23	15,418	3,364	77,813
1992	2,766	88,653	22	22,274	2,654	66,379
1993	2,906	91,156	19	13,395	2,887	77,761

이 시기 주요 기업으로 섬유 분야에는 봉제 모자를 생산하는 영안모자(주)와 (주)영안모자상사가 있었으며, 목제공업 분야에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삼보판지(주), 화학공업 분야에는 화장품 및 의약품을 생산하는 한국화장품(주)과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경기화학공업(주), 기계·금속공업 분야에는 유성기업(주), 동양에레베이터(주), 신한주철(주), 서울주철공업(주), 전자전기 공업 분야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주)와 아남산업(주), 냉방기를 생산하는 (주)경원세기 등이 있었다.

1990년대 말 부천기업의 영세화가 진행되어 1995년 4,067개였던 기업이 IMF 이후인 1998년 3,026개로 감소하였으며, 종업원 수 또한 24,423명 감소하였다. 1998년 기준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9) 김용승, 같은 책, 2002, 707쪽.

0.26%인 8개로 감소하였으며,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95.6%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각 업종별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1990

표8. 업종별 기업체 및 종업원수(1995~1998)¹⁰⁾

구분 연도	계		음식료품		섬유		화학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1995	4,067	76,969	52	1,628	290	5,910	442	8,148
1996	3,994	72,217	51	1,598	276	5,045	464	8,224
1997	3,694	64,445	51	1,598	260	4,594	468	8,329
1998	3,026	52,546	42	1,331	214	3,691	424	7,891

구분 연도	비금속광물		기계		금속		전기전자		기타	
	업체 수	종업 원수								
1995	73	1,580	1,153	21,802	629	8,834	849	20,761	579	8,606
1996	70	1,639	1,123	19,723	611	8,491	840	19,663	599	7,834
1997	58	1,234	1,031	17,248	603	7,567	718	16,974	505	6,901
1998	39	739	835	13,301	519	6,743	597	14,062	356	4,798

표9. 종업원수별 업체 현황(1998)¹¹⁾

구분	업체수	구성비(%)
5명~9명	1,537	50.8
10명~19명	887	29.3
20명~49명	470	15.5
50명~99명	90	3
100명~199명	31	1
200명~299명	4	0.1
300명~499명	4	0.1
500명 이상	4	0.1
계	3,027	100

10) 김용승, 같은 책, 2002, 724쪽.

11) 김용승, 같은 책, 2002, 724쪽.

년대 급성장을 보였던 전자전기 공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아남반도체(주)와 페어차일드 모리아반도체(주)가 있으며 1,000명 미만 기업으로 신한일전기(주), (주)신흥정밀, (주)성신, (주)센추리, 에이스테크놀러지(주) 등이 있었다.

부천은 1990년대 중동 신시가지의 성공적인 개발로 양질의 주택공급과 다양한 휴식 공간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자족도시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일반 제조업 중심의 낙후된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산업구조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2000년 총 3,928업체에 종업원 수 66,571명에서 점점 감소하여 2003년도에는 487개 업체가 감소한 3,441개 업체로 종업원 수도 5,888명이나 감소하였다.

일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지역기업의 지방 이전 방지를 위해 기존공업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여 아파트형 공장 형태의 테크노파크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테크노파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R/D 기관 유치를 통해 R/D 기능 중심으로 집적화하는 한편,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동종 업종의 연관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에 입주될 수 있도록 산업을 특화하고 집적화하기 위한 민간 주도형 테크노파크를 지속적으로 건립하여 2001년부터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와 종업원 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지역산업을 IT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의 선택과 집중 정책을 수립하여 금형, 로봇, 조명, 패키징, 부품소재 등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4대 권역별로 지정하여 오정권은 금형 산업, 도당권은 조명산업, 테크노파크는 로봇산업, 삼정권은 부품소재 및 패키징 산업을 중심으로 집적화시켜 육성을 추진하였다.

표10. 부천시 산업 종류별 구조변화¹²⁾

구분	2000		2002		2003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제조업 전체	3,928	66,571	3,620	63,413	3,441	60,683
목재 및 나무제품	11	130	6	41	4	28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34	520	31	397	31	471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	-	1	-	1	9
화합물 및 화학제품	84	2,499	75	2,318	68	2,247
고물 및 플라스틱제품	539	9,107	518	10,457	530	11,066
비금속광물 제품	42	1,027	42	1,121	38	1,026
제1차 금속	55	687	45	672	36	541
소계	766	13,970	718	15,006	681	15,388
조립금속제품(장비제외)	670	7,739	651	7,306	612	7,063
기타기계 및 장비	805	11,704	694	9,991	688	10,188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45	939	32	904	30	453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15	7,879	476	7,733	452	7,594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7	11,502	305	11,753	290	9,80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73	2,863	157	2,509	141	2,353
자동차 및 트레일러	44	912	31	369	37	443
기타운송장비	6	58	9	84	7	87
재생재료가공처리	4	64	-	-	-	-
소계	2,539	43,729	2,355	40,649	2,257	37,983
음식료품	58	1,074	63	1,288	63	1,254
섬유제품	90	1,242	76	1,006	76	1,200
의복 및 모피제품	129	2,420	113	2,031	103	1,721
가죽, 가구, 가구류 및 신발	55	657	55	638	37	47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25	1,509	118	1,397	102	13,216
가구 및 기타	166	2,039	122	1,398	122	1,347
소계	623	8,941	547	7,758	503	7,312

표11. 부천시 지식산업센터 현황¹³⁾

구분	연도별			부지면적 (m ²)	유치(입주)	종업원 수
	1995~2000	2001~2012	2013~2023			
계	4	18	25	280,994	2,973	32,850
시	1	3	5	206,972	1,838	21,100
민간	3	15	20	74,022	1,135	11,750

2011년도 부천시 산업에서 생산 유발효과는 기존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100억원 투입시 전기기계 및 장치, 전자기기 및 부분품 제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407억원 규모에 달하고, 다음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유기화학 및 무기 화학제품, 비철 금속제품, 펄프 및 종이 제품,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일반목적 기계 및 장비, 특수목적 기계 및 장비제조업 순이었다.

표12. 100억원 투입시 부천지역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추산¹⁴⁾

산업부문	생산유발효과(억원)
전기기계 및 장치, 전자기기 및 부분품 제조	407
석탄 및 석유제품	286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제품	276
비철금속제품	263
펄프 및 종이제품	238
사업서비스업	237
금융 및 보험업	212
도소매업	194
부동산임대업	193
일반목적 기계 및 장비, 특수목적 기계 및 장비	181

부천시 상품별 수출 현황에서도 전기·전자 분야 상품이 전체 수출액의 42.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기계, 섬유, 화학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13) 부천시, 『Vision Bucheon 2024 장기발전계획(경제분야)』, 부천시, 2014, 12쪽.

14) 부천시, 같은 책, 2014, 42쪽.

12) 부천시 기획예산과 편, 『제31회 부천시 통계연보』, 부천시, 2004, 170~173쪽.

표13. 부천시 상품별 수출 현황(2002~2008)¹⁵⁾

연도별	전기 전자	기계류	섬유류	화학 공업	철강 금속	플라스틱, 고무, 가죽	생활 용품	잡 제품	농림 수산물	광산물	(단위:백만불)
											2008
2008	1,305	357	100	71	50	85	59	4	10	12	
2007	1,305	315	51	59	64	70	80	6	10	12	
2006	1,222	300	47	63	58	65	70	8	20	8	
2005	1,055	278	52	58	59	60	69	9	16	5	
2004	1,100	317	54	48	55	57	75	8	9	3	
2003	1,135	214	56	38	35	46	61	5	5	5	
2002	1,105	161	55	31	50	68	4	3	1		

우리나라 경제는 2010년대 초반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이후 몇 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더욱 둔화되었고, 특히 2019년에는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졌다.

부천기업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역 내 아파트형 공장 형태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증가 및 전자전기 업종 기업의 증가로 2010년 9,277개 업체수가 2015년 10,881개로 증가하고 2010년 종업원 수 68,498명에서 2015년 73,38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업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급증한 이유는 물리적 장소가 없는 업체를 통계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또한 종업원 수도 감소세를 보이는데 이는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및 생산 공정 자동화에 따른 결과이다.

2020년 기준 부천의 업체수는 13,472개로 공장등록업체는 3,351개이며, 전체기업 중 종업원 50인 이하는 전체기업의 99.8% 규모로 영세 기업이

표14. 부천시 사업체 현황(2010~2021)¹⁶⁾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단위 : 개사, 명)
업체수	9,277	9,415	10,101	10,120	10,881	10,780	10,657	10,501	10,229	13,472	
종업원수	68,498	68,516	71,856	71,209	73,380	72,470	71,475	70,185	68,426	69,655	

표15. 부천시 업종별 사업체 현황(2020)¹⁷⁾

업종	총업원 수	계	1~4	5~9	10~19	20~49	50~99	100~299	300~499	500인 이상	비율 (%)
계(업체수)	13,472	9,781	2,352	806	421	89	18	3	2	100	
비율(%)	100	72.6	17.46	6.98	3.13	0.66	0.13	0.02	0.02	100	
음식료품	711	598	60	28	13	12					5.3
섬유, 의류, 가죽제품	1,011	800	169	28	12	2					7.5
가구, 목제, 종이 제품	300	246	31	17	6						2.2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663	523	103	26	11						4.9
화학, 석유정제제품	227	140	48	15	14	7	3				1.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8	7	8		2	1					0.1
고무, 플라스틱제품	1,159	700	270	109	67	10	3				8.6
비금속광물제품	80	50	14	3	7	4	2				0.6
금속제조, 가공제품	2,631	1,964	463	141	56	7					19.5
전자부품, 전기장비, 통신	2,629	1,761	526	209	104	20	6	1	2		19.5
의료, 광학기기제조업	638	415	140	42	30	9	2				4.7
기타 기계 및 장비	2,496	1,829	410	157	87	11	2				18.5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	139	90	29	11	6	2		1	1		
기타제품제조업	603	500	73	20	6	4					4.5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67	158	8					1			1.2

16) 부천시 통계홈페이지, 통계전자북의 연도별 사업체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작. <https://stat.bucheon.go.kr/site/main/index092> (검색일자 : 2024년 10월 5일)

17) 부천시 통계홈페이지, 통계전자북을 참고하여 제작. <https://stat.bucheon.go.kr/site/main/index092> (검색일자 : 2024년 10월 5일)

15) 부천시, 같은 책, 2014, 42쪽.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은 2개에 불과한 상황이며, 업종별 기업 규모는 전기·전자 분야 기업이 24%, 금속 분야가 22%, 소비재 관련 기업이 전체 18% 규모이다.

III. 부천시 산업 위기 및 전망

부천시는 수도권 서북권에 있으며 공항, 항만, 도로 등 국내·외적 교통의 요충지로 유리한 공업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젊은 연령층 비율이 높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풍부한 임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경인 공업지역의 시작과 더불어 부천지역은 지리적 이점, 노동력 확보 수월성 등의 요인으로 노동집약적 화학제품 산업·제약산업·기계·전기기계 산업 위주로 공장들이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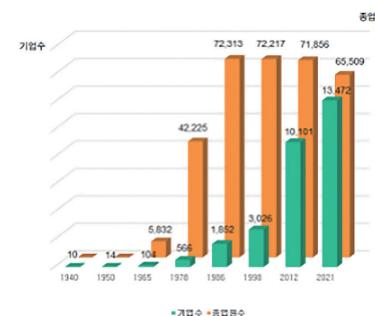


표16. 부천시 연도별 기업체 및 종업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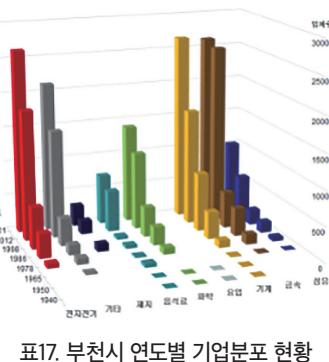


표17. 부천시 연도별 기업분포 현황

1960~1980년대 부천은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진전되었으며 또한 공업교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에 입지해 있던 공장들이 부천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전체 종업원 수 7만여명 이르는 수준으로 부천시의 경제발전 기반을 확립하였다.

1990~2000년대 중·상동 신도시 건설 및 소사구 일원의 공업지역이 주

변 주거지역과의 상충 등으로 인해 점차 주거화가 진행되었으나, 일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아파트형 공장 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꾸준히 조성되며 공업화가 꾸준히 지속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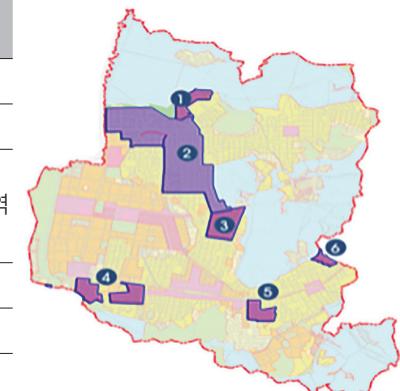
준공업지역 주거화 가속에 따른 제조업 기반 기능 상실
공업지역 재배치를 통한 이주단지 및 부족한 입지난 해소 필요



도2. 부천시 준공업지역 주거화 현황¹⁸⁾

표18. 부천시 공업지역 현황¹⁹⁾

	공업지역현황		용도지역
	위치	면적(m ²)	
계	6개소	4,542,100	
①	오정산단	290,883	준공업지역
②	내동, 삼정동, 도당동, 오정동 일원	3,012,458	일반공업지역
③	춘의동 일원	493,749	준공업지역
④	송내동 일원	470,629	준공업지역
⑤	소사본동 일원	195,148	준공업지역
⑥	역곡동 일원	79,233	준공업지역



18) 김재종, 「산업입지확보 및 공업지역 기반시설 확충방안」, 부천시 재정경제국 정책 연찬회 발표자료, 2016.

19) 부천시 기업지원과 편. 『부천시기업지원백서(2020~2022)』, 부천시, 2022. 17쪽.

현재 부천의 공업지역 산업입지 환경은 대개 30년 이상의 노후화로 기반 시설 낙후, 주차 및 차량 통행 불편 등으로 생산·고용 등의 저감 현상 확산 및 산업 집적화 약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이 지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산업입지는 오정일반산업단지, 온수일반산업단지 등의 계획 입지가 일부 조성되어 있으나 대다수 삼정동, 춘의동, 송내동 등 분산적인 개별입지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부천은 1990년대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²⁰⁾으로 분류되어 기존 생산업종의 사양화로 인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필요한 기업들은 업종규제로 인해 회사 존립이 위태롭기도 하고, 다양화되어 가는 시장에 대응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의적절한 투자도 어렵게 되는 등 제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이 구축되어 부천 기반의 중견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제조업체의 영세 소규모화가 진행되는 중이다.

표19. 수도권 권역구분 현황도 및 과밀억제권역 규제²¹⁾



이외에도, 중국 등 신홍 제조 강국의 출현,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른 신산업 부상 등으로 우리 시의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환경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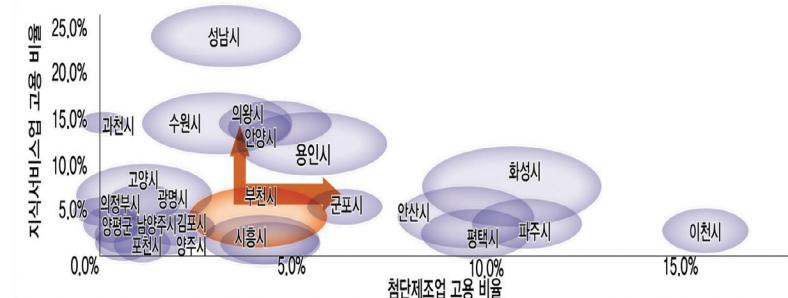
에 봉착하여 활력을 점차 상실 중으로 지역 산업환경이 지속해서 침체되고 있다.

표20. 부천시 기업이전 현황(2015~2020)²²⁾

구분	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기업	합계
부천 역내 이전	141	187	2	54	384
부천 역외 이전	235	226	1	97	559
순기업 이동	-94	-39	1	-43	-175

전통적인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단계에서 경기도 내 지자체와 비교하면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 등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의 고도화가 진행되었고 화성시, 이천시 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부천시는 부천테크노파크와 춘의동을 중심으로 지식서비스업이 입지하고 있지만 안양과 성남시보다 집적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표21. 경기도 시군별 지식서비스업 및 첨단 제조업 고용 비율²³⁾



현재 부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영세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속 가능한 신산업 기반의 구조로 개편하고자 기존 제

20)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7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2006, 12~26쪽.

22) 부천산업진흥원, 『부천시 미래산업육성 및 기업유치종합계획』, 부천산업진흥원, 2024, 109쪽.

23) 부천산업진흥원, 같은 책, 63쪽.

조업의 ICT 결합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노후 산업단지 재생,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입지 개발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인천계양·부평산단·마곡MV를 잇는 신경인 산업 축 상에 위치하여 수도권 서남부의 신·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천 주력 산업 고도화 부지 조성 및 미래 신성장동력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부천시는 고도 첨단 지식산업의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창출을 통해 지식산업 집적지로서의 새로운 위상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식서비스업과 산업 구조고도화로 이동해야 한다.

표22. 부천시 산업환경 SWOT²⁴⁾

환경분석		역량분석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	SO 활성화 전략 신성장 허브 조성	ST 차별화 전략 R&D 중심 혁신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 뛰어난 공항 접근성 높은 교통접근성 및 서울 근접성으로 R&D 인력공급 용이 부천 대장 신도시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 경제침체,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및 낮은 고용률 고차서비스업 발전 미흡 첨단 제조업 발전 수준이 높지 않은 편 미래 신산업 및 신기술 관련 정책 미흡 높은 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적 지구 지정추진 공공지원시설건립 : 공공자치사업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 R&D 혁신센터등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 : 부천형 스타트업 캠퍼스 등 혁신 청년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공공R&D 기관 및 지원기관 유치 R&D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 기존 업종의 디지털전환 및 스마트화 지원

24) 부천산업진흥원, 같은 책, 120쪽.

부천시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제는 부천시 산업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 영세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출발점으로 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 및 장비제조, 전자부품, 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를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국내·외 기술 발전에 따라 트윈 전환(DX+GX) 및 트윈 전환 기반 신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시스템,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과 그린 전환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다중 운송모드 솔루션,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관리 기술, 제조 분야 전기화, CCUS, 바이오 인포메틱스, 탄소중립 혁신 소재, 생체 모방 기술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ESG, 스마트시티, 자원순환 재활용 등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이 온세미컨덕터와 DB 하이텍을 중심으로 부천시 경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에 주목하고 차량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연계가 중요하다.

네 번째 과제는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부천대장 지구의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이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와 함께 지역의 미래 신산업 육성(지식서비스업)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중장기적 관점, 혁신적인 기업 유치, 정책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부천시 미래 유망산업은 ① 금형, 세라믹, 로봇, 패키징 등 제조·기술 기반을 활용하고 업그레이드 추진 ② 영세 제조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화와 그린 혁신 추진 ③ 부천시 대표 기업인 온세미컨덕터 및 DB 하이텍과의 산업 연계, SK그린테크노캠퍼스와 협력 생태계 구축 ④ 소재·부품·장비산업+전방산업(로봇 산업 등)+제조서비스 결합 및 융복합 등에 부합하는 산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표23. 부천시 미래산업 선정에 있어서 장단점²⁵⁾

산 업	장 점	단 점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세미컨덕터(전력반도체), DB 하이텍(차량용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입지 반도체 관련 기업생태계 조성 국내외 반도체 시장은 지속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은 용인, 이천, 수원, 경기, 화성 등 반도체 허브 클러스터 조성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메가 클러스터 지역체들과 경쟁하면서 정책적 소외 및 고립 반도체 산업 도서로서의 부천시 이미지가 취약한 편으로 관련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을 것
미래차/ 정밀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빌리티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며 정부가 적극 지원 정밀기계산업은 제철 산업, 공작기계 산업, 연구·디자인·소프트웨어 산업을 통합산업으로 하고, 전기·전자·산업, 기죽자재 산업 및 자동차·항공우주·의료 산업을 전방산업으로하고 있어 침대제조업의 핵심 기반 산업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산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혁신적인 첨단 제조업 생태계 구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 혁신적인 생산 기반이 약화 영세한 부리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인해 디지털 전환 등 첨단화가 쉽지 않은 상황 관련 제조업 기업들은 혁신성이 부족한 전통 제조업 수준
바이오 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 그린테크노캠퍼스와 협력 가능 국가 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중 일부 예산 투자 인천·경기 바이오밸리 및 서울 바이오밸리 등과의 협력 연계를 통한 시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도 및 시흥과의 경쟁 관련 산업 기반이 취약
IT/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위한 기술적 티내 인천 계양(ICT, 디자일콘텐츠, 인공지능 등 육성) 및 서울 (마곡산업단지 포함)과 연계 협력한 생태계 구축 가능 부천시 IT/SW 인력 직주 접근 강화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상대적으로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지역체가 추진하는 기초 기술 부문 IT/SW는 범용적이어서 부천시 브랜딩화가 쉽지 않을 것 서울 중심 생태계가 강고
친환경/ 기후 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 그린테크노캠퍼스와 협력 가능 단소네줄 감소, 친환경 에너지 생산, 자원 효율성 향상 등 그린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육성 필요 글로벌 시장과 투자자 상승세 글로벌 동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확실성과 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불안정 기초기술이 부족하고 투자 기반이 부족해 시장 확보가 곤란 연구개발·설계, 연구·디자인·설계를 잇는 스타트업 생태계 부재 아직 초기 단계이자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여 기초자체가 핵심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가능성비가 높지 않은 편

IV. 맺음말

부천시 산업은 1990년대 IMF와 2010년대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다. 현재 공업지역 산업입지 환경이 대개 30년 이상의 노후화로 기반 시설 낙후되고 토지가격 상승 및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등으로 인해 산업의 생산·고용 등이 저감 현상 확산 및 산업 집적화 약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이 지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일반 제조업 중심의 낙후된 산업구조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산업구조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부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영세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속 가능한 신산업 기반의 구조로 개편하고자 기존 제조업의 ICT 결합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노후 산업단지 재생,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시설 및 인프라 노후, 글로벌 산업경쟁력 약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천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 지식산업 기반의 혁신클러스터로서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영세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및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신산업 육성,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첨단화 및 고도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7호,『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2006.
- 김재중,『산업입지확보 및 공업지역 기반시설 확충방안』, 부천시 재정경제국 정책 연찬회 발표자료, 2016.
- 부천시,『Vision Bucheon 2021 장기발전계획(경제분야)』, 부천시, 2011.
- 부천시,『Vision Bucheon 2024 장기발전계획(경제분야)』, 부천시, 2014.
- 부천시 기업지원과 편,『부천시 기업지원백서』, 부천시, 2022.
- 부천시 기획예산과 편,『제31회 부천시 통계연보』, 부천시, 2004.
- 부천산업진흥원 편,『부천시 미래산업육성 및 기업유치종합계획』, 2024.
-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 편,『부천시사』, 부천시, 1988.
-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 편,『부천시사』, 부천시, 2002.
- 부천시 통계홈페이지, <https://stat.bucheon.go.kr/site/main/index092> (검색일자 : 2024년 10월 5일)

25) 부천산업진흥원, 같은 책, 247쪽.

부천의 전통시장 형성과 변천

목차

- I. 머리말
- II. 시장의 형성 배경
- III. 시 승격 이후 전통시장의 성장과 현재
- IV. 맷음말

I. 머리말

시장은 상품이 거래되는 공간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장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산물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시장은 물건의 교환이나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다. 또한 시장이 지속되려면 물건의 교환과 판매의 행위나 형태가 반복해서 나타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장이 있는데, 이 중 일부 시장에 전통을 붙여 '전통시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발생한 시장은 역사적인 인과 과정을 통해 나타난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의미의 시장은 물건만을 판매·구매하는 장소로만 보기는 어렵고, 물건과 장소, 그리고 사람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이다.

1)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우리 역사에서 시장은 고대사회부터 존재했을 것이지만 현재의 전통시장과 가까운 모습은 조선 시대 장시(場市)라 할 수 있다. 장시는 15세기 이후 개설되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장시는 다양한 생활필수품부터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는 조선 시대 상품 유통의 중심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유지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간이기도 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한 장시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생활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문화를 반영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해당 지역 공동체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므로 단순한 지역의 의미를 넘어 복합적인 공간의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상품 거래는 기업형 마트, 종합쇼핑몰, 인터넷 쇼핑 등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어 과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재래시장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수나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전통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고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시장의 특성이 여전히 전통시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부천시에는 18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천시에 재래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천의 전통시장이 가지는 역사적, 공간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천의 전통시장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이 부천의 도시 발전 및 경제 성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이 글에서는 부천에 재래시장이 형성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부천시의 탄생 과정에서 찾아보고, 시 승격 이후 현재까지 재래시장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II. 시장의 형성 배경

전통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계절적으로 집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매장 또는 장터로서 주로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 즉 대략 1980년 이전에 개설된 상설시장 또는 정기시장을 의미한다.²⁾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³⁾ 부천시에서도 시의 인가를 받은 시장들을 전통시장이라 표기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품의 판매와 구매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다. 일반적인 시장에 시간적 의미인 '전통'이 붙으면서 역사적 의미가 더해졌다. 전통시장은 물건이 판매되는 경제적 장소이자 해당 지역의 사람과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되는 특수한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부천의 전통시장은 부천이 시로 승격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부천자유장을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로 개설되기 시작했다. 부천에 시장이 형성되고 오늘날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부천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부천시 내에는 총 18개소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소사, 원미, 오정 3개 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부천의 전통시장 발생 이전에 부천지역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인들이 있어야 한다. 우선은 물품을 판매, 구매할 욕구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어떠한 물품이 확보되어야 한다. 판매와 구매에 대한 욕구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요구되어야 하며,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 일정 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때 발생한다. 부천지역에 시장이 발생하는데도 이러한 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455호, 2024. 9. 20.

3) 이 글에서는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이라 부르고자 한다.

본 요인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가능했을 것이다.

부천이라는 지역명은 근대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이전 부천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근대 부천지역이 속해있던 지리적 특성과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천시 일대는 북서부가 평坦하고 남동부는 완만한 구릉지대의 자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는 부평에서 발원한 굴포천이 부천을 지나 한강으로 합류하는데, 굴포천이 지나는 평야의 구릉지대는 비옥한 평야 지역을 형성할 수 있었다. 굴포천이 지나는 인천 부평과 부천, 서울의 김포 등에 형성된 평야 지역을 부평 평야라고 하는데, 이곳은 전통적인 곡창지대였다.⁴⁾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인간이 입지 하기 유리한 환경이다. 실제 부천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⁵⁾ 이를 통해 볼 때 오랫동안 부천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은 농업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⁶⁾

실제 부천지역은 조선 시대에는 부평과 인천의 관할 하에 있던 전형적인 농촌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 시대까지 부천지역⁷⁾은 단독의 행정구역이 설치될 만큼 지리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한 지역이었다. 조선 시대에 부천지역은 부평도호부에 편입되어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⁸⁾ 1895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부평군으로 개편되어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부천지역의

중심 행정구역은 부평군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평군이 정치, 상업 등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부천은 부평과 지리적으로도 근접해 있어서 부평에서 열리는 장시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천지역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설된 시기는 언제부터였을까? 이를 추정해보기 위해서 시장이 들어설 수 있는 기본 요건인 인구와 교통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부천의 지리적 요건을 보면, 부천은 자연적으로 서울과 인천을 잇는 교통로 상의 요지이며 현재 부천시의 성장 역시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부천지역의 지리적 이점이 부각 되었던 시기는 1890년대 경인 철도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경인 철도는 청일전쟁 당시 경부선과 더불어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이다. 철도는 개설 시기부터 이해관계가 얹혀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1890년대 들어 일본은 경인선과 경부선의 부설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으나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간섭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1894년부터 고종은 미국인 모어스(James Morse)에게 경인 철도 건설을 허가하였다.⁹⁾ 그러나 일본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1898년에 철도 부설권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¹⁰⁾ 결국 1899년 9월 18일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경인 철도는 일본에 의해 완공되었다.¹¹⁾ 일본은 경인 철도의 부설을 통해 조선

9) “建陽 元年 3月 29日(日) 美國人「모어스」(James Morse 謨於時)에게 京仁鐵道敷設權을 許可하다”『고종시대사』4집, 建陽 元年, 丙申(1896년), 3월 29일.

10) “지난 2日 美國公使「알렌」日本公使 加藤增雄이 각各 外部大臣 朴齊純에게 照會하여 美國人「모어스」가 가지고 있던 京仁鐵道敷設權을 資金의 不足으로 日本人 日本金庫銀行督辦 濟澤榮一에게 謂授하는 契約이 前年 12月 31日에 確定되었음을 通報하여 온 바 이 날 外部大臣 朴齊純이 兩 公使에게 각各 照覆하여 同 契約를 默認할 것과 特히 京仁鐵道擔任會社와는 總約 訂立의 必要를 言明하다.”『고종시대사』4집, 光武 3年, 己亥(1899년), 1월 9일.

11) “○ 경인 철도 리슈) 경인 철도 합자 회사에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명도 리슈를 영국 리수로 모련 헛엇는 뒤 ○ 서울서 남대문 -리 ○ 남대문서 용산 그리 ○ 용산서 로량 그리 ○ 로량서 오류동 七리 ○ 오류동서 쇼신 四리 ○ 쇼신서 부평 三리 ○ 부평서 우각동 六리 ○ 우각동서 유현 -리 ○ 유현서 인천 二리 도합 二十七영리로 모련 헛엇더라번역문 : ○ 경인 철도 이수) 경인 철도 합자 회사에서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정도 이수를 영국 이수로 마련 하였는데 ○ 서울서 남대문 -리 ○ 남대문서 용산 그리 ○ 용산서 노량 그리 ○ 노량서 오류동 七리 ○ 오류동서 소사 四리 ○ 소사서 부평 三리 ○ 부평서 우각동 六리 ○ 우각동서 유현 -리 ○ 유현서 인천 그리 도합 二十七영리로 마련 하였더라.”『獨立新聞』, 1899. 9. 18.

의 철도를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도 했지만,¹²⁾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고 소사역이 세워지면서 부천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후 부천군이 탄생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¹³⁾ 이때 부평군은 폐지되고 새롭게 신설된 부천군 인근 지역들이 통폐합되어¹⁴⁾ 부천군 산하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일제에 의해서 1913년부터 단행된 지방제도 개편안으로 현 부천지역에도 행정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부천군의 신설이 공포되었고,¹⁵⁾ 이듬해인 1914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이 시기 일제는 조선의 군과 면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¹⁶⁾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부천군은 부평의 부(富)와 인천의 천(川)을 따서 생겨난 명칭으로 부천군청도 처음에는 인천지역에 설치되었다. 부천군이 신설되었던 초기에도 중심지는 현 부천지역이 아닌 인천이었다는 점에서 1900년대 초반에는 부천지역이 행정구역으로써 중심지 역할로 고려되기에 적절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천에 처음 개설된 시장은 소사시장(현 자유시장)인데,¹⁷⁾ 1927년 9월 6

12) 鄭在貞, 「日本의 對韓 侵略政策과 京仁鐵道 敷設權의 獲得」『 역사교육』99, 2001, 117~1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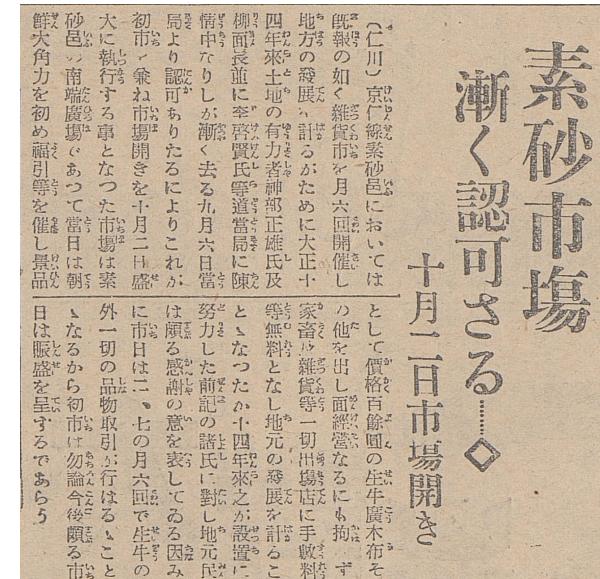
13) 김명환, 「대한제국기」「부천시사」, 부천시, 2023, 107쪽.

14) 당시 통폐합된 면은 다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김명환, 「일제강점기」「부천시사」, 2023, 부천시, 112쪽).

15) “道ノ位置,管轄區域及府郡ノ名稱,位置,管轄區域左ノ通定ム”『朝鮮總督府官報』, 1913. 12. 29. 호외1.

16) 오동석, 「일제하 ‘지방자치’ 관련 법제의 변화」『法史學研究』30, 2004, 18~21쪽.

17)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현 시흥시 신천동은 부천군에 속해있었다. 이곳에는 범내천이라는 하천의 이름을 딴 범내장이 있었는데 300년 가까이 이어진 우시장이었다고 한다(박정민, 「1920~1930년대 후반 소래 지역의 성쇠와 지역사회의 대응」『인문학논총』81, 2024, 117~118쪽).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천에 있었던 가장 이른 시기의 시장을 범내장이라 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현재 부천시 행정구역을 우선으로 한다.



도1. 소사시장 개시 기사, 『朝鮮新聞』, 1927. 9. 23.

일에 시설 인가를 받고¹⁸⁾ 10월 2일에 개장했다.¹⁹⁾ 이어 1934년 12월 17일에 소사에 우시장이 개시되었다.²⁰⁾ 부천 내 소사지역에 시장이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부천지역에도 소사역(현 부천역)이 개설되었다. 소사구(당시 소사읍)는 부천지역에 경인선 철도와 경인가도가 있었던 지역으로 당시 교통의 중심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점으로 부천지역에서 가장 먼저 도심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인천에 소재했던 부천군청이 1962년 부천역 남부에 위치한 소사읍 사무소 건물로 이전이 결정되면서²¹⁾ 현 소사구 일대는 부천의 행정 및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시장이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은

18) “素砂市場 六日에 認可”『毎日申報』, 1927. 9. 26.

19) “素砂市場, 漸く認可さる, 十月二日市場開き”『朝鮮新聞』, 1927. 9. 23.

20) “素砂牛市場 舊臘十七日開市”『毎日申報』, 1934. 12. 31.

21) “邑事務所를 使用 富川郡廳舍로”『경향신문』, 1961. 10. 8.

이 지역에 이전과는 다른 정도의 인구 유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부천은 1914년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면서 이전의 부평군이 폐지되고 부천군이 탄생하였다. 행정구역 개편 이후 부천군은 1920년 대까지도 전형적인 농촌 사회였다. 이 지역에 변화는 부천 소사지역에 복승아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²²⁾ 복승아 재배가 활기를 띠게 되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소사지역으로 유입되었고, 농장 노동을 위한 노동자의 수도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다. 소사의 복승아 광고는 이미 1930년부터 등장하고 있는데²³⁾ 이로 보아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한 복승아 재배는 1930년대를 전후하여 상당량에 달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생략)… 과일, 더욱 복승아로 유명한 소사(素砂)이다. 이곳 사람들은 ‘소사’가 아니라 ‘소새’라고 부르는 것이 어쩐지 귀엽게 들린다. 소새 장거리에 다다르기도 전에 무슨 원(園)하는 말뚝 간판에 보이는 것이 전부 과수원이다. 이백오십 집에 삼천 명이 될락말락 하다는 장거리의 이 구석 저 구석에는 큰 과수원 적은 과수원이 사이사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 좁은 산골짜기에 과수원이 자그마치 백집(조선 사람은 겨우 서른 집 가량)이나 된다고 하니 ‘과원 소새’로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복승아나무에는 꽃이 필 생각도 하지 않는 때이지만 길을 걸으면 복승아 향기가 코를 간질이는 것 같다. 작년 일 년 동안에 이곳 상업조합을 거쳐나간 복승아만 일만이천 상자에 배, 사과가 일천오백 상자라고 하니 소새의 존재는 까닭하면

22) 부천에 개량된 복승아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한 때는 1902년부터이며 1903년 인천역장을 지낸 일본인 다케하라가 재배를 시작하고 이후부터라고 한다. 김명환, 「일제강점기」『부천시사』1, 2023, 114쪽.

23) “素砂の桃”『朝鮮新聞』, 1930.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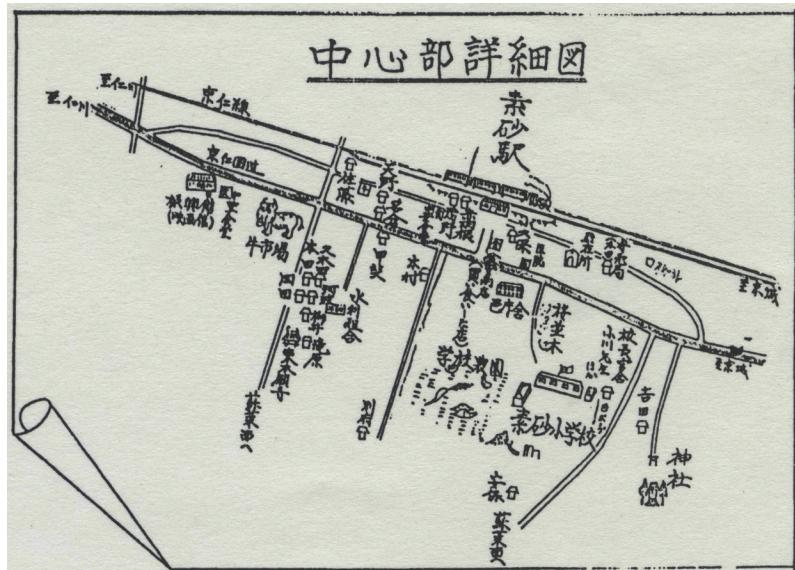
비타민이 모자라 영양부족에 빠지는 경성, 인천 양반들에게 비타민이 풍부하고도 맛있는 과일의 일대 공급지로서 독특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²⁴⁾

위의 기사는 1938년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이다. 글쓴이는 경인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각 지의 특성이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소사에 대해서는 복승아와 관련한 내용들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1938년 당시 소사지역에만 과수원이 100여 개 남짓 존재했고, 여기서 나는 수확물의 양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림 잡아 250가구에 3,000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는 소사에서는 100가구 정도가 복승아 농사를 지었는데 100여 곳의 과수원 중에 조선 사람이 경영하는 농장은 30여 곳뿐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여전히 일본인에 의한 경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곳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은 복승아 농사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1937년 한 해 동안 생산된 복승아가 1만 2천 상자라고 한다면 배와 사과를 제외하고도 복승아 재배에 상당량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복승아 재배에 투입된 노동력은 대체로는 조선 사람이었다. 소사의 복승아가 유명해질수록 복승아의 재배면적은 확대되었고, 부천지역으로의 인구 유입도 계속 증가했을 것이다.

1899년 서울-인천을 지나는 경인 철도가 부설되면서 부천지역에도 근대적 교통망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시장이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요건 중 교통망이 갖추어진 것이다. 1914년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부천군은 15개면 146개 구역을 담당하는 행정구역이 되었다. 이 시점은 부천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동시에 1900년대 초에 시작되었던 복승아 재배는 1920년대 이후 상당히 큰 규모로 확대되었고 이

24) “京仁街道鐵筆 로케-순-口味이끄는 水蜜桃는 素砂地方의 名產”『朝鮮日報』, 1938. 4. 19.

에 필요한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인데, 이때 경인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 생산된 복숭아를 판매, 구매할 시장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요건 속에서 1927년 부천지역에 처음 소사시장이 개설될 수 있었다. 부천에서 가장 처음 생긴 시장이 소사역(현 부천역)이었던 점은 생산된 물품의 판매가 교통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2. 일본인이 그린 부천 시가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방 이후 한국전쟁 중 부천지역은 인천으로 들어온 군수물자가 서울로 운송되는 중간역으로 기능하면서 빠르게 도시화 되었다. 해방 이후 이곳에 있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철수하고, 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원 거주민들이 돌아오고 북한에서, 많은 사람이 월남하면서 이 시기 혼란은 빠르게 복구되었다. 전쟁 동안 부천지역은 비교적 큰 피해를 보지 않았던 점도 이 지역에 다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오히려 군수물자가 운송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부천지역의 도시화는 더 빠르게 성장하기도 했다.

1950년대 부천지역의 인구 증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했는데, 이는 국적, 지역적 계획이나 행정적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다양한 이유를 통해 부천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²⁵⁾

1950년대 이후에도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했고 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부천지역도 본격적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부천은 경인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부천지역에는 많은 공장과 이들이 주거하는 주거 공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62년에 부천군청이 소사읍으로 이전하고 1967년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²⁶⁾ 부천지역에서도 소사읍 주변 지역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1974년 경인철도 전 구역이 전철화되면서,²⁷⁾ 부천에는 변화가 지속되었다. 전철은 대규모의 인원을 수송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승차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이때 소사역이 부천역으로 변경되었다. 동시에 역곡역, 송내역, 중동역이 신설되면서 부천지역에는 더욱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밀집된 주거 기능을 분산하는 중요지역으로 부상하였다. 급증하는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부천은 급속도로 도시화하였다. 변화하는 여건에 맞는 새로운 상권이 필요해진 시기가 된 것이다.

III. 시 승격 이후 전통시장의 성장과 현재

1970년대 들어서 부천군이 부천시로 승격되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과 철도의 개통, 꾸준한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부천지역이 공업도시와 주거 도시의 모든 요건을 잘

25) 조명래, 「도시개발」『부천시사 : 부천의 성장과 발전』3, 2002, 7~9쪽.

26) “京仁道路期內完工”『조선일보』, 1967. 11. 25.

27) “警笛과 함께 열린 地下鐵 시대”『조선일보』, 1974. 8. 15.

갖추었기 때문이다. 결국 1973년 7월 1일로 시로 승격되어 기존 소사읍의 인구와 행정을 총괄하게 되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도시 정비 문제였다. 부천이 시로서 발전하려면 부천시의 도시화가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토지 사용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했다. 부천시는 위치상 서울 근교라는 점을 크게 부각하여 경인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경공업 도시로 개발하고, 경인고속화도로 변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을 개발, 지하철역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개발에 맞추어 부천의 상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부천은 1973년 시로 승격 이후 1970년대 말까지는 자유시장 하나만이 존속하고 있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1980년에 3개, 1982년에 5개, 1984년에 7개로 증가했다. 1980년대 부천시 내 시장의 급격한 증가 원인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된 부천의 도시화와 맞물려 1980년을 전후해 부천시의 인구가 급증했던 데 있다. 1984년에는 부천역 자유시장 내 대도상가가 건립되고 분양되기 시작했다.²⁸⁾ 1997년에는 국내 최초로 민간 자본에 의해 설립된 농·축·수산물 유통센터가 개장하였다. 당시 유통센터는 경인고속도로, 경인 천철, 소사역과 가까운 소사본 2동에 있었고, 중간 이윤이 없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²⁹⁾

한편, 부천시에 상권 변화가 오게 된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1990년대 부천 신도시 개발을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부천시는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로 변화했다. 1985년 당시 부천시의 인구는 40만 명대로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기

도 했다. 이러한 인구급증으로 인해 부천시에는 도시개발, 그중에서도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 시기 정부에서 수도권 주변 5개 지역에 대단위 신규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부천 중동이 5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³⁰⁾ 1990년대 중동신도시 개발이 진행되자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확장되고 주거단지와 상업지구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어 1994년 12월 상동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어³¹⁾ 2003년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서 부천시에서 상·중동 신도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부천이 시로 승격하고,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부천의 경제기반도 변화하게 되었다. 1980~90년대까지 부천의 주요 경제기반은 제조, 수출 위주의 공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부천을 기반으로 했던 생산, 제조, 수출 중심의 기업들은 이웃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0년대부터는 새로운 경제기반이 부천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5대 특화산업이 선정되어 전략적인 산업 육성을 하고 있다.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의 5대 사업은 지식기반형 특화산업으로 부천시 내에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부천의 신도시 개발 및 부천시 도시정비 사업의 결과라 할 수 있다.³²⁾

1990년대부터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되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백화점, 각종 문화시설과 휴식공간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부천역 북부 광장에는 해태쇼핑파 이마트 부천점이, 송내 역에는 뉴코아(현 투나), 중동신도시에는 롯데백화점 중동점, 까르푸, 상

28) “富川 대도상가 내달 開場”『경향신문』, 1984. 1. 31.

29) “수도권 남서부의 ‘제2 가락시장’ 부천 농산물유통센터 5일 개장”『경향신문』, 1997. 7. 3.

30) “中洞 아파트·단독 住宅 균형 배치”『매일경제』, 1989. 10. 11.

31) “富川 상동신도시 건설”『경향신문』, 1994. 12. 22.

32) 이수형, ‘경제와 산업’,『부천시사』2, 2023, 88~100쪽.

동 신도시에는 현대백화점, 소풍, 뉴코아 부천점, 이마트 상동점 등이 입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천시 내 상업공간의 전체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부천시 승격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던 전통시장의 증가율은 멈추게 되었고, 부천 초기 상권 중심지였던 소사구 지역은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한 상권 중심지 역할을 잃게 되었다.

기존에 시장을 중심으로 했던 상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지역 내 소상인들도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의 노후화이다. 노후화 문제는 전통시장의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여기에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새로 들어서자, 지금까지 제기되어 오던 전통시장의 시설 노후화, 편의 시설의 부족, 서비스 불만족 등의 문제점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 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미비이다. 전통시장에서 에누리나 흥정은 친근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정가제나 할인제를 시행하는 마트에 비해서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불친절한 태도 등이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이탈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이 많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사이에서도 격차가 생기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부천에서는 시 주도 아래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실시한 대책은 전통시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의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인가하는 것이었다.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부천시의 많은 전통시장 중 부천시의 인가를 받을 18곳이 선정되었다. 부천시의 혜택을 받은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명하여 이후부터 부천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전통시장들은 부천의 도시계획사업 내 존재하면서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현재 부천시의 혜택을 받은 전통시장은 총 18곳이며 점포 수는 1,806점, 상인 수는 3,558명에 달한다. 부천에서 전통시장으로 운영되는 시장들은 바로 2005~2007년 사이 혜택제를 시행한 이후 등록한 시장들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 중에서 시의 혜택을 받은 전통시장은 부천이 가장 많다. 부천의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며, 부천에서 전통시장이 갖는 위상을 알 수 있기도 하다. 현재 부천 시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은 2000년대 이후 부천시와 전통시장 간의 긴밀한 협조와 변화를 위한 상호 노력이 합해진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표1. 부천시 전통시장 현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 일자	위치 지역
부천상동시장	2005.04.06	원미구
원미부흥시장	2005.04.11	원미구
역곡상상시장	2005.04.22	원미구
오정시장	2005.04.27	오정구
원미종합시장	2005.05.20	원미구
중동사랑시장	2005.06.24	원미구
원종중앙시장	2005.08.03	오정구
조공시장	2005.08.30	소사구
원종종합시장	2005.09.09	오정구
청과물시장	2005.12.16	소사구
역곡남부시장	2005.12.16	소사구
부천자유시장	2006.02.01	소사구
신흥시장	2006.02.01	오정구
강남시장	2006.02.22	원미구
부천제일시장	2006.02.22	오정구
부천한신시장	2006.02.22	소사구
소사종합시장	2006.02.22	소사구
고리울동굴시장	2007.01.12	오정구



도3. 부천시 전통시장 지도, 부천시 홈페이지.³³⁾

이후에도 부천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왔다. 2008년에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 재래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³⁴⁾ 1990년대부터 부천시 내에 들어선 대형 유통점, 백화점 같은 쇼핑몰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데 이어서, 2010년 즈음에는 기업형 슈퍼마켓도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대형 유통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부천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다.³⁵⁾ 전통시장에 대한 고민은 부천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현재

33) 부천시 홈페이지 재인용

<https://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4007001>
(검색일자 : 2024년 10월 10일)

34) “부천, ‘재래시장 가는 날’ 운영”『조선일보』, 2008. 5. 20.

35) “부천시, 93억 들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상인교육”『동아일보』, 2011. 2. 8.

는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결과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시장 특성화에 성공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들도 존재하기도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전통시장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부천지역 내 전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천시가 일찍부터 부천의 상권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빨 빠르게 대응한 점은 시의 재래시장 운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부천의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부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비교적 장기 계획에서 잘 드러난다. ‘2030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³⁶⁾ 부천시는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자영업·소상공인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중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우선시 된 부분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이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 상권 규모 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2017년에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기도 하는데, 그간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내용과 성과

추진내용	성과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 5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통행로 보수 등 기반시설 확충 고객지원센터(복합문화공간) 신축 및 매입 : 5개 시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결과 만족도 증가
안전시설 구축 : 호스릴 소화전, 화재감지기 등	

36) 『2030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부천시, 2014, 317쪽.

추진내용		성과
고객이 지속해서 찾는 차별화된 특화시장 육성 기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3년 연속 사업) : 2개 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1년 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후 방문객 증가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고객 유치	지역방송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 19개 시장 전통시장 홍보 웹툰 지원 : 6개 시장 전통시장 소식지 발행 : 19개 시장 시정뉴스, 시정소식지, 블로그 등 : 19개 시장 95개 점포	외국(중국)인 관광객 전통시장 방문을 통한 국위 선양
볼거리 제공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	봄꽃축제와 연계한 전통시장 문화행사 : 4개 시장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 100개 부스 상인대학(점포) 대학 육성 : 6개 시장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한 전통시장 홍보를 통한 행사 기간 중 매출액 10% 이상 향상

위의 세부 사항 중 부천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이 시기 5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통행로 보수,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신축 용지 매입, 홍보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치 등 시설 관리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시설이나 경영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시장 자체의 시설 개선과 시장을 찾는 고객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는데 집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³⁷⁾ 2019년에도 시설 보수 및 현대화 지원사업은 계속되었고 또한 2021년에는 총 505억의 예산을 들여 주차 공간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³⁸⁾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불리면서 이를바 ‘오래된’, ‘옛것’의 느낌이 나기도 한다. 실제로 오랫동안 시장의 낙후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가진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부천시는 시장의 낙후성에 대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에 집중한 결과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비교적 쾌적한 시장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현재 부천의 전통시장의 상당수는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런 시장은 날씨에 상관없이 방문하기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전통시장 지원 방안은 시장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친근한 접근성을 위해 시장 마케팅, 상인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사업을 도모했는데, 2017년에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및 홍보마케팅 부분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의 결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³⁹⁾ 2017년의 성과에 힘입어 이듬해인 2018년 경기도 부천시 전통시장의 특성화 사업 성과물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관내 역곡 상상 시장과 부천 중동시장이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⁴⁰⁾ 2019년 부천 중동과 상동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시장개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다. 부천 중동과 상동은 신도시로, 부천 중동시장과 상동 시장은 새로운 전통시장의 모델로 주목해 볼 수 있다.

37) 『부천 클래스_업 : 혁신우수사례집』, 부천시, 2017, 8~10쪽.

38) “부천시, 전통시자 살리기 위한 돌파구 찾아낸다” 『생생부천』, 2021. 5. 21.

39) “부천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대통령 표창” 『머니투데이』, 2017. 10. 27.

40) “부천 전통시장 ‘상복’ 타졌다… 중기부장관 표창, 경기도 공모도 선정” 『세계일보』, 2019. 5. 21.

한편, 부천시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크게 일조한 정책 중 하나가 부천 지역화폐(부천페이)의 발행이다. 부천시의 자금 유출 방지 및 부천 내 유통을 증가시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천페이를 발행하고 2019년부터 4월 1일부터 사용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부천페이 발행액이 2,000억을 돌파했는데, 실 사용액이 1,902억에 달하면서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⁴¹⁾ 현재 까지도 부천페이는 활성화되고 있으며 계속하여 사용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부천시 내 부서와 협력 기관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부천페이 사용을 지속해서 장려하고 다양한 복지,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있다.⁴²⁾

2020년대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시장 내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시에서는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⁴³⁾ 고리울동굴시장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되었고,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2021년 시행했다. 고리울동굴시장은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부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리울동굴시장의 예는 전통시장의 변화가 지역의 도시계획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전통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좋은 선례를 제공한다.

한편, 각 시장에서도 스스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인다. 예를 들어 부천 역곡북부시장은 ‘역곡 상상 시장’이라는 이미지화를 통해서 ‘미래 지향적 디

자인’ 전략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⁴⁴⁾ 역곡 상상 시장은 이후에 만화 카페 및 캐리커처 체험 등 디자인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2023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K-마켓 페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⁴⁵⁾ 이러한 변화는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판매에도 영향을 주었다. 실제 역곡 상상 시장은 20~30대 청년층 고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장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각각의 시장만이 갖는 시장 마케팅은 앞으로 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긍정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통시장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부천의 전통시장의 몇 사례 등은 앞으로 다른 전통시장도 따라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개개 상인들은 지원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상인들 스스로가 변화하는 상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친절, 상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인터넷 판매, 직거래, 배달 등의 새로운 유통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이 찾는 상품을 잘 관리하고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등도 개발해야 한다. 또 그 전통시장만이 갖는 특징(문화적, 지리적, 이미지 등)을 잘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도 젊어져야 한다. 전통은 과거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늙었다거나 오래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통시장이 친근한 이미지

41) “부천페이, 발행액 2,000억 돌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부천포커스』, 2020. 12. 22.

42) 여효성,『산업』『부천시사』2, 2023, 147~148쪽.

43) “부천시, 원미부흥시장 등 14곳에 주민참여형 마을 정원 조성”『경기일보』, 2021. 1. 12.

44) 이유경,『전통시장 이미지 통합 컨텐츠 연구 : 부천 역곡북부시장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48~49쪽.

45) “역곡상상시장,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서 ‘대통령상’ 수상.”『시대일보』, 2023. 10. 11.

이기는 하지만 고령화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사실 전통시장은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다. 이는 젊은 층이 상인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전통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청년층의 상인이 필요하다. 이미 2017년 청년상인스타트업지원단이 출범하고⁴⁶⁾ 2024년 전통시장육성재단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단체는 전통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통시장이 유지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전통시장의 미래 지속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내에 청년몰을 입점시키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전국 39곳의 전통시장에 청년몰이 매장이 개업했는데, 결제 편의, 가격·원산지표시, 고객선 준수, 친절 및 청결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도 하였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까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전통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효과를 이를 가능성을 제시한 일례라 할 수 있고, 노후화된 전통시장 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의미가 있다. 부천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향후 전통시장 지원의 방법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부천의 전통시장 형성 배경과 현재 전통시장의 변화 과정을 언급하였다. 오랫동안 자연 농촌 사회였던 부천지역은 현재 인구가 8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도시는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이 중심이 되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도시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가 거주해야 하고,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사람이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 상업시설이 위치해야 하고, 여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부천은 지리적으로 농업이나 공업이 조성되기 편리한 환경이라는 점, 위치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경계라는 이점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부천이라는 도시는 근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문화적, 정서적 토대는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었다. 전통시장의 존재는 부천의 도시 발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상은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상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도착해 있다. 이제는 직접 물건을 사러 외출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사회이다. 대형 마트도 빨 빠르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비 풍토 속에 전통시장의 시장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은 지역 사람들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 이제 더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새로운 소비에 익숙한 사람들도 전통시장은 추억으로 기억된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전통시장과 관련한 정겨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통시장이 가지는 힘이 아닐까 한다.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러 가는 곳이 아닌, 삶의 냄새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오가는 곳이 전통시장이다.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특수한 기억이 전통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물론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만으로 전통시장이 지속되기는 힘들다. 전통시장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역시 변화해야만 한다. 현재 부천의 전통시장은 시의 지원과 상인들 자체의 노력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까지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롭고 편리한 상품 거래의 장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전통시장의 전통이 새롭게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전통에만 얹매여 있다면 미래의 전통시장의 종말은 자

46)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 돋운다”『한겨레』, 2017. 6. 18.

명하다. 전통시장만이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한 때이다. 전통시장은 저렴하고 신선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계속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시장의 낙후, 주차 문제 등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차 문제는 가장 빨리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고 이외에도 휴게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전통시장이 지역의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의 유통망이나 환경개선은 일부분 가능할지라도 현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시설처럼 완벽하게 갖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만이 갖는 특수성, 바로 공간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통시장은 과거의 추억과 지역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분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 부천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전통시장이 되기를,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석규,『朝鮮後期場市變動의 樣相-전라남도의 장시를 중심으로-』,『한국문화』2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김병문,『일제침략기 지방행정구역 변천과정 : 식민지 통치 강화를 위한 안동지역의 행정구역 축소 변천과정을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26,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박정민,『1920~30년대 후반 소래 지역의 성쇠와 지역사회의 대응』,『인문학논총』81, 2024.

배기동·강병학,『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발굴조사』,『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문』23, 1999.

부천문화원,『부천의 역사와 굴포천』,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연구 및 활동성과 자료집, 2022

부천시,『부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 부천시, 2014.

부천시,『부천 클래스-업 : 혁신우수사례집』, 부천시, 2017.

부천시사편찬위원회,『부천의 산업경제』, 부천시, 1988.

부천시사편찬위원회,『부천시사 : 부천의 성장과 발전』3, 2002

부천시사편찬위원회,『부천시사』(1~3), 부천시, 2023.

안창모,『대한제국과 경인철도 그리고 서울역』,『철도저널』19, 2016.

오동석,『일제하 '지방자치' 관련 법제의 변화』,『法史學研究』30, 2004.

이유경,『전통시장 이미지 통합 콘텐츠 연구 : 부천 역곡북부시장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鄭在貞,『日本의 對韓侵略政策과 京仁鐵道 敷設權의 獲得』,『역사교육』77, 2001.

진주완,『조선총독부의 도시지역 공설시장제도 도입과 운영실태』,『한국민족운동사연구』86

참고문헌

『경향신문』

『고종시대사』

『獨立新聞』

『毎日申報』

『朝鮮新聞』

『조선총독부관보』

『朝鮮日報』

『한겨레』

부천 50년의 빼대, 경인선

전현우¹⁾

I. 교량 도시 부천과 철도

인천에서 서울을, 서울에서 인천을 오갈 때 부천은 일종의 교량처럼 느껴진다. 두 큼직한 도시 사이의 공간을 빈틈 없이 이어주는 이 도시.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급행열차가 소사역 내리막의 곡선을 속도를 내

목차

-
- I. 교량 도시 부천과 철도
 - II. 50년 간의 변화: 전체 그림
 - III. 1974년 1호선 개통과 초기의 성장
 - IV. 1980년대, 순식간에 등장한 '지옥철'
 - V. 1990~1999: 지옥철과 경인선 2복선화
 - VI. 1999~2011: 2복선화 이후의 경인선
 - VII. 2012년, 7호선의 등장과 재정 불안
 - VIII. 2020년대와 그 이후: 코로나19 이후, 부천과 경인선 주변의 새 철도들
 - IX. 결론을 대신해: 다시, 경인선



도1. 부천의 철도망, 산지, 고속도로망. 저자 작도, 2024년 현재.

1)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며 통과할 때, 승객들의 눈에는 선로 북쪽 이 도시의 시가지가 눈에 가득 들어온다. 가까운 소사본동의 나지막한 저층 주거지부터 멀리 신증동역 인근의 고층 주상복합까지, 도시의 규모와 층은 그 자체로 선로 남쪽 성주산만큼 높아 보인다. 곧이어 나오는 ‘이번 역은 부천, 부천입니다’라는 방송까지 들리면, 지금 이 열차가 부천을 통과하고 있다는 감각은 더욱 생생해진다.

50년 동안 이 도시의 뼈대는 경인선이었다. 부천은 경인선과 함께 성장해왔다. 이 도시가 주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하나의 실체가 되었던 것도 경인선 복선전철화가 개통을 보기 직전 시점, 1973년이었다. 1971년 착공된 1호선이 개통하기 1년 전 태어난 이 도시는, 1호선과 함께 50년 동안 성장해 왔다.

이 글은 이 성장의 모습을 다룬다. 초반 25년, 이 도시는 급속도로 성장하며 주어진 공간을 꽉 채우고, 그와 함께 열자는 지옥철이 되었다. 후반 25년, 그동안 공간이 꽉 찬 이 도시는 복복선과 병행 노선 7호선을 얻었지만 이제 조금씩 낡아간다. 코로나19라는 충격을 겪고 회복중인 이 도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변동, 기후 문제라는 미래의 위기 또한 천천히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II. 50년 간의 변화: 전체 그림

이야기를 표1-1과 표1-2에서 시작해 보자. 이 그림은 2000년 기준, 부천시 인구와 관내 일 평균 철도 승차객²⁾의 상대 규모를 보여준다. 이렇게 상

대 규모를 보여주는 것은, 인구는 약 80만인데 비해 철도 승차객은 하루 약 15~20만 명 수준으로 절대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 데이터는 ① 1970년대, ② 1980년대, ③ 1990년대, ④ 2000년대, ⑤ 2010년대, ⑥ 2020년대마다 부천과 부천의 교통망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흔적을 보여준다. 시대별로 데이터의 변화, 그리고 이들 변화를 이끈 요인을 간단히 짚어보자.

표1-1. 인구와 철도 이용객의 상대 변화, 1970~2020년. 인구: 각 년도 인구총조사, 승차인원: 각 년도 철도통계연보. 단, 1970년과 1975년 철도이용객 값은 망실되어 각각 인접한 1969, 1976년 값으로 보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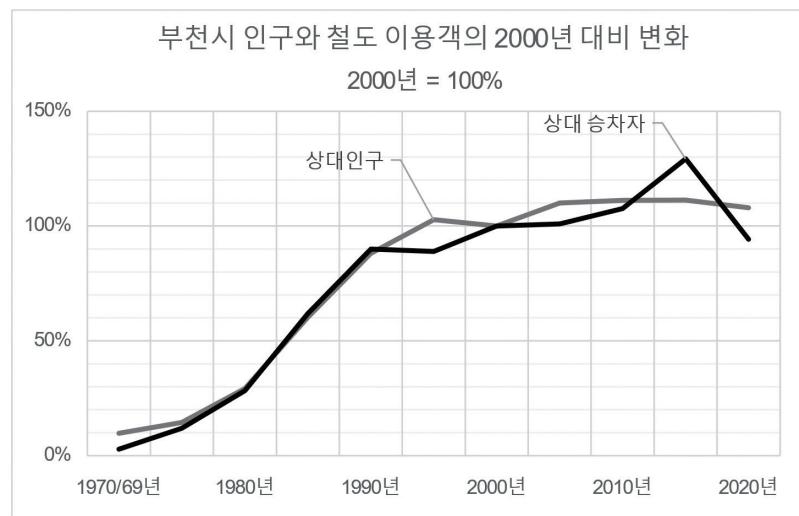


표1-2. 부천시 총인구와 관내 철도 승차객(일평균) 값의 변화. 표1-1과 같은 자료이다.

	1970 /69년	1975 /6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총인구	73,689	109,053	221,397	456,148	667,896	778,693	757,832	833,931	842,482	843,794	818,383
철도 이용객	4,187	18,212	43,049	94,236	137,077	135,443	152,391	153,840	163,939	196,990	143,650

① 1970년, 소사읍의 인구는 약 7만 명, 부천역(당시 소사역)의 이용객은 하루 4천명 수준이다. 하루에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상주 인구의 6% 정도인 셈이다. 1호선 개통 이후 이 값은 거의 3배인 17%로 높아졌다. 이 글에서도 모든 이용객 규모는 승차객으로 나타낼 것이다.

2) 통상 철도 운영기관은 승하차객이나 수송(승차객+환승 후 자 기관 운영역에서 하차한 승객)인원을 기준으로 승객 규모를 발표하는데, 이는 전체 통행량 가운데 철도 통행의 규모를 과장하는데 쓰일 수 있다. 1회의 통행을 1 이상의 값으로 계산(승하차는 2, 수송은 1+평균 환승횟수)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회의 통행은 1회로 나타내는 승차자 수를 철도 이용규모의 대푯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글에서도 모든 이용객 규모는 승차객으로 나타낼 것이다.

다. 1975/년 기준, 인구 11만 명에 이용객 1.8만 명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이 비율은 비슷한 수준(18~23%)으로 유지된다. 전철 개통 초반부터 부천은 전철에 비슷한 수준으로 기대어 살아갔던 도시가 되었던 셈이다.

② 이처럼 경인선에 의존한 부천의 개발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표1-1에서 상대 인구와 승차자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것은 1980년대이다. 1970년대 인구는 매년 1.5만 명, 승차객은 4천명씩 성장하던 데 비해, 1980년대에는 인구가 매년 4.5만 명, 승차객은 9천명씩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세를 경인선이 이끌었다는 것은 두 곡선이 서로 겹쳐있다는 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는 인구가 늘었음에도 이용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인구와 철도 승차객 패턴 사이에 처음으로 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지옥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내 혼잡이 극에 달했던 데다, 당시 가속화되고 있던 자동차 보급으로 인하여 중산층의 대중교통 탈출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인구와 철도 이용객 전체가 정체 상태에 빠진다.

④ 2000년대 들어서면 인구와 철도 이용객은 모두 약간 늘어나게 된다. 이는 현재 부천에서 개발되어 있는 마지막 택지인 상동지구 입주, 그리고 경인 복복선 개통으로 인한 용량 증대 효과 때문이다.

⑤ 2010년대에는 인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됨에도 철도 승객이 다시 급증한다. 이는 부천 중동·상동지구에 7호선이 개통했기 때문(2012)이다.

⑥ 이후 2020년대 초반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철도 이용객이 30%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인구 역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표2. 부천지역 철도 승차자, 노선별 규모. 각 년도 철도통계연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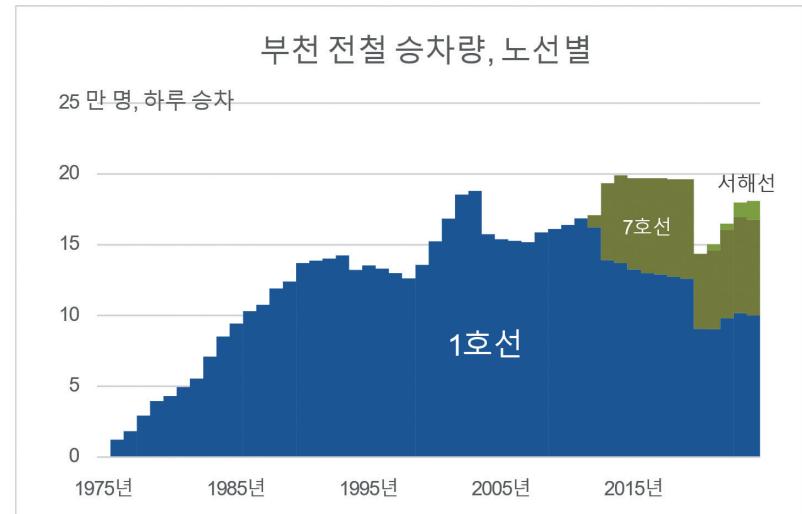


표3. 부천지역 승차자, 역별 규모. 각 년도 철도통계연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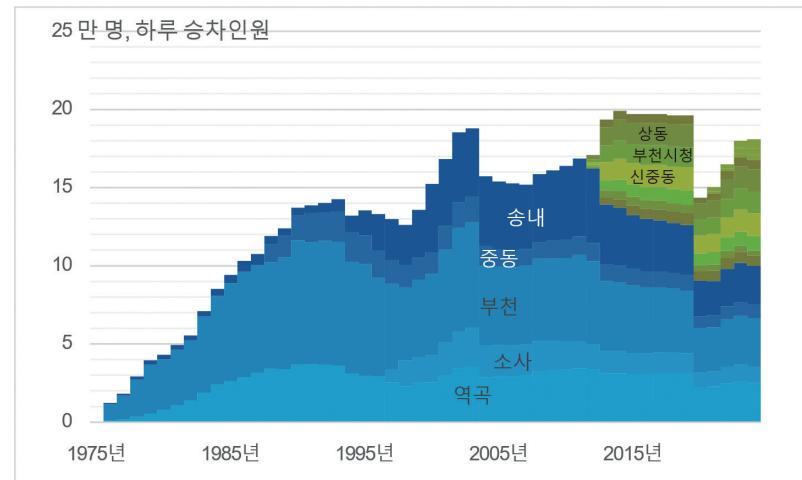


표2, 3은 이들 현상 가운데 철도 이용객의 변화를 조금 더 상세히 분해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①, ② 1970년대와 80년대, 부천의 철도 승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이 가운데 부천역은 가장 가파르게 승객 규모가 증가하여 주변 개발을 이끈다. 1990년 이 역의 승객 규모는 (2년 전 개통한 중동역이 약 1.5

만 명의 승객을 흡수하였음에도) 약 8만 명에 도달한다. 역곡 또한 이 도시의 초기 성장의 한 축이었으며 이용객 정점은 1991년(3.7만 명)이다.

③ 1990년대 초 부천지역 경인선 승객은 성장이 둔화하다가 조금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즉, 1993년 정점을 기록(14.3만 명)한 뒤, 매년 수천 명이 줄어 1998년에는 12.6만 명까지 감소한다. 이러한 감소세는 앞서 언급한대로 차내 혼잡과 자동차 확산 덕이다.

한편 이 시기 부천, 역곡역의 승객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송내역이 부상한다. 송내역은 중동신도시의 관문으로, 1990년까지는 역사 북측이 농경지였을 만큼 개발이 늦었으나 1994년 이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승객이 급증한다. 송내역의 승객은 1997년 역곡역보다 많아졌으며(2.6만 명), 2000년 이후 13년간 4만 명³⁾을 상회하는 대규모 승객을 유지하며 부천의 주요 역으로 자리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소사역이 개통하였으며, 부천과 역곡역의 승객을 분담하였다.

④ 부천 시내 경인선은 1999년 2복선화되었다. 내선으로는 구로~부평⁴⁾ 간 급행열차가 송내, 부천, 역곡역에만 정차하였고, 외선으로는 완행 열차가 모든 역에 정차하였다. 이러한 공급 증대 효과로 인해 경인선 승객은 기록상 정점(2003년, 18.8만 명)에 도달하며, 직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의해 승객이 크게 감소한 이후에도 1993년의 정점을 상회하는 이용객을 기록한다. 이후 2011년까지 경인선 승객은 꾸준히 소폭 증가한다.

⑤ 2012년 이후에는 중동신도시를 횡단하며 경인선과 평행하게 달리는

7호선이 등장하여 1호선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만 명의 승객이 승차한다. 단, 역세권이 겹치는 대규모 역(부천, 송내)을 중심으로 경인선의 승객은 약 3만 명 감소한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부천시 전체의 철도 이용객은 3만 명, 20% 가량 늘어난다.

⑥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노선, 모든 역의 승객이 20~30% 감소한다. 특히 이 가운데 7호선보다는 경인선의 감소세가 4% 가량 더 커졌다. 이후 회복 과정에서도 경인선은 7호선보다 승객 회복이 더 느린다. 2024년(9월까지)의 경우 경인선의 승차객은 약 10만 명인데 반해 7호선은 약 7만 명으로, 7호선은 코로나19의 충격을 거의 회복하였으나 경인선은 80% 만 회복된 상태이다. 부천역은 1980년, 역곡역은 1985년, 송내역은 1996년 수준의 승객을 기록중이며, 중동과 소사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편 2023년에는 남북 노선인 서해선이 개통되어 오정구 일대에도 처음으로 철도가 직접 공급되는 변화도 있었다. 서해선의 승차객은 약 1.3만 명, 시내 철도 이용객의 8% 수준이며, 코로나19 여파가 남아 있어 아직 철도 승객 전체를 증가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III. 1974년 1호선 개통과 초기의 성장

다시 시간을 50년 전으로 돌려 보자. 가장 먼저, 국가가 경인선을 전철화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를 확인해 보자.

[서울의 과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서울 시내 사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서울 근교에 있는 근교 도시로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서울시와 근교에 있는 도시와를 연결하는 전철을 놓아야 …]

교외로 나가면 … 집도 싸게 구할 수 있고, 서울보다 공기도 깨끗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 시내에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3) 이 이상의 이용객이 기록되는 역은 서울 시계 바깥에는 부천, 부평, 수원, 서면[부산] 뿐이며, 서울 시내에서도 손에 꼽는다.

4) 2002년 주안, 2005년 동인천 개통 이후 오늘에 이른다. 이후 2017년에 일부 급행열차가 제물포, 동암, 역곡, 개봉, 영등포, 신길, 대방역을 통과하는 특급열차로 바뀌었고, 2022년에는 역곡역과 영등포역에도 특급열차가 다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 집중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 장차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근교에 소위 위성 도시라는 것이 발달될 것입니다.⁵⁾

이 연설에서 박정희는 '소사리'라는 이름으로 부천을 언급하고 있다. 이 도시는 '서울보다 공기가 좋고', 또 상하수도와 같은 인프라 부족 문제, 서울의 혼잡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추측이다.

실제로 1970년대 초 이 노선 주변은 '소사리'라는 이름처럼 농촌이었다. 특히 지금의 선로 북측은 자연취락과 농지였다는 것이 당시의 항공 사진⁶⁾으로 확인된다. 부천시사(2002)에 수록된 사진처럼, 기차를 타고 가면 소 꼴을 먹이러 길을 걷는 시골 소년소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던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 위성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실제 경인선에 전철을 처음 부설할 때 국가의 구상이었다.

실제 이 노선은 현재의 소사구 지역인 성주산 기슭, 그리고 현재의 원미구 지역인 군포천 분지 사이를 통과한다. 남으로는 성주산 기슭까지, 약간의 경사가 있고 배수가 양호해 상대적으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끼고 있고, 북으로는 저습지여서 상대적으로 새로이 개간된 지역을 끼고,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 사이를 내달린다. 비록 남쪽으로는 중심이 1km가 채 안 되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이지만, 북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까지 4km가 넘는 깊은 중심의 평원이 펼쳐져 있다. 역곡역이 자리한 작은 분지,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북쪽의 오정구 지역을 빼면, 바로 이 평원이 지금의 부천 대부분을 이룬다. 이들 광대한 공간 덕분에, 당시 부천은 "널찍하다는 느낌을 주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도시들

에 비해 시가지가 넓게 자리를 잡았다"⁷⁾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인선은 이 공간의 비교적 남쪽에 쏠려 있었지만, 2012년까지 이 노선은 부천 전체의 축으로 기능하며 도시 전체의 성장을 이끌었다.

1970년대의 부천 철도를 다룰 때, 김포선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철도는 한국전쟁기 김포공항의 유류 공급을 위해 건설된 군용 철도로, 부천역에서 북으로 분기하여 지금의 심중로 축을 따라 현재의 부천 시가지 지역을 종관하여 김포공항에 이르는 노선이었다.⁸⁾ 이 노선은 항공 사진을 검토한 결과 1977년에서 1983년 사이에 부흥로 이남의 구조물이 철거되고 도로(현 심중로)로 전용되어 소멸하였다. 그런데 이 축을 따라서는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천 남북축 경전철에 대한 계획이 제출되고 있다. 이것은 부천 남북 축에 대중교통망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도 김포선은 중동신도시와 그 이전 개발된 시가지의 경계면을 따라 5km 이상을 달리며 부천 IC까지 가고, 2024년 현재 개발이 준비중인 대장신도시의 동측 일부 또한 연계한다. 5km~8km는 도시철도가 유용한 거리인 것은 틀림이 없다. 김포선을 그냥 철거해버리지 않고, 살려서 계속 부천 남북축 도시철도로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부천은 지금보다 입체적인 대중교통망을 갖추게 되지 않았을까? 또, 이후 수십 년간 부천을 괴롭힌 혼잡 또한 조금은 완화되지 않았을까? 버스 이외에 지선 철도까지 있었다면, 오늘날 경인선 인근 지역의 침체도 한층 덜 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잊어버린 잊어버린 노선 바로 곁에,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령 같은 '부천경전철'이 덧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⁹⁾

5) 박정희, 경인선 전철 착공식 치사, 1971. 4. 7.

6) 이 글에서 언급한 모든 항공사진은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ms/map/Aerial.do>)에서 확인한 것이다.

7) 이상 두 인용문은 윤후명, 「부천시: 복숭아밭 위에 선 공업 도시」, 『한국의 발전: 경기도』, 뿌리깊은나무, 1990(제8판), 214쪽.

8) 최근의 모습은 다음 답사기를 참조. 업사다, 부천~김포공항을 잇던 김포선을 답사하다, 2015.6.7.,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unwan2922/220382530552>.

9) 경기도의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송내부천선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



도2. 구 김포선의 위치도. 김포선의 선형은 제르모스, 구글어스 한반도 철도노선(KMZ 파일), 2021. 3. 30.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과 대조하여 확인하였음. 저자 작도.

IV. 1980년대, 순식간에 등장한 '지옥철'

아무튼 전철이 갖춰진 부천에서는 방금 확인했다시피 아주 가파른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매년 4.5만 명씩 늘어나는 인구 가운데 인천과 서울을 전철로 오가는 인구는 20% 수준이었다. 서울 방향에서는 2호선 신도림역처럼 대규모 통행을 추가로 처리하는 추가 노선이 덧붙었다(1983년). 몇 년 정도는 경인선 복선이 이들을 충분히 수용하였다. 하지만 도표 4에서 볼 수 있듯,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 부천시의 누적 승객량은 그보다 서울에서 면 인천발 누적 승객량보다 더 천천히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고 1991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도3. 부천역, 복선 시절의 건물이다. 한국철도공사 사진아카이브, 1980년대.



도4. 역곡역, 복선 시절. 좌측에 변전설비가 노출된 것이 보인다. 한국철도공사 사진아카이브, 1980년대.

이처럼 부천 지역의 승객이 인천 지역보다 3년 이상 빠르게 정체 상태에 접어들고 급기야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혼잡의 구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 부천 시민들이 철도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 지역에서 이

10) 이런 설명은 전현우, 「경인선: 혼잡 연대기」『확장도시 인천』, 마티, 2017, 102쪽에서 처음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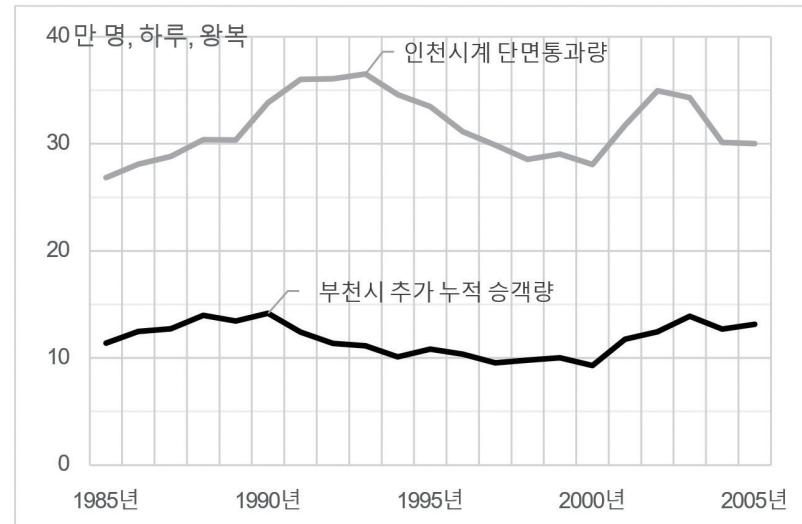
미 승객이 가득 찬 채 부천으로 진입한 차량을 이용해야만 한다. 부평, 주안 등지에서 이미 회차 열차를 운용하고 있었던데다, 이 시기 차내 혼잡은 인천지역 승객만으로도 2020년대의 수준을 능가하였으므로 부천 회차 열차를 별도로 운용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었다. 1992년 경인고속도로의 확장, 1993년 2호선 신정지선 개통 등이 있었으나 1985~1995년 사이 원미·소사구의 인구는 균등한 속도로 증대하였으므로 교통 수요 자체도 증대했다고 보아야 한다.¹¹⁾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차내에 이미 사람이 가득 차 힘껏 밀어도 잘 들어가지 않는 지옥철이 인천보다 부천에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부천 구간의 승객은 인천보다 3년 먼저 정체에 빠지고 급기야 감소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제5공화국 정부의 소극적인 교통 투자 정책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1980년대 당시, 수도권 광역철도는 오직 안산선과 경원선의 정부 연장 사업만 완성을 보았다. 경인간에서는 추가 고속도로 투자도 없었다. 이처럼 교통 투자가 제한된 상태에서, 경인선 철도를 직접 책임지던 철도청의 적자 또한 심화되고 있었다. 철도청은 1970년대 아래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계속해서 그 폭이 증대되었다.¹²⁾ 경인선, 경부선과 같이 일부 노선에서 본 적자는 전국 대부분 노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어야만 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체로 납득할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의 객차는 에어컨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먼저 1985년 이전 도입된 377량의 철도청 전동차는 전량 선풍기만 달려있었다. 1985년 7월 이후 올림픽 대비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열차의 전력 설비를 개조하여 에어컨을 설치하

긴 했지만, 당시의 열차는 저항제어방식, 즉 제동 때마다 열차의 주행 에너지가 저항에 의해 열로 바뀌어 공기중으로 내뿜는 시스템이었다.¹³⁾ 속도를 늦출 때 발생한 후끈한 열이 객차 바닥은 물론 정차역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도 객실로 들어오는 구조였다는 말이다.¹⁴⁾ 안 그래도 혼잡한 상황에서 달릴수록 열기까지 차오르는 여름 전동차는 지옥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밀어도 들어가지 않는 승객을 눈으로, 몸으로 확인하고, 또 여름이면 끔찍한 더위에 시달리게 되었던 시민들은 경인선이 흑자 선구라는 단편적인 사실에 더욱 주목하게 된 것 같다.

표4. 인천시계 단면 통과량과 부천시 누적 승객량의 변화, 1985~2005. 단면 통과량은 경인선 상하행 열차를 타고 인천 시계를 통과한 승객의 규모(여기선 일평균)를 말하며, 부천 누적 승객량은 인천시계와 서울시계 사이에서 상하행 열차에 더 탑승한 승객의 규모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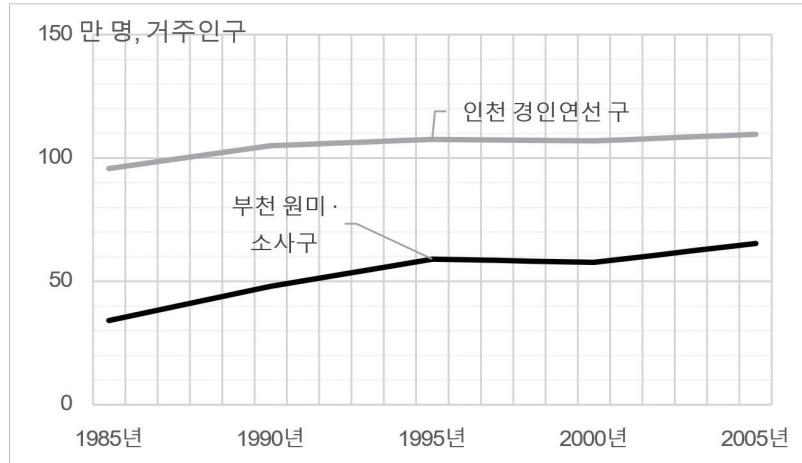
11) 직접적인 OD 조사는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다. 알려진 전수화 OD조사의 첫 사례는 1996년에 확인된다.

12) 전현우,『거대도시 서울 철도』, 워크룸프레스, 2020, 377쪽.

13) 철도청,『한국철도차량100년사』, 철도청, 1999, 329쪽.

14) 다음 세대 기술(인버터제어) 전동차는 1990년대 중반부터야 도입되었으므로, 2000년대까지 저항제어방식 전동차는 남아 있었다.

표5. 인천 경인선 구와 부천 원미구·소사구의 인구 변화 추이. 인천의 경인선 구는 중, 동, 남(현 미추홀), 부평구를 의미한다. 부천의 구제 시행 이전의 인구는 동별 인구를 구별로 나누어 반영해 계산했다.



V. 1990~1999: 지옥철과 경인선 2복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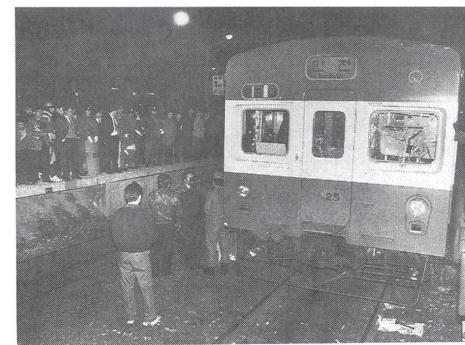
도5. 서울~인천간 전철 건설 조감도. 오류동역 북측 상공에서 비행중인 비행체에서 양 옆을 바라본 구도로 그린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사진아카이브, 1990년 경.

이 상황은 결국 시설 투자를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었다. 국가는 도5에 해당하는 경인선 전 구간의 2복선화를 결정했다. 그런데 대통령 연설문은 “아침저녁 봄비는 전철 속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상황 또한 언급하고 있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해 온 사이 우리의 경제 규모와 교역량이 불과 4년 만에 2배로 커짐에 따라”¹⁵⁾ 일어나는 혼잡과 적체의 한 국면이 경인선 지옥철

이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지적이었다.

이것은 두 개의 서사가 경인선 2복선화 투자에 함께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의 서사에 따르면 이는 시민들의 몸에 직접 다가오는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다. 또 하나의 서사에 따르면 이는 물류망 전체의 확대, 즉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의 일부다.

이러한 두 서사 가운데 당시의 사회면을 장식했던 것은 물론 첫 번째 서사다. 정부가 복복선 투자를 결정하기 몇 달 전에 있었던 오류동역 폭동(1991년 3월 1일 새벽)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당시 경인선은 단순히 혼잡뿐 만 아니라 잦은 연착이나 운행 지장까지 겪고 있었다. 이날 오류동역 사건의 발단은 하행 막차 전전차의 출입문 고장이었다. 고장 차량에는 부천 시민과 인천 시민 약 3천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임시로 이들을 내려둔 채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막차 전차와 막차까지 이미 승객이 혼잡한 상태에서 진입 후 통과하자 승강장에는 3천 명의 시민들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 철도청의 미흡한 대처에 폭발한 이들은 전동차 창문을 부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다수는 임시 열차편으로 귀가했지만 분노를 참지 못한 10여 명의 승객은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농성을 이어갔다고 한다.



1일 새벽 仁川으로 가던 전동차가 서울梧柳역에서 출입문개폐기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되자 승객 3천여명이 항의농성을 벌였고 일부승객은 전동차 끝에 기둥을 파괴하는 소동을 피웠다. <金京廣기자>

도6. 1991년 3월 1일 새벽 오류동역에 파괴된 채 주박중인 전동차와 밤샘 항의 중인 시민들. 『동아일보』, 1991. 3. 1. 석간 15면.

15) 노태우, 경인선 복복선 기공식 및 구로 3복선 개통식 연설, 1991. 11. 23.

몇 년 뒤의 증언이지만, 이들이 당시의 전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부천 시민의 인터뷰가 남아 있다.

“짐작처럼 사람이 실리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출퇴근 시간대 경인전철에선 팔과 몸 다리가 따로 노는 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천 중동 새도시에서 서울 종각 역까지 4년째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는 임미자(29, 삼성생명 생활설계사, 사진) 씨는 “사람은 결코 화물이 아닙니다”며 경인전철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찜통더위에 경인전철을 타보세요.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시작부터 하루가 영망이 되죠. 그는 “오죽하면 폭파하겠다는 사람이 나왔겠느냐”며 “워낙 출퇴근이 힘들다보니 승용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경인전철이 흑자노선이라는 데 4년 전에 비해 냉난방 시설과 같은 전동차의 환경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람이 많다 보니 치한이 많아 여성들이 이용하기는 더 힘들다”는 이씨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경인전철을 복복선화해 쾌적한 전철 운행 시간을 잘 지키는 전철 안전한 전철로 틸바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¹⁶⁾

1991년과 이 인터뷰가 이뤄진 1997년 여름 사이에는 인접 도시철도¹⁷⁾가 생겨 승객이 조금 분산되었으며, 고속도로망 또한 보강되어¹⁸⁾ (임미자의 언급처럼) 자동차로 털출한 시민들 또한 생겨나 전철의 혼잡도 그 자체는

상당히 내려갔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혼잡도는 지금보다 1.5배 가까이 높은 220%, 즉 1량당 350명 승차에 달하는 상태였던데다, 계속해서 늘어지는 복복선 공사 덕분에¹⁹⁾ 속도조차 그리 빠르지 못했다. 당시 수도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평역 폭파 협박사건, 그리고 참여연대의 공익 소송²⁰⁾ 또한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처럼 2복선화 공사가 점점 더 늘어지게 되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부천시에서 있었던 하나의 판단이었다. 1994년, 국가(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는 경인 복복선화 총사업비 약 4천억 원 가운데 500억 원을 중동신도시 개발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290억 원은 토지공사·주택공사가 아니라 부천시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였다. 부천시 역시 취득세 등을 통해 적지 않은 개발이익을 누린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있었던 시점은 동시에 지방의회를 통해 막 개시된 지방자치 시대이기도 했다. 관선 시장과 민선 의원이 공존하던 이 시기, 국가의 이런 조치는 지역의 반발을 부른다. 제1기부터 제4기에 이르기까지, 부천시의회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부천시가 이 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관선 시장이 정부의 강압을 받아들여 내린 결정에 불과한 것을 그대로 따를 이유도 없고, 더불어 경인선의 흑자는 경인선에 재투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시의회는 물론 시민 전반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했던 국가는 1995년 개통 목표를 어기고 만다. 공사는 진행되었으나 계속해서 늦어진다. 1998년과 같이 수많은 사업을 축소하였고 더불어 복복선 개통이 이미 목표보

16) 『한겨레』, 1997. 7. 8., 25면.

17) 1992년 서울2호선 신정지선, 1996년 서울5호선 전 구간.

18) 1992년 경인고속도로 8차로 확장, 1994년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 등.

19) 본래 개통 목표는 1995년이었으나 실제 개통은 1999년에나 이뤄졌다.

20) 당시 참여연대는 폭파협박을 행한 이원철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활용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하여 성공시키기도 했다.

다 늦어져 국가가 재원 염출을 시도하던 시기에도²¹⁾, 국가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경인복복선 부담금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며 의회는 강경한 입장 을 지키게 된 이유는 이처럼 국가가 담당한 부분조차 충분한 속도로 투 자를 하지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²²⁾ 그러나 1998년에는 정말로 국가의 자금이 복복선 개통에는 모자랐던지, 부천시의회는 국가가 부천시 인근 광역 도로를 약 138억 원어치 지어주는 대가로 약 50억 원을 철도청에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²³⁾

그런데 이건 나머지 240억 원은 경인복복선이 개통되고 나서도 정산되지 않은 채 남았다는 뜻이다. 이 돈 문제는 실제 철도청이 해산되기 직전 시점인 2004년까지 시정의 쟁점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당시, 결국 부천시가 이 돈을 내야 한다는 고문변호사 4명의 일치된 의견을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설명한 뒤의 대화는 잠시 이 글에서 인용할 가치가 있다.

○ 안익순 위원 : 그런데 고문변호사들도 진짜 고문관들인 가봐. … 만만한 부천시만 저기 해서 이 작은 시에서 300억 가까운 돈을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봐도 억울한 거야. [복복선사업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오히려 뺏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 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데 이게 청와대에서 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시안이라면서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 그 당시에 강압에 의해서, 관 선시대라 강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협약이

21) 가령 「경인전철 복복선화 적신호」『경인일보』, 1998. 10. 24.

22) 시의회 예결위원장 한윤석에 따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인전철복복선 부담금에 대하여서는 부천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 후 지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부천시의회, 57회 본회의 회의록, 1997. 12. 20.

23) 98년 6월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61회 부천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1998. 6. 20.

된 것이다, … 강압에 의한 협약이더라도 하나의 협약이라 고 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총론으로 나왔습니다.²⁴⁾

상대적으로 작은 부천시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사업에 의해 강압적으로 부과받은 돈인 만큼,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이 10년이 지난 당시까지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판단이었다. 이들은 개별 시민들에게도 이 돈에 대해 설명하는 식으로 강경한 태도를 계속 견지했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결국 이 태도는 꺾이고 만다. 이 240억 원이 결국 이렇게 처리되어야 했던 것은, 철도청의 해체와 상하분리를 실제로 시행²⁵⁾하려면 아직 남아 있던 미수금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천시의 납부 거부는, 이후 망 전체의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그 취지를 감안해 보면 결국 지지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1998년 1월 정부는 하나의 대도시권에 속한 두 도시를 잇는 철도, 즉 광역 철도의 사업비를 관련 지방정부가 납부해야 한다는 법령을 마련했기 때문이다.²⁶⁾ 상식적으로도 철도의 혜택을 보는 지역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 전체로서는 만성 적자에 빠진 철도 운영기관에게, 흑자 선구에 대해서만큼은 추가 투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요구일 수밖에 없다. 부천시 의회의 의견은 제도의 미비 상태에서, 눈앞에 보이는 혼잡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망 전체의 확대라는 서사는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후대의 입장에서는 적절해 보인다.

24)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2004. 12. 9.

25) 200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26) 1998년 1월 17일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에는 관련 조항이 처음부터 삽입되어 있었다. 시기로 보아 부천시와 국가의 마찰이 이 조항이 입법되었던 이유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혜택을 보는 지역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되는 상태다.

VI. 1999~2011: 2복선화 이후의 경인선

아무튼 이 말썽 많았던 경인 복복선 부천 구간이 개통을 본 것은 1999년 1월 29일이었다. 안쪽 복선으로는 용산과 부평을 오가는 급행열차가, 바깥쪽 복선으로는 인천과 의정부를 오가는 완행열차가 다니게 된 경인선의 열차 공급량은 대폭 늘었다. 표6에서 볼 수 있듯, 실제 경인선의 열차 운행량은 개통 직전 시점보다 1.5배, 최악의 혼잡도가 기록되었던 1991년보다는 2배 늘었다. 2005년 이후 경부선의 천안 연장으로 인해 경부선 혼잡도가 올라간 다음에도 1.5배, 하루 70회 이상의 열차가 복선 시절보다 추가로 운행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경인선의 혼잡도는 크게 낮아졌다. 1990~1991년의 경우 하루 평균 혼잡도가 정원보다도 높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모든 열차가 예외 없이 혼잡했다는 뜻이다. 그러던 것이 복복선 개통 직후에는 600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후 800명 수준으로 정착된다. 적어도 러시아워만 피하면 혼잡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여러 변동이 있었던 것은 경인 복복선과 함께 여러 노선이 주변에서 개통했기 때문이었다. 가령 2000년에는 7호선이 온수까지 온 덕에, 서울 서남부로 향하는 승객이 추가로 분산되었으며 구로구의 개봉역 등에서 지옥철의 마지막을 채우던 승객들도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렇게 추가 노선이 생겼음에도 인천 1호선, 중동신도시의 추가 입주, 상동지구와 부평구 일대의 인구 증가가 이어지면서 경인선의 승객은 지속적으로 증대된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인천은 물론 부천에서도 경인선 접속 교통망인 버스가 팽창하며 경인선의 간선 기능은 더욱 강화된다. 2004년의 승객 감소 현상(표2, 3 참조)은 서울시내버스를 시작으로 하는 버스 환승시스템 도입 및 광역버스의 확대와 함께 일어난 일이었으므로²⁷⁾ 서울버스의 영

표6. 경인선의 하루 열차 운행횟수. 복선전철로 운행할 수 있는 열차의 한계 횟수는 시간당 20회이나, 러시아워에만 이 배차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호시스템 개량을 통해 열차를 투입할 경우 열차간 간격이 좁아져 지연 억제가 어렵다. 각 년도 철도통계연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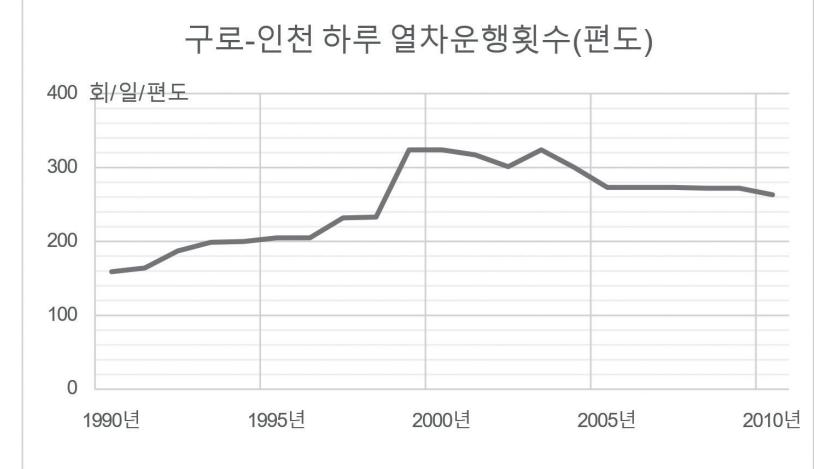


표7. 경인선의 열차당 평균탑승인원, 왕복 전 열차 평균, 1990~2010. 영업 운행한 모든 열차에 탑승한 승객의 평균 인원을 나타내는 값으로, 분모는 표6, 분자는 표4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경인선의 최대 혼잡구간, 즉 구로~구일 구간에 대해 구한 값이다. 전동열차 1편의 정원은 1600명이다. 각 년도 철도통계연보를 활용해 저자가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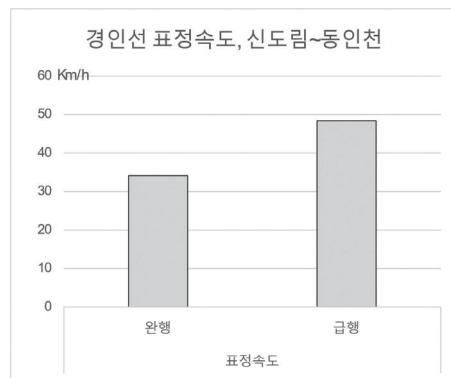
향을 받는 역곡, 인천발 광역버스로의 수요 분산이나 서울과 더욱 인접해 서울버스 개편의 영향을 받는 오정구 일대 수요 변화의 영향을 받는 부천 등지에서는 승객 감소 현상이 확인된다. 그러나 북부역 방면의 부천버

27) 이런 결론은 전현우, 앞의 글, 2017, 77~83쪽.

스 뿐만 아니라 남부역 방면으로는 인천버스 또한 모여드는 환승 거점이었던 송내의 경우 이 시기에도 승객이 꾸준히 늘어났다. 복복선 이후 경인선의 간선 기능은 인천과 부천 모두에 걸쳐 확대되었다.

이처럼 경인선이 간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급행열차의 힘이었다. 특히 급행열차는 구로~동인천 사이에서는 여러 역을 건너뛰면서 표정속도²⁸⁾를 완행 대비 거의 1.5배까지 높인다(표8). 빠른 열차가 서는 역이라면 그만큼 넓은 범위에서 열차를 이용하려 올 것이다. 접근 시간만큼 시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먼 지역일수록 급행열차로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적 이익도 커진다(표9). 먼 지역일수록 급행열차에 호의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다. 특히 상행 급행과 완행, 하행 급행과 완행이 각각 동일한 승강장을 활용해, 완행역에서 탑승하더라도 급행역 승강장에서 몇 걸음만 걸어가면 환승이 가능한 경인선에서는 더욱 그렇다. 당시의 언론 지면에서는 급행열차의 정차역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인천 지역의 여론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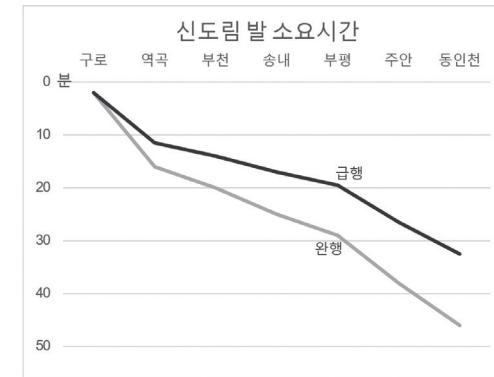
표8. 완행열차와 급행열차의 신도림~동인천간 표정속도 비교. 2024년 10월 현행 시각
표에 따름.



28) 표정속도 = 정차시간을 합친 총 소요시간 / 이동거리

29) 김영남, 「직통전철 정차 줄여야」, 『조선일보』, 2002. 5. 24. 김영남은 인천 남구 시민이었다.

표9. 완행 열차와 급행 열차의 소요시간 비교, 신도림 출발 기준. 2024년 10월 현행 시각표에 따름.



그런데 부천 지역에는 이들과는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부천에서 급행열차는 소사, 중동역에는 서지 않는다. 이들 역 주변 주민과 상인을 중심으로, “직통선³⁰⁾무효화대책위원회”가 복복선 개통 직후 활동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³¹⁾ 이들은 급행 열차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데다 수년간의 공사에 따라 자신들이 본 피해도 보상할 수 없으며, 급행 정차역까지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역 주변에 사람들이 더욱 몰리게 되어 혼잡이 가중된다고 주장하였다. 급행열차는 효율을 위해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을 만드는 열차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었다.

물론 이들의 의견은 일견 타당하다. 특히 이미 큰 역을 더욱 큰 역으로 만든다는 지적은 더욱 그랬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 기록은 이것으로 끝이다. 기존 완행열차의 감편이 거의 없었던데다, 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 까지(논란 속에서도) 통과역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이 특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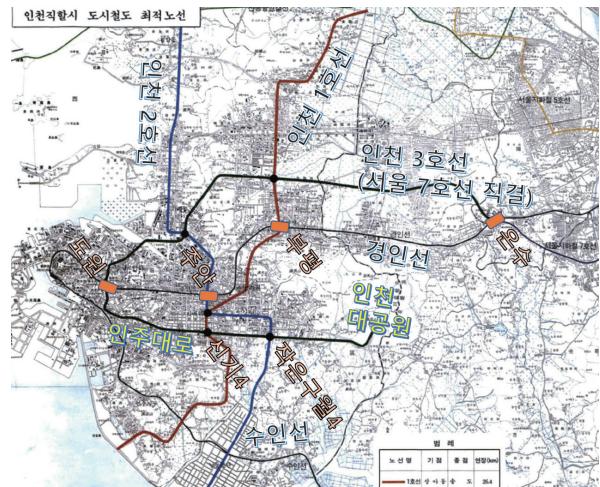
30) 철도청 시절 급행열차를 부르던 이름으로, 수원~서울간 전동차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이다. 철도 동호인의 지적(2003) 이후 2003년 철도청이 명칭을 변경, ‘급행열차’라는 명칭이 정착되었다. 다음을 참조. 한우진, 「직통열차는 급행이 옳다」, 『조선일보』, 2003. 1. 17.

31) 배중석, 「경인복복선 일부역만 정차, “형평 어긋난다” 시민 반발」, 『경인일보』, 1999. 4. 19.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급행열차가 인천~서울간 교통량을 상당량 분담, 부천 시민들의 체감 혼잡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감안되었을 것이다(표4 참조). 시의회에서도 급행의 소사, 중동역 정차가 불가하다는 철도청의 답변은 논란이 되지 않았다.³²⁾

이렇게 급행열차의 의미를 약간은 떠들썩(?)하게 받아들인 이후, 부천 관내 경인선의 수요는 2011년까지 조금씩 늘어난다. 부천 시내의 인구 자체는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이는 이 시기에 인가대수 및 이용인원이 늘어난 부천 자체 버스망 및 경인선을 탑승하려 부천 관내의 역으로 나오는 것이 유리한 인천³³⁾, 시흥³⁴⁾ 지역의 인구 및 버스망 팽창이 함께 작용해 일어난 일로 보인다.

VII. 2012년, 7호선의 등장과 재정 불안



도7. 1992년 인천지하철 초기기의 계획. ‘인천 3호선’이라고 적힌 부분이 부천시이다.
『지하철7호선연장노선건설지』화보, 2013.

32) 제69회 부천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1999. 3. 8.

33) 남동구 지역의 버스 환승장으로 송내 남부역이 중요하다.

34) 이 지역의 버스는 부천 남부역이 주요 환승 거점이다.

10년 가까이 안정되어 있던 상황을 바꾼 것은 7호선이었다. 이 노선은 서울과 부천의 경계선에 있는 온수까지 이미 와 있던 7호선을 부천 중동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주로를 따라 인천 관내의 부평구청역까지 연장시키는 노선이었다.

이 노선은 본래는 인천 3호선의 일부로 기획된 노선이었다. 1992년 발표된 「인천광역시 지하철(전철) 건설 타당성 조사사업」의 결과였다. 당시 노선은 온수를 출발, 서쪽으로 향하다 도원역을 꼭지점으로 하여 서쪽으로 다시 휙돌아 나오는, 서쪽으로 입이 터진 말굽 모양의 형태였다. 그런데 이 노선은 세 노선 중 3호선인 만큼 우선 순위는 가장 뒤였고, 그에 따라 IMF 사태 도중이었던 1998년에는 사업이 정리될 위기에 처한다. 이 노선을 살려낸 것은 부천시였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부천시는 초기 노선 가운데 부천시를 횡단하는 온수~부평구청을 우선 추진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국가에 한다.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조율하되 사업비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인천보다는 재정이 튼튼한 서울시가 부천시 구간의 사업을 주도해 달라는 내용도 더해졌다. 국가는 이를 조정하며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적용이 검토된 타 유형³⁵⁾에 비해 지자체의 비용 분담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부천시에게 불리했다. 경인복복선 부담금과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일자, 부천시는 결국 재정적으로 불리한 방향을 수용한다.

그런데 지하철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데다 돈도 많이 듈다. 이 가운데 기술적 문제는 부천시가 교량 도시라는 점 때문에 쉽게 넘을 수 있었다. 철도건설, 운영 자체 조직을 부천시가 갖추기보단, 이미 존재하는 서울과 인천의 기관에 넘기면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

35)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가(2004년 이전에는 철도청, 이후 철도공단)가 건설하며 운영 또한 철도공사(2004년 이전 철도청)가 수행하는 사업이다.

에서 필수적인 규모의 경제를 현실로 만드는 데 유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비는 부천시의 발목을 두고두고 잡는다. 사업 초기(2002)에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³⁶⁾에서는 “예상과 달리 재정여건이 양호(상동 개발이익금 2000여억원을 사업에 투입할 의향)”라고 정리되어 있으나, 액수도 애수인 데다 철도사업의 재정적 고질병, 즉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업비 때문에 부천은 자체 재정으로는 건설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다.³⁷⁾

결국 부천시는 늘어나는 사업비를 다른 주체에게 분담시키기 위해 2006년 ‘범시민자하철사업재원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장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모두 망라된 이 조직은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중앙정부, 경기도, 인천, 서울이 분담하도록 만드는 로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초기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나 2008년 총선, 공사 중단 등을 계기로 삼아 중앙정부 등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³⁸⁾ 당시 시장 홍건표는 시정 연설을 통해 대통령(이명박), 장관, 도지사 등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고, 방문 견의를 하며,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리를 구체화하고 압력을 가해 사업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힌다.³⁹⁾

아무튼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한 끝에 7호선이 개통된 것은 2012년 10월의 일이었다. 7호선 투자가 탄력을 받았던 것은 결국 경인선의 혼잡 때문이었던 만큼 사업의 성패는 경인선 수요 흡수량에 달려있었다. 실제 부천 지역 경인선의 수요는 15% 가량 7호선으로 옮겨갔다(표2, 3). 이는 인천

측 부평구 일대, 그리고 부평역 환승객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인선보다 약 2km 북쪽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이 노선은 도시의 중심 축을 조금 위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 측에서도 이 노선이 직결 운행하는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의 업무지구가 팽창했다. 주요 업무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1호선 급행보다 더 나은 면이 생긴 셈이다. 그 덕에 이 노선의 이용객은 개통 즉시 1호선의 40%에 달했으며, 지속적으로 상대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⁴⁰⁾ 2020년대, 코로나19를 거치며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들었다.

그런데 별도 운영사업자 없이, 부천 구간 운영을 서울이나 인천 도시철도 운영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부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불안 사항이 되었다.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교통공사가 시계 밖에서 철도사업을 운영하는 부담을 기꺼이 지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초기 10년 간 운영을 담당한 서울교통공사는 이 노선이 서측, 인천시 경내로 깊숙이 추가 연장되자 부천 구간의 사업도 일부 포기하고자 한다.⁴¹⁾ 노선의 기원이 인천 3호선 기획이었고, 인천 구간 완공시 인천 구간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한다는 협약서가 있어서였을까?⁴²⁾ 2023년 연초, 7호선은 운행 중단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부천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의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중앙정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으로 일단 5년간 역무, 승무, 시설유지보수 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⁴³⁾ 그러나 이는 5년 뒤에 다시 협약을 갱신해야

36) 이영 등,『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2.

37) 이상 두 문단의 서술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지하철7호선연장선건설지』, 2013에 기반한다.

38) 부천시의회나 건설자료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공사 중단 시 인천 지역 열차도 함께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사업 기간이 2년 연장(당초 2010년 개통, 그러나 국고투자 부족으로 인해 2년 지연. 2008년 9월)된 데 따른 책임 문제도 중요하게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39) 제148회 부천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2008. 11. 21.

40)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승차 13만 명/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 기록은 순승차만 9만 명(부평구구간 포함)으로 예측 대비 7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였다. 부평구청역 환승객을 더하면 예타 예측치에 거의 근접한 실적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41) 관제는 서울 시내 7호선과 직결 운행하는 한 분리 운영이 불가하며, 차량 정비는 서울시계 내 천왕 기지에서 수행 중이다.

42)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앞의 책, 25쪽.

43) 장병극,『7호선 부천구간, 운영중단 위기서 벗어나』『철도경제신문』, 2023. 2. 13.

한다는 뜻이다. 초기 사업비 수천억을 투입하고, 운영비 또한 매년 3백억 원 이상 내고 있으며, 도시의 핵심 축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구조는 불안정하다. 부천시는 이 불안을 반영하듯 운영사업자의 인건비 검증 용역까지 발주했다.⁴⁴⁾ 7호선은, 과연 이렇게 지속적인 협약 개정 속에서도 경인선처럼 백년, 2백년을 바라보는 철도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여기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VIII. 2020년대와 그 이후: 코로나19 이후, 부천과 경인선 주변의 새 철도들

1. 코로나 19 이후: 지옥철의 이동

코로나19는 공기매개 감염병이었다. 당시 시민들은 동료 시민들과 열차 내에서 폐쇄된 채로 다른 시민의 숨이 담긴 공기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사람들은 “각자도생의 공기장치”⁴⁵⁾ 속에 숨어 이동하려 했



도8. 경인선의 혼잡 구간 그리고 공항철도와 김포경전철, 9호선의 혼잡 구간(적색 구간). 녹색으로 철도공사 운행 철도망만 표시했다(분당선, 과천선 제외). 저자 작도.

고, 열차는 덩 비었다. 마스크조차 없었던 몇 달 동안 줄어든 수요는 공공교통의 수요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물론 수도권 철도망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목격했듯 40년 넘게 수도권 혼잡 대응의 최전선에 있던 경인선의 수요는 1980년대 중반으로 돌아갔다. 코로나19가 끝났지만, 과거와 같은 지옥철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거울상처럼, ‘지옥철’은 부천 주변으로 옮겨갔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노선들이 지옥철의 초점이 되고 있다. 수도권 서부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공항철도가 새로운 주요 지옥철(정원의 2 배 이상 탑승)로 등장했다. 더불어 2020년대에는 김포경전철이 또 다른 지옥철로 자리 잡는다. 이를 노선의 승객을 여의도와 강남으로 연계 수송하는 9호선 급행 역시 혼잡이 높다. 이를 노선은 모두 부천이 속한 수도권 서부의 개발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를 끼고 있다. 부천 자체는 이제 (대장신도시 지역을 빼면) 추가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이 도시가 속한 광역권의 끝은 여전히 개발의 열기에 휩싸여 있고 이들 지역을 잇는 새 철도는 날이 갈수록 혼잡도가 올라가고 있다.

공항철도나 김포경전철이 지옥철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차량의 규모가 경인선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공항철도는 그나마 대형 전동차⁴⁶⁾ 6량 1편성으로 운행한다. 경인선 10량 열차의 60% 정도 규모다. 그런데 김포경전철은 훨씬 더 작은 경전철⁴⁷⁾ 2량 1편성 열차다. 경인선 10량 열차 대비 12%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다. 선로의 규모도 두 배 차이가 난다. 경인선은 복복선인 만큼 공항철도의 수송력은 경인선 대비 30%, 김포경전철은 6%로 보면 된다. 실제 승객 규모는 경인선에 미치지 못함에도 지옥철이 된 직접적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작은 규모의 투자만 이뤄졌

44) 손현규,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인건비 적정성 따진다…갈등 불씨되나」, 『연합뉴스』, 2023. 10. 10.

45) 전치형·김성은·김희원·강미량, 『호흡공동체』, 창비, 2021, 40쪽.

46) 1호선과 같은 크기. 바닥면적 $3.12m \times 19.5m = 61m^2$

47) 바닥면적 $2.65 \times 13.7m = 36m^2$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규모는 부분적으로는 이전 시대의 투자를 과잉 규모라고 판단한 덕분에 결정된 것이다. 바로 이런 투자 가운데 하나가 경인복복선이었다. 복복선 투자를 시행하던 당시 당국은 승객 두 배 증가를 자신했지만⁴⁸⁾, 이 노선의 실적은 그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경인선에 준하는 방대한 투자를 실행하여 여분의 시설 규모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경제적 효율을 우선하여 작고 적당한 규모의 노선을 건설하는 선택이 2000년대에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면, 수요 폭주에 취약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물론 철도는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든다. 그럼에도, 당장 건설비와 운영비가 들지 않도록, 미래를 대비해 시설을 확장할 준비만 해 놓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여지가 부족한 채 건설된 공항철도, 9호선, 김포경전철은 여전히 (경인선과는 달리) 지옥철을 벗어날 미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옥철 이동 현상은 과잉 투자를 우려하여 최소 시설 투자에만 만족하려 든 21세기 초의 방침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새 노선들의 동향

여전히 계속되는 지옥철, 그리고 계속해서 건설되는 신도시 덕분에, 수도권 서부에는 계속해서 철도망이 더 건설되고 있다. 부천 관내에서만도 아직도 4개의 광역철도 노선과 하나의 도시철도 노선이 계획중이다.

이 가운데 GTX B는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된 노선이다. 서울을 횡단하며 관통할 이 노선은 인천과 서울, 그리고 남양주를 잇는다. 좀 더 구체



도9. 부천 지역에서 논의중인 새 철도들. 굵은 점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재 노선(GTX B, D, 대장홍대선, 제2경인선), 얇은 점선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구축 계획 등재 노선. 저자 작도.

적으로 말해, 인천의 송도에서 출발, 부평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을 지나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그런데 이 노선은 첫 평가⁴⁹⁾에서 사업성이 가장 낮았다. 신도림역 환승객이 약 2천 명으로 예상되었을 정도였다. 이 노선은 동쪽 구간이 기존 경춘선과 중앙선의 용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편된 다음에야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들 노선은 부천에서 서울을 갈 때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을 것이다. 특히 부천종합운동장역은 순승차객이 5천 명 수준이며 녹지로 둘러싸여 대규모 개발을 벌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48) 허종식, 「경인전철 복복선화 무엇이 달라지나」『한겨레』, 1997. 7. 8.

49) 여홍구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

서울역을 넘어가는 중장거리 통행, 인천 방면으로는 송도신도시 방면 통행만을 흡수할 수 있을 노선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부천에서 출발하는 20~30km 이상 통행에 효과를 미칠 것이다. 노선 방향을 따라, 횡단 고속도로 통행량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듯하다.

이 노선에서 가지를 쳐 나가는 GTX D가 기획 중이다. 김포에서 출발해 대장신도시를 거쳐 부천으로 진입하는 이 노선은 현재로서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GTX B와 합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2024년 연초에 발표된 GTX 계획에 따르면 이 노선은 남부순환로와 유사한 선형을 따라 서울 남부지역으로 연장될 것 같다. 다만 2024년 10월 말 현재, 아직도 GTX B도 착공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이 노선에 대해 무언가 전망하는 것은 아직 섣부른 일로 보인다. 특히 B선의 착공 지연 이유가 민간 자본 내부의 갈등, 즉 금융투자자와 건설투자자 가운데 누가 사업비 중대 리스크를 더 크게 책임지느냐는 문제⁵⁰⁾라는 점은 더욱 큰 문제로 보인다. 추후 GTX D에서도 역시 금리나 물가 변동에 따라 비슷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천에 좀 더 밀접한 영향을 끼칠 노선 또한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 중이라는 데 있다. 대장홍대선은 본래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 발전방안에 포함된 아래 여러 차례 사업 계획이 바뀌며 기획 방향을 잡지 못하다 2018년 발표된 대장신도시 이후 신도시 철도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민자의 참여는 2020년 현대건설컨소시엄의 사업 제안 이후 2021년에 확정되었다. 2024년 10월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노선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수도권 통합운임제보다 높은 임률을 허락받는 등 순항중이다.

50) 안재민, 「GTX-B, CI vs FI 동상이몽…연내 착공 물건너가나」『대한경제』, 2024. 10. 08.

이 노선이 민자로 건설되기 쉬웠던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노선이었던데다 차량 규격이 철도공사나 서울교통공사 노선과는 다른 중형(中型) 전동차⁵¹⁾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시스템을 별도로 운용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 노선과 동종 차량이 운용중인 주요 노선이 주변에 있다. 바로 인천교통공사의 인천1호선이다. 기지(굴현기지)까지 가깝다. 서측 연장을 통해 환승은 물론 인천 지역 내부도 운행하게 될 노선인 만큼, 인천교통공사의 운영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대장홍대선의 차량기지는 지하에 소규모로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⁵²⁾, 이는 작업자의 건강에 치명적이다.⁵³⁾ 공기업 직영 차량 사업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저비용 외주화가 진행될 민자사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중정비 작업은 환기조차 어려운 지하보다는 지상의 굴현기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외에도 제2경인선, 송내부천선 등의 노선이 2024년 10월 현재 도상 계획중이다. 그러나 이들 노선은 사업 방식이나 노선망 자체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다른 여러 노선들이 본 궤도에 오를 수년 뒤에, 이들 노선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협명할 것 같다.

IX. 결론을 대신해: 다시, 경인선

1. 철도지하화 논란에 대해

이들 모든 노선을 돌아, 다시 경인선은 철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중

51) 바닥면적 $2.75m \times 17.5m = 48m^2$

52) 국토교통부, 『대장홍대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22, 25쪽.

53) 차량 중정비 작업자들에게서 혈액암 유병률이 높았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임명찬, 「[스트레이트] 그 지하철 뒤편,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 MBC, 2024. 7. 21.

심이 되고 있다. 바로 지하화 논란이 그것이다. 부천시는 경기도, 인천, 서울과 조율 끝에 경인선 지하화 사업 신청을 냈다.⁵⁴⁾ 보도에 따르면 사업 제안서에는 역곡~송내 사이, 6.6km에 달하는 시내 경인선 대부분을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2조 원. 1km에 약 3천억 원 꼴이다. 지하철이 1km에 1000~1500억 원 정도 투입되니, “역세권 토지의 입체적인 활용”을 통해 개발이익을 창출한다고 해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⁵⁵⁾ 복복선 사업 시절에는 290억 원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7호선 사업 시절에는 사업비 1천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범시민 대책위까지 만들어야 했던 도시가 부천인 만큼, 아주 호기로운 사업 계획인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한 가지 계산을 해 보자. 아무튼 복복선 6.6km를 지하에 새로 짓는데 ⁵⁶⁾ 2조 원이 든다는 것은 합리적인 수치로 보인다. 그러면 이 돈을 철도부지의 개발을 통해 조달하려면,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까? 우선 철도 지하화는 철도부지를 대지로 만드는 게 초점인 만큼, 지하화 비용을 곧 부지조성비용으로 보기로 하자. 부천 관내 철도부지는 31.5만 제곱미터⁵⁷⁾이니, 제곱미터당 토지조성비용만 약 630만 원에 달한다(평당으로 치면 2천만 원). 같은 시기에 개발될 대장신도시의 부지조성원 가가 약 4조 원, 부지 면적 3.4제곱킬로미터이니 신도시보다 최소 5배 이상 비싸게 주고 짓는 땅이 이 철도지하화 부지인 셈이다. 다른 비용들도

생길 테니, 신도시보다 최소 6배는 더 큰 이익을 뽑아야 하는 게 이 철도 지하화인 셈이다.

물론 지금의 경인선 역세권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역 재생 사업을 벌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른다. 실제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시기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그렇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여전히 하루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광역철도 가운데 여전히 가장 높은 이용밀도를 가진 경인선의 영업은 지금 그대로 유지한 채 지하화 공사를 벌이려면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에 선로를 건설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지하화된 경인선은 GTX만큼 긴 수직 이동 시간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게 된다는 말이고, 지금처럼 계단으로 충분한, 10m 정도의 높이만 극복하면 도심으로 바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선하역사인 소사역, 이미 맞이방과 같은 높이의 버스 환승장이 완비된 송내역, 고도의 지하 공간 개발이 이뤄진 부천역 등은 승강장에서 주변으로 걸어가기 쉬운 상태이나, 이들 역에서도 결국 승강장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수직 이동에 5분 정도는 더 걸린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비용이다. 열차가 늘어나는 것도, 열차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닌 만큼, 결국 철도 이용은 수직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불편해진다.

문제는 이것이다. 역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철도 주변 동네의 길을 연결하고, 중심지의 규모를 키우는 효과에 주목하느냐, 그 돈을 쏟아붓고 도 철도 이용이 불편하게 되어 유동 인구가 줄어들고 철도 분담률이 낮아져 결국 지역의 중심성이 낮아지는 위험에 주목하느냐. 다시 말해, 국지적 환경 개선에 주목하느냐, 광역교통 악화에 주목하느냐. 나는 부천 시가지 가운데 한쪽으로 쏠려있는 데다 여타 추가 경쟁노선이 계속 생겨 이용객

54) 부천시청, 「부천시, 경인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신도사업 신청」, 생생부천(부천시 정책 포털), 2024. 10. 25.

55)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따르면 철도지하화사업은 개발이익을 통해 시행되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철도부지의 출자에 국한된다.

56) 인천시의 경우 관내 완행선의 수요가 적은 편이라 복선만 남긴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완행과 급행(인천발착 수요를 분리하여 결과적으로 부천 승객이 감당할 혼잡도를 낮춤, 표4 참조)이 모두 유용한 부천은 상황이 다르다.

57) 2023년 국토부 지적통계 기준.

이 줄어들어 온 경인선에서, 광역교통 악화를 부를 이런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론은 아직 이 관점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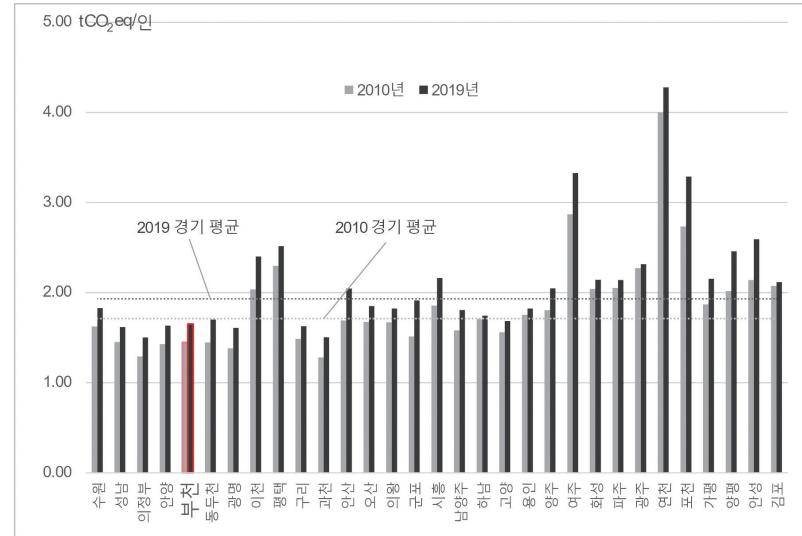
2. 기후와 철도

또 하나 주목할 부분도 있다. 지하화 논의의 시야는, 도시 재생이나 구도심 쇠퇴와 같은 문제에는 닿아 있지만 탄소 중립과 같이 모든 도시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지구적 문제에는 닿아 있지 않다. 지하화를 통해 철도 횡단 도로 교통량, 그리고 역세권 접근 도로 교통량을 늘릴 가능성은 곧 유류 소비량을 늘리고 도로 교통량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대 시킬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행자와 대중교통의 횡단과 접근은 지금보다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승용차의 횡단과 역세권 접근을 쉽게 만드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만 한다. 역은 확장된 걷기 공간의 축이 되어야지, 자동차 지배 공간의 확장 거점으로 쓰여서는 곤란하다.⁵⁸⁾

이것은 부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교통 부분이 가진 중요성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표10은 최근 10년간 경기도 시군의 수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가 줄어든 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단 한 곳도 없다. 부천 역시 그렇다. 경기 평균보다 낮긴 하지만, 인구밀도도 높고 철도 이용객도 경기도 내 2위⁵⁹⁾인 지역임에도 여전히 상승세인 것은 뼈아프다. 더불어 부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수송 부분의 비중은 26%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천의 핵심 축선을 개조하는 작업에서 온실가스 관련 검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철도를 기후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꿈는 이유의 핵은 결국 단위 수송량

표10. 경기도 시군별 1인당 수송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2010년과 2019년. 인구: 주민 등록인구, 온실가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수송 부분 배출량은 주행거리 기준을 따랐다.



기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또 도시 한복판을 연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철도역을 중심지, 생활 공간과 연결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 가능한 한, 수직 이동으로 인한 마찰 시간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자동차 수요 관리가 더해지면⁶¹⁾ 지금보다 1/10 적은 에너지와 탄소 배출량만으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가 가능하다.

지하화 논의에 대해 내가 부정적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지금의 계획은 수직 이동이 늘어나 광역 이동이 위축되는 한편, 도로 교통량의 관리 대책 없이 도로 용량을 늘리는 계획으로 보인다. 역세권 고밀개발만 가지고 이를 요인으로 인해 줄어들 철도 수송량, 그리고 늘어날 탄소 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부천, 송내, 역곡 같은 핵심 역세권에는 (장애인, 화물용을 뺀) 주차장 규모를 최소화해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수 있지만⁶²⁾, 대규모 이익을 노려야 하는 지금의 개발 구조에서 이런 방향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7호선 주변 지역처럼 차는 차대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대로 다니는 걸 바라는 게 현실 아닐까?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일 것이다.

역 주변의 국지적 차원. 플랫폼과 지상 사이의 수직 이동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실제 보행로 단절로 인해 역세권 토지 활용이 규모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철도를 횡단하는 보행로를 추가 또는 보강하는 작업. 이런 목표를 위해서라면 주요역 주변부 데크화는 합리적일 수 있다.

역과 연계된 도시적 차원. 지선 철도망을 추가하고, 기존 도로망에 버스 운행 시설을 지속 보강하고, 환승 거리를 계속해서 좁혀 나가는 것. 적절한 수요 관리(주차장 억제, 혼잡 통행료 부과 등등)를 통해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것. 그리고 남은 선로 용량을 활용해 열차 운행을 늘리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 부천의 철도를 생각할 때 김포선의 교훈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일 것일지도 모른다. 1980년, 부천은 아예 활용할 여지를 두지 않고 철도망의 일부를 철거한 덕에, 꼭 필요한 미싱 링크를 잊지 못하는 선택을 했다. 지하화 과정에서 경인선 복복선의 용량을 줄이거나, 선로를 정말로 지하 40미터로 옮겨버린다면 당시의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일지 모른다. 복복선의 거대한 용량을 기후위기 시대 부천의 번영을 위해 계속 활용하고자 한다면, 전면 지하화와 같은 초대형 계획보다는 역 주변의 재생과 고밀도 활용을 실제로 촉진하기 위한 섬세한 접근이 필수적일 것이다.

61) 수요 관리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이승일,『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역세권 개발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62) 이승일, 같은 책, 270쪽.

1990년대 초 수도권 광역화 속 열망의 교차점, 중동 신도시

전가람¹⁾

I. 문제의식: '얽히고설크'의 신도시 형성사를 위하여

1989년 부천 중동 신도시를 포함한 제1기 신도시 5개 지역이 구상된 이래, 현재까지 35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중동 신도시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거칠게나마 분류하자면 신도시의 도시 자족성²⁾, 1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효과 및 변화 분석³⁾, 신도시와 도시의 공간 구조⁴⁾, 주택⁵⁾, 1기 신도시의 향후 관리 문제⁶⁾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연

목차

-
- I. 문제의식: '얽히고설크'의 신도시 형성사를 위하여
 - II. 중동 신도시 개발의 전사(前史)
 - III. 중동 신도시 건설 계획에 담긴 구상
 - IV. 새로운 거주지 구성 주체들의 욕망과 중동 신도시
 - V. 나가며

1)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주 연구 분야: 공간사회학, 도시사회학, 역사사회학)-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술교육부 조교

2) 안효빈,『首都圈 新都市의 自足性에 관한 研究 :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사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3) 김연화,『수도권 1기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실행결과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승욱,『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구조변화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김민수,『신도시 산업구조 변화 경향과 유입통근자 특성 분석: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24.

4) 김연경,『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천시의 도심부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백하나,『부천시의 연담화 과정과 장소인식의 변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 김효윤,『신도시 아파트 가격 변동 격차 분석: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김선태, 김철중,『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주택시장의 변화 : 중동 신도시를 사례로』『不動產政策研究』15(1), 2014, 145~161쪽. ; 이현수,『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서울시 인구 분산과 아파트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이병식,『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가격간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6) 장윤배, 이성룡, 채명진,『제1기 신도시의 도시재생과 관리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1. ; 허윤경,『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 전예진,『스택시티 : 부천 중동 1기신도시의 도시자족성을 위한 공간환경전략 제안』,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구는 주로 중동 신도시의 도시 계획 과정과 성격, 특징, 효과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천시 차원에서도 『부천시사』⁷⁾를 발간하였으나, 기존의 연구와 도시 계획과 공간의 조성, 변화 과정 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신도시는 계획에 의해 형성된 산물이나 효과일까? 신도시의 역사는 계획과 그 성과 또는 효과의 전개 과정에 대한 기술(記述)일까? 일군의 정치지리 연구자들의 지적과 같이, 지역 및 장소는 특정 영토 내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결과물이 아닌, 영토 안팎의 상이한 요소들—인간 행위자부터 각종 상품이나 기술, 지식, 제도 등에 이르기까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것이기도 하다.⁸⁾ 이러한 차원에서 신도시는 그 형성 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편으로는 계획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계획과 그 효과의 차원을 검토하며 바라볼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과 건설, 생활의 차원에서 계획 입안자들의 범주를 넘어 다양하게 존재하고 분포하며 얹혀 있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중동 신도시와 같이 안으로는 기존 시가지와 연결되어 형성되고, 밖으로는 부천시와 인접한 다른 지역과의 지리적 연결성, 인구·경제·사회적 연결성 속에서 신도시의 형성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신도시 형성의 전사(前史), 중앙정부나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와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그 형성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하나의 영토가 여러 행위자 및 행위 관계들의 교

차 속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⁹⁾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착안, 노태우 정권기 수도권 광역화 과정에서 나타난 제1기 신도시의 하나인 중동 신도시의 초기 건설 과정—주로 1989년에서 199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을 기록하고자 한다. 초기 건설 과정에 천착하는 것은, 중동 신도시의 구상과 실제 건설 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공간적 상호작용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수준—주로 도시 계획 수준—에서 조명된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시기 사회-공간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신도시가 다양한 주체들의 행위 배경이나 이해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양상,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다양한 맥락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써 중동 신도시가 도시 계획이나 행정 차원에서만의 생산물이 아닌, 건설 초기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얹히고설키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실체였음에 주목하고, 그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신도시의 역사를 집합적 열망들의 교차,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시론을 꾸려보고자 한다.

II. 중동 신도시 개발의 전사(前史)

한국의 수도권 정책은 1960년대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1964) 이래로 입안되어 왔으나, 시기별로 정책이 지닌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수도권 정책들이 입안되기 시작한 초창기 10년여간(1964~1975)의 정책이 수도 서울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통제하고 주택, 도시 환경, 안보 문제 등을 관리·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었다면, 그 이후의 10년여간(1976~1988)의 정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에 있었던 서울의 인구 증가율과 1970년대 서울의 광역화 현상, 남북 관계를 고려한 정부 기능의 지방 분

7) 부천시사편찬위원회 편, 『부천시사』 제3권, 2002. ; 부천시사편찬위원회 편, 『부천시사』 제1~2권, 2023.

8) MacLeod, G. & Jones, M., “Territorial, Scalar, Networked, Connected: In What Sense a ‘Regional World?’”, *Regional Studies*, Vol.41, No.9, 2007, pp.1177~1191. ; Allen, J., Charlesworth, J., Cochrane, A., Court, G., Henry, N., Massey, D., & Sarre, P., *Rethinking the Region: Spaces of Neo-Liberalism*. London: Routledge, 1998. ; Amin, A., Massey, D., & Thrift, N., “Regions, democracy and the geography of power.” *Soundings*, Vol.25, No.25, 2003, pp.57~70. ; Amin, A. “Regions unbound: towards a new politics of place,”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86, No.1, 2004, pp.33~44.

9) Painter, J., “Territory-network.”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Chicago, 2006.

산, 박정희 암살 사건 등의 정치적 격변과 엮여,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1978),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1984), 「수도권 정비 시행 계획」(1986) 등 수도권 인구 및 생활·경제 권역, 기능의 관리와 (재)배치 문제에 대해 보다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¹⁰⁾ 이 중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의 경우, 1982~1991년에 걸친 사업 기간 동안 인구 및 각종 기능의 집중, 각종 도시 문제 심화, 휴전선에 인접한 서울의 입지와 관련된 안보상의 위험성 등의 문제의식에 기초, 서울의 중추관리기능과 수도로서의 위상은 유지하되,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 기능, 인프라를 분산시킴으로써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 형성, 생활 환경 및 안보 환경의 개선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¹¹⁾ 그러나 이 계획은 단순히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는 계획이 아닌, 남양, 안중, 평택, 송탄, 안성 등 수도권 서남부의 개발유도권역에 국한하여 인구 및 산업을 분산시키고, 성장 거점 도시 및 기술 집적 도시 등의 육성을 통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다.¹²⁾ 해당 계획에서 부천시는 이전 촉진 권역, 제한 정비 권역, 개발 유도 권역, 자연 보전 권역, 개발 유보 권역의 5개 권역 중 과밀 억제를 기본 전략으로 하는 제한 정비 권역에 속해 있었다.¹³⁾

그러나 서울로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려는 정부의 구상은 당시의 사회 변동 속에서 원안대로 실현되기 어려웠다. 1980년대 경제 성장에 따른 순기능 이면에서 발생하고 있던 사회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손정목¹⁴⁾이 지

적한 바와 같이, 1980년대의 경제 성장은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유발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증가한 도시 근로자 주거비 부담은 개인의 욕망의 좌절은 물론, 사회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공산권에서의 정권 붕괴와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체제 경쟁 및 안정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주택을 비롯한 각종 생활 복지 문제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이 입안되었다. 이 계획은 1988년에서 1992년까지 GNP 대비 주택건설 투자 비율을 1980~1987년 기간의 연평균 4.6%에서 연 6.5% 수준으로 높이고, 주택 보급률 역시 1989년 말의 69.3% 수준에서 1992년 말에 72.9%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었다.¹⁵⁾ 이 같은 목표하에, 정부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주택 공급을 차등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영세민을 위한 전용 면적 7~12평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도시영세민보다는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좋은 편이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저소득 서민 계층(총 10분위 소득수준 중 2~3분위)을 대상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장기임대주택(10~15평 규모), 소형분양주택(12~18평 규모)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응자 지원, 중산층(소득분위 6~7분위)을 위한 25평 이하 중형주택 공급, 자력으로 주택 마련이 가능한 중산층 및 그 이상 소득 계층에 대해 민간주택사업자에 의한 중형 이상 주택(25평형 초과) 공급 등이 그 방안이었다¹⁶⁾. 이와 더불어 당시 정부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이 노사 관계 안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함에 따라, 근로복지주택 15만 호 및 사원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및 공급을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의 일부로 포함시키게 되었다¹⁷⁾.

10) 국토개발연구원,『국토 50년: 21세기를 향한 희고와 전망』, 서울프레스, 1996, 208~215쪽.

11) 국토개발연구원, 같은 책, 269~270쪽.

12) 국토개발연구원, 같은 책, 272쪽.

13) 국토개발연구원, 같은 책, 271~272쪽.

14) 손정목,『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5』, 한울, 2003, 107~111쪽.

15) 공보처,『第6共和國實錄: 蘆泰愚大統領政府5年』제3권, 1992, 238쪽.

16) 공보처, 같은 책, 239~240쪽.

17) 공보처, 같은 책, 240쪽.

당시 정부가 주택 문제에 주목했던 것은, 주택 문제가 전국화된 문제이기 도 했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발생 및 확장, 부동산 투기 등 수도권 지역 주택 문제가 심각해진 데 대한 대응이었다.¹⁸⁾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1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서민층, 노동자,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자, 자족성 있는 신도시 개발을 통한 수도권 인구 재배치를 실현하는 전략이었다.¹⁹⁾ 이는 앞서 소개한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1984)에서 집중 규제, 과밀 억제 등을 정비 기본 전략으로 하던 지역들에 인구 분산은 물론, 기존 구상과는 달리, 각종 산업을 포함한 도시 자족성까지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²⁰⁾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은 경기 지역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총 5개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분당의 경우 수도권 중심 업무·상업 지역으로, 일산은 수도권 서부 중심 도시이자 평화·예술·문화 도시인 동시에 전원도시로, 평촌은 안양의 신(新) 중심업무지역으로, 산본은 군포의 신 중심업무지역이자 전원도시로, 중동은 부천의 신 중심업무지역인 동시에 서울·인천 간 공업지역의 중심에 입지한 근교 주거지로서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²¹⁾ 중동 신도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구상되었고, 「건설부 고시 제193호」(1989. 04. 29.)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18) 공보처, 같은 책, 246쪽.

19) 공보처, 같은 책, 248쪽.

20) 1기 신도시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수도권 정책이 다른 국가 시책에 밀려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없었”으며, 1기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정책을 무력화시켰던” 사업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다. 공보처, 같은 책, 219~220쪽.

21) 한국토지공사, 『분당신도시 개발사』, 1997.; 그런데 1989년 당시의 신문을 보면, 언론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방향에서 이를 지역을 조명한다. 분당의 경우 강남권의 중산층 도시로, 일산의 경우 전망이 빼어난 전원도시, 노년층을 위한 휴양도시, 남북 교류에 대응하는 도시로, 산본의 경우 뛰어난 자연조건, 안양 공업벨트와 인접한 주택·산업 연계 신도시로, 평촌의 경우 기존의 인접 수도권 위성도시들과 연결되는 신시가지이자 서민을 위한 주거지로, 중동의 경우, 경인축 연선의 공업지역에 위치한 주거 지역으로 묘사되고 있다. 「首都圈 주택都市에 「내집」 꿈 주렁」, 『경향신문』, 1989. 11. 23.

III. 중동 신도시 건설 계획에 담긴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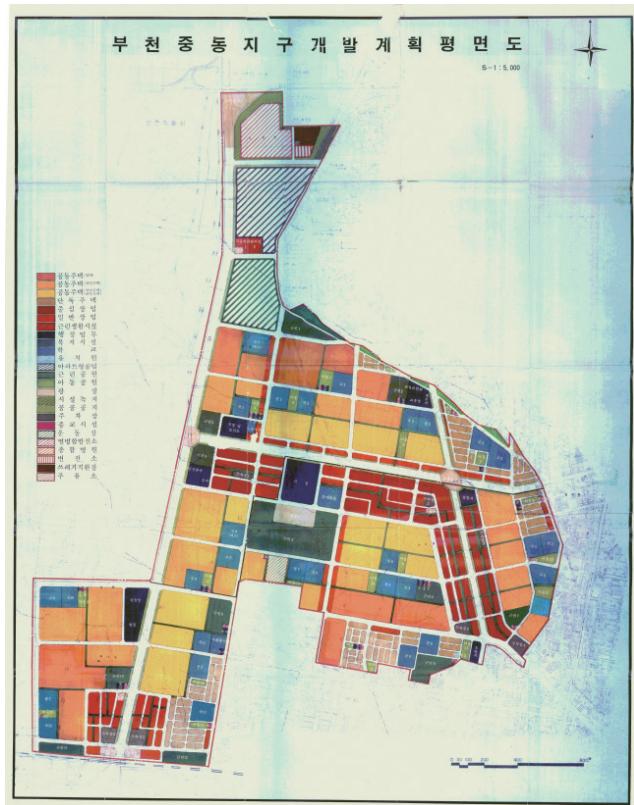
「건설부 고시 제50호」(1990. 02. 24.)에 따르면, 중동 신도시는 ‘대단위 택지 조성으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수도권 주택난의 일부 해소’, ‘부천의 기존 시가지와 연계되는 신시가지 조성으로 균형 있는 도시 구조의 형성 유도’를 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²²⁾ 이에 따라, 부천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개공’)가 개발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여²³⁾, 1990년 2월 8일(승인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당시 경기도 부천시 중구 춘의동, 삼정동, 삼곡3동, 남구 송내동, 상동, 중동, 인천직할시 북구 삼산동 일원의 5,439,028.4m² 규모 부지에 17만 명을 수용 할 수 있는, 42,500세대(단독 주택: 1,080세대, 공동 주택: 41,420세대) 규모의 주택 지구(근린생활시설 포함)는 물론, 상업 지구, 각종 공공 시설, 그리고 도시 산업 시설로서 아파트형 공장 용지 등을 갖춘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도1)²⁴⁾

주택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이 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아파트)으로 구분되어 중동 신도시 전체 면적의 33.2%에 달하는 규모로 계획되었다. 이후 1991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동 신도시 신

22) 여기에 「건설부 고시 제407호」(1990. 07. 11.)에서는 ‘미래 도시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이라는 목표가 추가되었다. 아울러 『부천시사』 제3권(2002)에서는 개발 기본 방향을 함께 소개하였는데, ‘장래 도시 성장을 고려한 장기적인 측면의 도시골격 구상’, ‘광역교통망 및 생활권 체계형성으로 지역간 연계기능 강화’, ‘수도권의 수급기능 분담 및 자족적인 도시개발 도모’, ‘기존 도시골격에 부합하는 도시축을 형성하여 시가지 확산 가로망의 연결체계 강화, 이미 개발된 도시구조와 조화 도모’, ‘부천의 중심지로서 도시활동의 구심력을 유지하도록 행정·업무 및 상업중심 기능 확보’, ‘광역생활권 이용체계를 고려하여 유통·교통·교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적정 배치’ 등이 그것이다.

23) 이는 다른 1기 신도시의 경우, 주공이나 토개공 중 한 곳이 시행자로 단독 참여하는 형태(일산(토개공), 분당(토개공), 평촌(토개공), 산본(주공))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추후에 상업 용지가 과다하게 지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도시 개발 경제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3개 기관이 개발 이익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및 국토연구원, 「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2012, 51쪽.

24) 이후, 「건설부고시 제809호」(1990. 11. 27.)에 의거, 인천 삼산동이 사업 대상 지역에서 삭제되고, 사업 대상 면적은 5,448,498.9m² 규모로 확장되었다.



도1.〈부천중동지구개발계획평면도〉(「건설부 고시 제50호」(1990. 02. 24.) 첨부 자료)

도시 건설 개요」(이하 '개요'²⁵⁾)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 구상이 나타나는데, 해당 문서에 따르면 주택 용지는 근린 생활 시설을 제외하고 총 34.5%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나며, 아파트의 경우, 임대 주택, 국민 주택, 분양 주택의 3개 유형으로 나누되, 임대 주택은 12평 미만 956세대, 12~18평 이하를 10,645세대로 총 11,601세대, 국민 주택은 18평 이하 36세대, 18~25.7평 이

하를 22,344세대로 총 22,308세대, 분양 주택은 32~31평 이하 2,485세대, 42평 이상을 5,080세대로 총 7,565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주택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지점은 도시 영세민과 노동자를 위한 주택 공급 문제이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장기임대주택 및 소형분양주택이 건설되고 있었으나, 실제로 저소득층이 입주하기에는 주거비 부담이 크고, 실질적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선별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중산층이 입주하는 공간이 되고 있었다.²⁶⁾ 노동자의 주거 안정성이 노사 관계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된 현안이라는 점을 인식한 당시 정부는 1990년 2월에 「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확정·공표하였고,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기업체가 건설하여 노동자에게 분양하는 근로복지 주택, 기업이 주택을 소유하여 노동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의 두 유형으로 주택을 나누어 공급하기로 하였다.²⁷⁾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각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68㎡형 90세대, 69㎡형 450세대를 공급하고, 사원용 임대주택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기업체가 일괄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하여, 68㎡형 90세대, 69㎡형 150세대를 공급하는 것이었다.²⁸⁾²⁹⁾ 입주 신청은 기업체에서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확인을 받아 대한주택공사에 접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부천시 행정 구역 소재 기업 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업체 중 10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제조, 운수, 청소 업체의 노동자 중 임원이 아닌 자,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주민등록상 부양가족 등

25)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 자치제도과, 「중동 지구 신도시 건설 개요」, 1989.(국가기록원 소장본) 해당 문서는 국가기록원에는 1989년으로 생산연도가 기록되어 있으나, 해당 연도를 생산연도로 하고 있는 문서 철인 「신도시건설 관계철(수원, 부천)」과 함께 묶여 있다는 점, 해당 문서에 실린 표 자료 등이 199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있고, 1992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989년이 아닌, 1991년경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26) 공보처, 앞의 책, 250쪽.

27) 공보처, 같은 책, 250~251쪽.

28) 「주거안정 내집마련 앞당겨준 200만호 부천중동 근로자아파트 입주자 모집」『동아일보』, 1992. 8. 15.

29)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는 시기를 조음한 1992년 12월 3일자 『매일경제』 광고에 따르면, 68㎡형 90호, 69㎡형 148호를 추가 공급하였다.

재)로서 최초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 지난 해 월평균 임금 총액 100만원 이하인 자(단, 10년 이상 근속자는 소득 제한 없음)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였다.³⁰⁾ 입주자는 정부의 「기업별 주택배정 심사기준」에 의거, 당해 직장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1~3위로 구간을 나누고, 동일 순위 내에서 신청 호수가 분양 호수보다 많을 경우 신청 인원 비율로 배정하되,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대비 3배 가중치를 두어 배정하였다. 여기에 더해 각 기업체에 배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체에서 근속 기간, 가구원 수, 임금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 배정 신청 시 공사에 제출한 입주 대상 유자격근로자 명단 서열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원칙에 근거, 입주자를 선정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다.³¹⁾ 중동 신도시의 경우, 1992년 12월 10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였다.³²⁾ 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용 임대주택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노사관계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노동자 복지 문제를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관리하고, 도시 내적으로는 지역의 자족성 확보와 다양한 사회 계층을 수용하는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업 지구의 경우, 「건설부 고시 제50호」에 따르면 중심 상업 지구와 일반 상업 지구로 구분되어 전체 면적에서 9.5%를 차지하는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991년도의 개요를 보면, 중심 상업 지구(64천평 규모), 일반 상업 지구(71천평 규모), 근린 상업 지구(38천평 규모)로 그 용도가 더 세분화된 형태의 구상이 보이며, 전체 도시에서 약 10.5% 규모를 차지하는 형태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공용 청사, 복지 시설, 학교, 도로, 공원·녹지, 공공

공지, 종합 의료 시설, 기타(주차장, 전신, 전화국, 수로 등), 아파트형 공장 부지 등 중동신도시 전체 면적 대비 54.3%에 달하는 규모로 계획되었다. 1991년도의 개요에서는 해당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 각종 공용 청사로는 시청, 교육위원회,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검찰청, 법원, 우체국, 보건소 등 34개 시설을, 학교 용지는 초·중·고교 총 30개교, 각종 도로, 각종 공원 및 공공공지, 종합 의료시설 1개소, 종교 부지 19개소, 기타 공공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당시 공공시설 용지에 계획된 시설 중에는 아파트형 공장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통속적으로 베드타운으로 평가받는 중동 신도시를 형성사 차원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게 한다. 이는 중동 신도시가 주변 지역과 관련하여 지니는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아파트형 공장은 1990년 2월 8일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상공자원부와 부천시의 요구에 따라 개발계획에 수용된 것이었다.³³⁾ 신도시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두 가지 맥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1989년 상공부의 「아파트형 공장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대도시 지역 내에 산재한 영세 기업의 집단 유치 촉진을 통해 무등록 공장의 난립 및 인구, 산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단지 2천 가구 이상인 경우 아파트형 공장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정책이었다.³⁴⁾ 이는 종합토지세 실시와 전월세 상승에 따른 공장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서울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소기업들이 부천, 안양, 군포 등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인근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던 당시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⁵⁾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내적으로 신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

30) 같은 기사.

31) 같은 기사.

32) 「부천 中洞지구 근로복지아파트 입주자 모집」, 『경향신문』, 1992. 12. 7.

33) 건설부, 「부천중동지구내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회신(문서 번호: 신탱-58425-94)」, 1994. 4. 4.(국가기록원 소장본)

34) 「아파트형 工場地 의무적으로 확보」, 『매일경제』, 1989. 10. 17.

35) 「工場 임대료 급등」, 『매일경제』, 1990. 2. 21.

는 한편, 도시 내 산업 시설들에 대한 재정비 및 계획을 통해 도시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IV. 새로운 거주지 구성 주체들의 욕망과 중동 신도시

그런데 과연 중동 신도시는 계획자 집단의 초기 구상대로 완성될 수 있을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신도시는 단순히 계획자 집단의 산물이 아니라, 그곳에 다양한 이해관계로 얹혀 있는 주체들의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실체이자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입주자(지역 내 기존 주민 및 신규 전입 주민), 건설사 등과 같은 주체에 주목하여 중동 신도시가 건설 초기 단계부터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상상되고 만들어져 가는지에 주목해보려 한다. 특히 서로 다른 주체들의 욕망이 하나의 현상, 행위 등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당대의 신문 기사 및 광고들을 검토해 보며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신도시의 형성 과정을 보고자 한다.

1. 내 집 마련의 꿈: 수많은 신도시 건설 주체들의 동상이몽

오늘날은 물론, 중동 신도시가 건설될 당시인 1990년대 초에도 ‘내 집 마련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 다수의 희망 사항이자, 주택 정책에서 고려하게 되는 대중적 열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열망은 단순히 각자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망을 지닌다. 주택의 수요자인 대중은 물론, 건설사나 정부 차원에서도 ‘내 집 마련’이 의미하는 바는 상이할 수 있다.

먼저 거주 수요자로서의 대중 차원에서 살펴보면, 1980년대 말, 주택 공급 물량 부족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주택난은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만성화되어 있었다.³⁶⁾ 당시의 주택난은 『한겨레』에서

1990년 3월 22일부터 동년 4월 8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연재한 기획 취재 기사 「집없는 사람들」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서울 강남 등 고급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시작된 전세 가격 폭등이 중소도시에 이르기 까지 확산되면서 서민 계층에서는 소형 아파트에서 연립주택, 단독주택 지하실, 달동네 단칸방, 비닐하우스나 천막촌 등으로 저렴한 집값을 찾아,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었고,³⁷⁾ 전세 및 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노동 소득으로 거주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³⁸⁾ 급격한 주택 가격 폭등과 함께 주택이 거주라는 사용 가치를 넘어, 소유를 통한 교환 가치 차원에서 이해되는 과정에서 중산층에서 조차 미처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한편,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욕망의 좌절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한편, 정부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³⁹⁾ 한편 집주인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받거나 주택 구입 융자 상환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전세 수익을 사채, 부동산 투기 등의 지하 경제로 전환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한편,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무주택 노동자 계층에서는 주택 비용 등의 인상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⁴⁰⁾ 여기에 무주택자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도입한 주택 조합 건설 방식은 정작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이 수혜자가 되거나, 매매 계약서 거래 및 이면 각서를 활용한 부정 입주, 이른바 ‘복부인’과 중개업자들의 개입 등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⁴¹⁾ 이 같은 상황에서 중동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하던 1990년 1월 1일 기준,

37) 「집없는 사람들 〈1〉」 『한겨레』, 1990. 3. 22.

38) 「집없는 사람들 〈2〉」 『한겨레』, 1990. 3. 23.; 「집없는 사람들 〈3〉」 『한겨레』, 1990. 3. 24.

39) 「집없는 사람들 〈5〉」 『한겨레』, 1990. 3. 27.

40) 「집없는 사람들 〈9〉」 『한겨레』, 1990. 3. 31.

41) 「집없는 사람들 〈10〉」 『한겨레』, 1990. 4. 1.

36) 공보처, 앞의 책, 246쪽.

부천시의 주택 보급률은 46.9%였고, 무주택 가구 수는 92,453세대에 달하였다. 이는 전국의 주택 보급률(70.9%)은 물론 경기도 평균(69.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⁴²⁾

이는 1차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반경 내에서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주택 문제는 앞의 「집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라는 사용 가치 그 이상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자가(自家) 소유를 한국 사회의 욕망의 표상이자 담론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명수⁴³⁾의 지적과 같이, 자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을 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형성하고 타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자신의 생계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주택 임차인들이 경험하는, 낮은 주거 및 경제의 안정성이나 그에 따른 불안감과는 다른, 위험의 경감 또는 해소, 부의 축적 또는 그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 은지가 논한 바와 같이, '내 집 마련'은 자조, 근로 의욕, 최소한의 국가 복지 등의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낮은 복지 수준, 그리고 당시의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이 빈곤을 극복하고 근검 절약과 저축을 통해 성공한 인간이 되는 생애 서사였으며, 경제 성장 및 소비 문화의 전개 과정에서 건설사 등이 중간 계급 이상의 사회 구성원을 주택이라는 상품의 소비 주체로서 호명할 때 사용하는 구호로 활용되기도 하였다.⁴⁴⁾ 자기 소유의 주택은, 대중에게는 주거·경제·심리적 안정감

을 제공하는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구성, (재)생산되는 욕망을 개인 차원에서 실현하는 수단이자 그 실현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주택이 지니는 이 같은 성격은,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광고나 기사에서 드러난다. 1991년 당시 신문에는 주택 규모로 볼 때 중산층 이상 수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에서 "내집 마련의 꿈과 가장 가까운 신도시 중동 4차", "24평에서 50평형까지 1,572세대의 내", "중동 4차에서 마이홈의 꿈을 이루십시오."⁴⁵⁾ 등과 같이 자가 소유 욕망을 자극하는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한다. 그런가 하면, "국민·임대 저소득층 내집마련 더없는 호기"⁴⁶⁾, "서민 내집 마련 5개 신도시 향후 3년 호기"⁴⁷⁾ 등의 문구를 내세워 도시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을 겨냥한 광고성 기사들도 나타났다. 건설사의 광고는 주택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듯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을 주택 시장의 소비자로 호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다양한 계층에 걸친 주택 공급은 앞에서 언급한, 주택난 및 그와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수립된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에서 구상하는 바이기도 하였다.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은 공공 부문에서는 임대주택 위주로 85만 호, 민간 부문에서는 분양 주택 위주로 115만 호를 건설·공급하되, 계획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중점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사업이었으며, 최초로 소

42) 부천시, 「부천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택공급규칙 개정건의」(문서 번호: (개)30260-770), 1990. 9. 7.(국가기록원 소장본)

43) 김명수, 「한국 주거문제의 구조적 기원(1970~1985)」『공간과 사회』28(2), 2018, 195~196쪽.

44) 물론 이은지는 이 같은 성격들을 각각 1960~1970년대,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경향성으로 보인다. 1960~1970년대의 한국인에게 보이는 정동이 그 이후 시기에 단절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한 개인의 성공, 성취 서사가 자가의 취득으로

표상되는 서사는 근래의 광고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내 집 마련'의 담론 경향이 있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여러 시기에 걸쳐 지속되는 열망도 함께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은지, 「한국에서 주택 담론의 역사적 변화 : 1970~2000년 대 신문사를 통해 본 '내집마련' 담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45) 「내집 마련의 꿈과 가장 가까운 신도시 중동 4차」『동아일보』, 1991. 8. 3.

46) 「국민·임대 저소득층 내집마련 더없는 호기」『한겨레』, 1990. 11. 25.

47) 「庶民 내집마련5개신도시향후3년 好機」『경향신문』, 1991. 11. 14.

득 계층별로 주택 공급을 차등화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⁴⁸⁾ 해당 계획에서 주택을 비교적 여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상류층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고려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또한 근로자 주택, 영구 임대주택 등 노동자 계층과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주택 정책을 도입하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이는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당시 노태우 정권이 국내의 사회 갈등 문제, 그리고 공산권 정권 붕괴에 따른 체제 안정성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노동자, 서민이 사회적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발언자이자 관리의 대상으로서 부상(浮上)함에 따라,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불만을,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통해 해소하려는 관점 및 접근이 등장하였고, ‘내 집 마련’은 이러한 맥락에서 당대적 의미와 기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⁹⁾ 정부 차원에서 당대 ‘내 집 마련’ 문제, 특히 저소득층 및 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한 임대 주택 문제는 국가 엘리트가 국내의 주택 문제를 중요한 정치적 쟁점 현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지 기반을 확보하여 체제의 안정 및 존속을 기하는 ‘주택 정치(housing politics)’라고 할 수 있다.⁵⁰⁾

그러나 여러 계층에 걸쳐 폭넓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구상은 원활히 실현되지 못하였다. 앞서 살펴본 앞서 인용한 「부천 중동 신도시 개발에

48) 공보처, 앞의 책, 238쪽

49) 백숙인, 「토지공개념에 대하여」『동향과 전망』6, 1989, 189~201쪽. ; 최윤정,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주택문제에 관한 연구」『경제와 사회』7, 1990, 131~167쪽. ; 유형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 울산지역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1987~201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은지, 앞의 논문.

50) 당시 주택 공급의 정치적 성격은 안산 반월공단에서 발표된 연설문 「근로자주택건설 기공식 연설」(1990. 3. 22.)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노태우는 그간에 폭발하던 사회적 불만, 욕구, 갈등을 언급하고, 노동자, 서민 대상 주택 공급 정책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학회하는 사회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는 주택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정치적 의제이기도 하였음을 확인하게 한다. 하성규, 배문호,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정책과 주택정치」『한국지역개발학회지』16(4), 2004, 96~120쪽 참고.

따른 주택공급규칙 개정건의(문서 번호: (개)30260-770)에는 당시에 적용되고 있던 주택 공급 절차가 부천시의 설정과 맞지 않아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며 관계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적용되고 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457호, 1989. 11. 07. 개정)에 따르면,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시 주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부천시에서는 이와 관련, 해당 건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택 공급에서 소외감이 있을 뿐 아니라, 주택 보급률이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도 낮은 형편을 언급하며, 자자체에서 건설하는 시영아파트조차 해당 지역 시민에게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은 물론, 주택 청약 저축 등 주택 분양 신청과 관련되는 저금 가입자 수도 서울 지역 가입자 대비 5.4%에 그쳐 지역 주민에 대한 주택 공급에 난항이 예상됨을 지적하였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개발지역 내 주택 공급은 부천 시민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자자체에서 직접 건설하는 시영 아파트는 당해 지역 시민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등 해당 규칙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부천 외에도 평촌, 산본 신도시가 건설되던 안양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건설부는 동년 9월 24일자부터 신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공급 분량 중 지방자치단체 사업분의 경우 전량을, 기타 사업분은 10~20%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입법 예고하게 되었다.⁵¹⁾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광역화는 서울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의 도시 문제를 광범위하게 분산해내는 과정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주택난은 지역의 주택 정책에서 서울로부터의 이주민은 물론, 그 인근 지역에서 오는 이주민들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을 유발하였고, 이는 지역 내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

51) 「5개 新都市 아파트 10~20% 지역주민 우선공급」『조선일보』, 1990. 9. 25.

환경 유지·확보를 중요한 지역 의제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주택난을 둘러싼 문제들을 완벽하게 통어하고 주택 정치를 성공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었다.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공무원, 주 공 직원, 브로커 등이 근로자 복지 아파트를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모집, 분양 관계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분양받도록 하고 사례비를 받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⁵²⁾ 또한 물가 불안과 건축 자재 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아파트 투기⁵³⁾가 발생하고,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져 분양 자격이 없음에도 주택 청약 순위를 조작하거나 장기 무주택자로 위장해 신도시 지역 아파트에 불법 당첨되는 사례⁵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1년에는 건설사들이 표준 건축비 인상에 따른 자재 및 노임 단가 상승에 의해 종전 분양가로는 채산성이 확보될 수 없음을 들며, 정부가 분양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집단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⁵⁵⁾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신도시 건설의 여러 주체들이 꾼 동상이몽과도 같았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슬로건이자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위치에 있는 개별 시민, 가정에 내재한 집합적 열망이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재생산되어온 근면 이데올로기에 착근한 개인 성취의 표상이었고, 동시에 건설 자본 등을 통해 개인이 소비자로 호명되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그것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인 동시에, 개인을 중산층으로서 부상하게 해, 이들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인구로 전환

하는 전략적 목표였다고도 할 수 있다.

2. 경인 운하: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새롭게 전유되고 상상된 지역 숙원 사업

1990년 6월 27일자 『매일경제』에 실린 기사에서는 중동 신도시를 소개하며, 이곳이 경인 운하를 통해 한국의 ‘베니스’로 발전시킨다는 전망을 제시하였다.⁵⁶⁾ 1990년 11월 20일자 『한겨레』의 한 광고에서도 중동 신도시를 “한국의 베니스”로 불릴 운하의 도시”, “아이들은 공원에서 자라고 그들의 고향에는 운하가 흐릅니다” 등으로 소개하며, 도시 환경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로 경인 운하를 언급하였다.

경인 운하 건설은 김포, 부천, 인천 등의 지역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두되던 지역 의제였다.⁵⁷⁾ 앞의 기사 속 경인운하는 1989년 당시, 1991년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 아래에서부터 인천 북구 백석동에 이르는, 전장 21km의 운하를 계획한 것과 유관해 보인다.⁵⁸⁾ 그런데 경인 운하의 본류는 부천시가 아닌 인천, 김포 등의 지역을 통과하고, 부천 지역과는 굴포천을 통해 연결되는 형태임에도 당시 부천 지역에서는 경인 운하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는 폭우로 인한 침수 현상으로 부천시 및 김포 평야 일대 지역에서 매년 막대한 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1987년 부천시에서 운하 건설을 건의하는 등⁵⁹⁾ 경인 운하가 부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부천 공업지대로 흐르는 굴포천을 서해안으로 연결시켜, 하천으로 유입되던 공

52) 「근로자 복지 아파트 불법 분양」, 『조선일보』, 1994. 12. 11.

53) 「아파트 투기사범 집중단속」, 『한겨레』, 1990. 10. 12.

54) 「신도시 不法당첨 146명 검찰 본격搜查 착수」, 『매일경제』, 1991. 8. 10.

55) 「아파트分讓價 시비 재연」, 『매일경제』, 1991. 2. 19.; 「건설부, 주택업계 신도시 分讓價 인상 요구에 강 경 대응」, 『매일경제』, 1991. 2. 23.

56) 「富川 中洞 부천 중동, 과연 어떤 신도시인가?」, 『매일경제』, 1990. 6. 28.

57) 경인 운하는 통감부에 의한 부평 운하 계획(1905), 식민지 시기의 경인 운하 계획, 그리고 해방 이후 각 정권에서 식민지 시기의 구상을 활용한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대두되온 지역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창호, 「굴포천 개착과 ‘경인운하’ 계획」, 『인천학연구』 29, 2018, 155~209쪽을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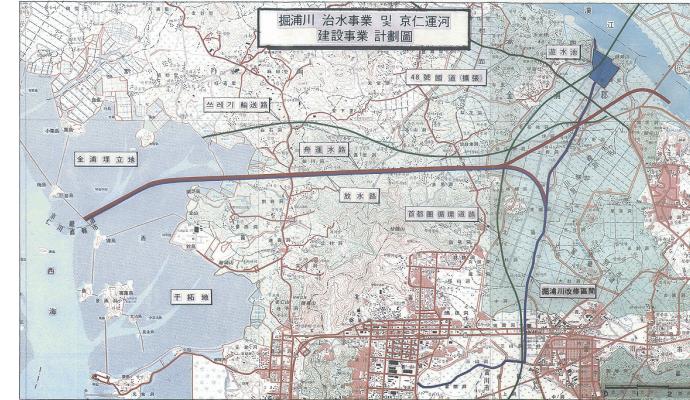
58) 「京仁運河 건설」, 『경향신문』, 1989. 6. 26.; 「경인운하 연말께 착공」, 『한겨레』, 1991. 1. 6.

59) 앞의 기사.

업 폐수를 인천 앞바다로 흘려보내 제거하려는 구상과 향후 서울과 연결되는 해상 운송로로서의 기능이 부천 지역에서 경인 운하에 주목하는 내용이었다.⁶⁰⁾ 여기에 더해 이와 함께 운하를 따라 당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던 영종도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그리고 인천시 서구 백석동의 쓰레기 매축지로 연결되는 쓰레기 수송 차량 전용 도로를 건설하고, 운하를 활용해 부천시 관내의 공장들의 물자 이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⁶¹⁾, 당시 구상 단계에서 경인 운하는 기본적으로는 부천 지역의 수해 조절은 물론, 경인 지역의 경제적 차원의 문제와 더욱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91년 7월에 간행된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실시 설계 및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실시 설계')에서도 증가하는 경인간 물동량과 부족한 교통 인프라 문제를 주운로 건설을 통해 확충하고, 침수 방지를 도모하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대안으로 건설되던 김포의 간척지에 개발하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운송 수단을 제공하고, 한강 주운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목표가 제시되었다.

물론 당시에 기대되는 건설 효과나 목표에는 수해 조절, 공업, 교통 등 지역 주민들이 당면한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만이 아닌, 관광, 레크리에이션, 노태우 정권에서 추진하던 서해안 개발 사업에의 기여 등과 관련된 것도 있었다. 다만 「실시 설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것들은 비교적 후순위로 제시되어,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나 효과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1989년 당시, 일군의 전문가들이 경인 운하의 규모나 한강 평균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해상 수송의 경제 이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자, 정부에서는 대량 운송 수단으로서의 운하보다는 분단으로 차단된 서해안과의 연결, 그리고 영종도 신공항 개발과 관련

하여 조성할 해양 관광 단지와의 연결성 등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⁶²⁾



도2. 굴포천 치수사업 및 경인운하 건설사업 계획도. 건설부,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실시 설계 및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서」, 1991 수록 자료.

랜드마크로서의 성격은 오히려 중동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새롭게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동년 2월 21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부천시 공고 속 “4통8달의 도로와 전철망, 경인운하에 연결되는 부천운하의 건설로 전국 어느 곳이나 손쉽게 갈 수 있는 편리와 쾌적성, 그리고 운하의 낭만을 동시에 만끽하는 특징있는 신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인 운하를 신도시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건설사 광고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건설사의 이해관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감한 홍보 필요성이 공명한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 9월 7일자에 부천시공영 개발사업소에서 롯데건설 측으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도시기능 담당’, ‘전국 최초로 운하를 보유하는 신도시’, ‘전국 최초의 CIP⁶³⁾를 도입한 도시’, ‘자족도시(APT형 공장) - 최첨단 고부가 중소

60) 「京仁運河 건설」『매일경제』, 1989. 6. 27.

61) 「「京仁운하」현실화 始動」『경향신문』, 1990. 8. 25.

62) 「경제·레포츠 “복합水路”로」『경향신문』, 1989. 6. 26.; 「「京仁운하」현실화 始動」『경향신문』, 1990. 8. 25.

63) 도시 개성 형성 계획(City Identity Project)의 준말.

기업단지 조성, '넓고 많은 공원을 보유한 전원도시', '이상적인 교육의 도시',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망, 영종도 국제공항, 고속전철 등 과의 연결을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도시',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공동구를 활용한 전선 및 전주 미노출 등을 통한) '깨끗한 미래의 도시' 등을 아파트 분양 광고 시 홍보 자료 내용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는 실제 건설사 광고들의 내용이 되었다.⁶⁴⁾

그렇다면 이 같은 공명(共鳴)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실제로는 산업 교통로나 홍수 방지 시설 등의 성격 외에, 경인 운하를 당시 신도시 및 아파트 홍보 과정에서 강조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을까? 아마도 이는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의 주된 주거 형태인 공동 주택(아파트)의 분양 경쟁 과정에서 입주자가 각 도시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만한 요소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 당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분당의 경우 쇼핑·레저 단지와 탄천(炭川) 및 호수공원으로 활용될 분당저수지, 중앙공원 등이, 일산의 경우 정발산 및 호수 공원 등이, 평촌의 경우 각종 공공 시설 및 교통 편의성,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이, 산본의 경우 수리산의 자연환경이 각 신도시의 매력 요소로 언급되었다. 같은 기사에서 중동 신도시의 경우, 서울-인천 간의 중간 지역이 지니는 기능상의 이점, 경인 운하 등이 언급되었다. 중산층 도시로서의 구상이 전제된 분당이나 구체적인 도시의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일산에 비해,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의 경우, 분당, 일산에 비해 기존 도시 관내에 조성되며 기존 시가지와 비교적 인접하게 연결되는 신시가지, 택지 지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사업 대상지 안팎의 매력 요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강조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동 신도시의 경인 운하는 이러한 점에서 종래에 제기되어 왔던 사업의 필요성에 더해, 신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성격이 새롭게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지에 입지한 신도시가 격자형 가로망을 갖추게 됨에 따라,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도시 경관과 관련하여, 운하는 도시의 경관을 일신할 만한 요소로 주목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1991년 입안된 「부천 중동지구 도시설계(안)」에는 도시 설계 목표 및 과제로서 이러한 도시 환경을 고려하여 고유성을 갖추고, 장소성 및 식별성을 제고하는 도시 경관 요소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 공공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CIP와 함께, 경인 운하의 건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주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 신도시의 택지 조성 과정에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면을 성토함에 따라, 오히려 주변 저지대 지역에서 홍수에 대해 더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경인 운하의 기초가 될 방수로 공사를 시급히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⁶⁵⁾ 이는 경인 운하를 지역의 랜드마크나 교통로 등으로 이해할 (잠재적)이주민 외에도, 중동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홍수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원주민의 의사가 역설적으로 경인 운하라는 공동의 관심사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 안팎 여러 주체들의 공동의 관심사이자 집합적 전유와 상상의 대상이었던 경인 운하 건설은, 경인아라뱃길이 2009년 착공하여 2011년 준공하기까지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는 1991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굴포천 종합 치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데 따른 것이었는데, 중동 신도시 건설 7년 차를 맞이하는 1997년까지도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당시 주민들이 시공사의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보았다는 점을 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⁶⁶⁾ 오히려 실제 사업은 굴포천의 물을 서해

64)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 「부천 중동신도시 홍보자료 송부(문서 번호: (개)30260-164)」, 1990. 9. 7. (국가기록원 소장본)

65) 「富川市 中洞신도시 주변지역 상습浸水」, 『매일경제』, 1993. 4. 16.

66) 「수도권 민원 긴급점검 중동신도시 “말뿐인 ‘운하도시’”」, 『동아일보』, 1997. 7. 5. ; 「“중동에 경인운하 통과’ 거짓홍보 아파트 분양 건설사 상대 손배소송 제기」, 『한겨레』, 1997. 9. 30.

안으로 방류하는 방수로 개설 사업(사업 기간: 1992년~1995년)을 통해 방수로를 건설하고, 경인 운하를 건설할 경우, 이를 확장하여 운하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되었고,⁶⁷⁾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 역시 수해 방지 효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⁶⁸⁾ 그러나 방수로 역시 착공이 지연되어 1993년 4월⁶⁹⁾, 1996년⁷⁰⁾으로 미루어졌고, 경인 운하는 1995년 당시 기준 2000년대에나 되어야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르렀다.⁷¹⁾

3. 고교 비평준화: 교육 환경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주목한 신도시 아파트 판매 전략

앞서 소개한 광고 「도시 위의 신도시 중동」은 15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낸 광고로, '교통', '미래', '위치', '환경'에 이어 '교육'을 중동 신도시의 매력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 면에서 중동 신도시는 "29개의 신설학교,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비평준화지역 고수 – 21세기의 인재들은 이제 중동에서 자랍니다."라는 문장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신도시 지역에서 '교육'을, 특히 비평준화를 지역의 매력 요소로 제시하는 것은 독특한 점이다. 그간에 대학 입시 등의 성과가 누적되지 않은 이상, 신도시에 신설될 학교에서 고교 비평준화는 특별한 매력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박정희 정권기 유신 체제기에, 과도한 입시 경쟁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자 개인 및 집단, 학교 운영상의 문제, 더 나아가 사교육 및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⁷²⁾

67) 「굴포川에 防水路 쌓는다」『경향신문』, 1992. 3. 28.; 「掘浦川 방수로공사 착공」『매일경제』, 1992. 12. 12.

68) 「굴포천 방수로 착공…운하건설 관심」『한겨레』, 1992. 12. 13.

69) 「인천 굴포천 방수로 4월 착공」『한겨레』, 1993. 01. 09.

70) 「京仁운하 내년 착공」『동아일보』, 1995. 01. 17.

71) 「서울~인천 뱃길 뚫린다」『한겨레』, 1995. 01. 23.; 「경인운하 민관합동 개발」『한겨레』, 1995. 12. 14.

72) 강대중, 「고교평준화제도의 전개과정」『교육비평』8, 2002, 59~60쪽.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들에서 점차 확산 적용되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정책의 전국적 확산·유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 부족, 전면적 시행이 아닌 일부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평준화 지역으로의 학생 인구 집중, 평준화 지역 내에서의 새로운 명문고의 등장, 각 지역의 교육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 입안에 따른 평준화 지역 내 고교 진학 곤란, 성공적인 평준화 구현을 위한 시설 및 교원 질 제고,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의 지도를 위한 연수 체계의 미비, 지역간 지원 수준의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도의 안착은 난맥상을 겪고 있었다.⁷³⁾ 1980년대에 이르면, 사립 학교 활성화 문제가 교육계 및 정부의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교육감 권한 하에 고교평준화 지역 조정 문제를 처리하고, 평준화 적용 지역 내에서도 교육감 지정 학교의 경우, 학군 내 학교별 입시를 치르거나, 원치 않을 경우 연합 고사 합격자 중 학생 배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1988년,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⁷⁴⁾ 여기에 당시 사회적으로는 고교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을 낮춘다는 비판이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는 현상⁷⁵⁾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0년에 이르면, 서울 및 5개 직할시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관할 교육감이 지역 주민 여론을 바탕으로 고교평준화 제도 해제 및 고교 입시 부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⁷⁶⁾

73) 강대중, 같은 논문, 64~68쪽.; 박미자·이윤미, 「1990년대 이후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의 전개와 변용: 평준화 재도입 운동을 중심으로」『교육사상연구』34(3), 2020, 33~34쪽.

74) 강대중, 같은 논문, 68~69쪽.

75) 「고교 평준화 해제 건의」『조선일보』, 1992. 7. 5. 해당 기사는 분당 신도시가 입지하고 있던 성남시의 사례이다.

76) 「高校경쟁入試 서울제외 부활」『동아일보』, 1990. 4. 6.

제도 적용 차원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와 그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선과 함께 1990년대 초, 고교평준화 정책은 이렇듯 쉽게 안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동 신도시 광고는 바로 이 같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른바 ‘명문고’가 강남 일대로 이전하면서 신시가지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자극했던 것과는 달리, 중동 신도시에서는 명문고를 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중동 신도시 내부의 교육 환경만으로는 비평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크게 예상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이 광고는 부천고등학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부천고등학교는 중동 신도시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경인선 철로 이남 지역에 위치한 학교이다. 1992학년도 대학입학시험과 관련된 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 부천고등학교는 서울의 유명 고등학교들보다도 서울대학교 입시 성과가 높은 학교였으며,⁷⁷⁾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입시 성과가 우수한 학교로 소개되었으며,⁷⁸⁾ 부천고는 중동 신도시에 신설될 학교들의 모델처럼 인식되기도 하였다.⁷⁹⁾ 이는 도시 내 신시가지 형성⁸⁰⁾이라는 중동 신도시의 성격 및 건설 목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있는 지역 명문고로의 진학 가능성⁸¹⁾ 그리고 지역 명문고를 통한 대학 입시의 성공 조건으로 표상되었던 비평준화 문제가 결합하면서 중동 신도시는 신시가지 내에는 당장에 명문 학교가 없더라도, 부천고등학교를 위시한 지역 내 명문고 입학과 관련하여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역의 비

평준화 정책을 매력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면에서 당시 비평준화를 내세운 광고는, 한편으로는 이른바 ‘입시 명문’ 학교를 통한, 기존 지역 주민의 수혜 가능성을 보존하면서도, 신규 전입 주민들을 유치하는 전략으로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 안팎의 학부모 계층의 욕망과, 1990년 11월부터 1기 신도시 전 지역이 동시 분양을 개시하는 상황⁸²⁾에서 중동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성과를 내고자 하는 건설사의 욕망이 결합; 중동 신도시를 최초 계획 단계에서는 상상하지 않았던, 대학 입시가 수월한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V. 나가며

1990년대에 1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건설된 중동 신도시는, 도시 형성사의 차원에서 볼 때, 베드타운이라는 현상적 의미 그 이상의 성격을 지닌다. 우선 1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을 의도하고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서울은 사방이 그린벨트로 위요(圍繞)되어, 공간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도시였으나,⁸³⁾ 도시 과밀화 및 과대화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그에 따라 생활 여건이 악화되자 이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1기 신도시가 기획되었다.⁸⁴⁾ 서울의 영역을 넘어, 서울의 생활권으로서의 수도권 내에서 생활 공간을 확장·광역화하는 차원도 있었지만, 동시에 서울의 영토 밖으로 문제를 확산·회석하는 성격으로서 1기 신도시가 기획된 면도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인구학적·공간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성격 등이 결합하고, 각 도시의 자족성을 추구하려는 구상들이 합쳐지면서 각각의 신도시가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동 신도시의 형성 배경은 역시 거칠게는 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77) 「3백10점이상 낙방 7백13명 공식집계」『조선일보』, 1991. 12. 31.

78) 「'92 전기 대입시 특수고 “강세” 명문대 어느 고교서 얼마나…」『경향신문』, 1992. 1. 11.

79) 「富川 中洞 부천 중동, 과연 어떤 신도시인가?」『매일경제』, 1990. 6. 28.

80) 손장권 외, 『신도시의 형성』, 백산서당, 2003.

81) 1990년 당시 현행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46호, 1989. 11. 23. 일부 개정 및 시행) 제112조 6 항의 ①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 시험 응시자는 자신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시도 교육장에게 지원하여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82) 「부동산이야기 <40> 신도시 對抗戰」『매일경제』, 1990. 7. 31.

83) 김백영, 「1990년대 수도권 형성과 한국 도시성의 전환」『사회와 역사』127, 2020, 219~254쪽.

84) 손장권, 앞의 책.

여기에 노태우 정권기 당시 주택난과 각 개인 및 가정의 주거 위기, 사회적 불만 및 갈등의 표출 양상, 그리고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위기를 체감한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과 실시 과정에서 형성된 대규모의 주택 시장 등은 본래의 구상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이 신도시로 모여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주체는 거칠게나마, 서민, 노동자, 중산층 등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적 입지, 그리고 부천시의 원주민과 (잠재적)이주민 등을 포함한 대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신도시에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각 주체들의 서로 다른 열망이 교차하는가 하면, 원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홍수 방지, 산업용수 및 산업 교통로 확보 등과 관련된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경인 운하 건설이 하나의 상품이기도 한 신도시의 분양 경쟁 속에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새로이 전유되고 상상되기도 하였다. 또한 원주민과 이주민 공동의 관심사 중 하나인 교육 환경과 관련,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열망이 5개 신도시 아파트 동시 분양 개시에 따른 건설사들의 분양 유치 경쟁 속에서 조명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동 신도시 건설 초기에 나타난 이슈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은 부천시라는 행정구역이자 영토 내부에 있는 행위자들을 통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도시계획 구상과 실천을 둘러싸고, 기존의 지역 내 행위 주체들(부천 지역 원주민, 지방자치단체)과 신도시 건설에 관계된, 지역 외부의 주체들(소비자 및 잠재적 이주자로서의 외부 지역 주민, 중앙정부, 건설사)의 상이한 욕망들이 교차하며 얹히고 설키는 과정에서 중동 신도시가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로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서 소개한 중동 신도시 건설의 이슈들은, 수도권 광역화 과정에서 신도시가 서울 및 모도시 사이에서 갖는 연결성, 실존의 문제이자 정치 의제화·자본화의 대상으로서의 인구의

이동과 정착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모도시와 관련된 지역 현안이 지역 안팎의 행위 주체들에 의해 지속, 전유, 조명되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동 신도시의 발생학적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 연구는 보다 면밀한 검토, 그리고 대상 시기 및 사례에 대한 확장 연구를 통해 1기 신도시의 특성이나 1990년대 한국 도시화 과정의 특성을 논의할 수 있는 시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량 한계로 인해 이는 향후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계획안

- 『건설부 고시 제193호』, 『관보』, 1989. 4. 29.
- 『건설부 고시 제50호』, 『관보』, 1990. 2. 24.
- 『건설부 고시 제407호』, 『관보』, 1990. 7. 11.
- 『건설부 고시 제809호』, 『관보』, 1990. 11. 27.
- 부천시, 『부천 중동지구 도시설계(안)』, 1991. 11.

공문

- 건설부, 「부천중동지구내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회신(문서 번호: 신탁-58425-94)」(국가기록원 소장본), 1994. 4. 4.
- 부천시, 「부천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택공급규칙 개정건의」(문서 번호: (개)30260-770) (국가기록원 소장본), 1990. 9. 7.
-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 「부천 중동신도시 홍보자료 송부(문서 번호: (개)30260-164)」(국가기록원 소장본), 1990. 9. 7.

신문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조선일보』

『한겨례』

단행본

공보처, 『第6共和國實錄: 墾泰愚大統領政府5年』 제3권, 1992.

국토개발연구원, 『국토 50년: 21세기를 향한 회고와 전망』, 서울프레스, 1996.

손장권 외, 『신도시의 형성』, 백산서당, 2003.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5』, 한울, 2003.

한국토지공사, 『분당신도시 개발사』, 1997.

보고서

건설부,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실시 설계 및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서」, 1991.

국토해양부 및 국토연구원, 「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2012.

연설문

「근로자주택건설 기공식 연설」, 노태우 대통령 연설문, 1990. 3. 22.

논문

김명수, 「한국 주거문제의 구조적 기원(1970~1985)」, 『공간과 사회』 28(2), 2018, 158~205쪽.

김백영, 「1990년대 수도권 형성과 한국 도시성의 전환」, 『사회와 역사』 127, 2020, 219~254쪽.

강대중, 「고교평준화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 8, 2002, 56~74쪽.

박미자·이윤미, 「1990년대 이후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의 전개와 변용: 평준화 재도입 운동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4(3), 2020, 27~54쪽.

백욱인,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동향과 전망』 6, 1989, 189~201쪽.

유창호, 「굴포천 개착과 '경인운하' 계획」, 『인천학연구』 29, 2018, 155~209쪽.

유형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 울산지역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1987-2010」, 서울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이은지, 「한국에서 주택 담론의 역사적 변화 : 1970~200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내집마련' 담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최윤정,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주택문제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 1990, 131~167쪽.

하성규, 배문호,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정책과 주택정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4), 2004, 96~120쪽.

Amin, A. "Regions unbound: towards a new politics of place,"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86, No.1, 2004, pp.33-44.

Allen, J., Charlesworth, J., Cochrane, A., Court, G., Henry, N., Massey, D., & Sarre, P., *Rethinking the Region: Spaces of Neo-Liberalism*. London: Routledge, 1998.

Amin, A., Massey, D., & Thrift, N., "Regions, democracy and the geography of power." *Soundings*, Vol.25, No.25, 2003, pp.57~70.

MacLeod, G. & Jones, M., "Territorial, Scalar, Networked, Connected: In What Sense a 'Regional World'?", *Regional Studies*, Vol.41, No.9, 2007, pp.1177~1191.

Painter, J., "Territory-network."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Chicago, 2006.

부천 시승격 50주년 부천시 교육의 변화와 학교 연계 박물관교육 방안

전정희¹⁾

I. 서론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의 기술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하였다. 하지만 21세기의
장 강력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끈 것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
이다. 코로나와 유사한 중세 흑사병은 유럽 인구 1/3의 감소에 따른 노
동력 가치 상승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불러왔고, 인간 중심적 사고가 발
전하는 계기가 되어 르네상스와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근대의 시작을 여
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유사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는 지구온난화
에 따른 기후 위기, 감염병 위험, 식량 위기 등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
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전환, 탄소중립 등 공동의 과
제를 안고 있다.

목차

-
- I. 서론
 - II. 부천지역 교육의 변천
 - III. 박물관의 역사와 부천시 박물관 현황
 - IV. 박물관 교육의 문제와 학교 연계 박물관교육 방안
 - V. 결론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
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교육 분야에서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
양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협업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패러다
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먼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한 부천시 교육의 변천 과정과 시대

1) 김포장기중학교 수석교사 (前 부천심원중학교 수석교사)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부천교육 목표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부천교육의 지난 의미를 돌아보고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 부천 교육의 도약을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주도성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교 교육과 연계한 박물관교육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천시의 교육 변천에 대한 것은 부천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된 『부천시사(副川市史)(2023)』 교육편 초중등 교육²⁾을, 부천의 박물관과 관련된 내용은 같은 책 「문화편 박물관과 도서관」을 참고하였으며,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박물관 관련 포럼에서 발표한 다수의 원고를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부천지역 교육의 변천

1. 부천교육의 변천

1) 개화기 시기

고려 시대 부천지역에는 중등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향교가 없었고, 부평향교가 부천 지역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부평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 왕명에 따라 전국 56주에 설립된 향교 중 수주(樹州)향교를 시작으로 안남도호부가 의종 19년(1165) 계산동(온수골)으로 이전됨에 따라 당시 안남향교라고 부르다가 고려시대 충선왕 2년(1310) 부평부가 되면서 부평향교로 고쳐 불렀다. 부평향교는 우리나라 향교의 전형적인 「전당후묘」의 형식을 갖추었다.³⁾ 조선시대에도 부평향교는 부천 지역 교육을 담당하였다. 개화기 이전 부천 지역 교육기관으로 부평향교, 문학향교가 있었다.

2) 본인이 집필한 원고를 부천교육의 변화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부평향교」,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sngl=Y&ccbaCp-no=2112300120000 (검색일자 : 2024년 10월 1일)

현재의 범박동, 송내동, 성곡동, 원미동에는 서당이 있었다. 부천 지역민들은 서당에서 교육 받은 후 향교에 입학하여 과거를 준비하였다. 조선 후기 사설 교육기관으로 서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설립되었으나, 부천 지역에서는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부평도호부에 서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로 기록이 소실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2)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개항기에 부천 지역은 당시 부평군 관할지역으로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다. 이 시기 설립된 근대 교육기관이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 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부천 지역의 근대학교 설립에 대한 기록은 없다. 1895년 근대 교육기관으로 소학교령이 공포되었으나, 부천에는 소학교가 없어 신교육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자제들은 인근 인천 계산 공립소학교(현 부평초등학교)와 시흥, 안산, 김포, 양천리 등의 소학교에 다녔다.

광무 3년(1899년) 9월 18일에는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 철도가 개통되고, 그와 함께 소사역(현재 부천역)이 설치되었다. 소사역의 주변에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이주했고 1908년경 이곳에 일본인들에 의해 복숭아 과수원이 생겨나면서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급격하게 이주했다.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주로 일본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심곡본동에 1922년 소사 심상소학교(현재의 부천남 초등학교)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한국인 대상의 학교는 1925년 원미동에 소사보통학교(현 부천북초등학교), 1932년 원종동에 오정 공립보통학교(현 오정초등학교)가 각각 설립되었다.

3) 광복 이후

(1) 미군정기~1950년대

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1945.9.10.~1946)

미군정 법령을 통해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적 흔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초등학교 교과목의 주당 시수를 정하는 등 교육 편제의 기본 틀을 만들어 갔다. 교육제도의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짧아 부천지역에는 새로운 교육기관이 설립되지 못하였다. 다만 1947년 5월 25일 옹진학교(현 시온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지역 사회 교육에 기여하였다.

시온고등학교는 황해도 옹진에서 옹진학교로 설립되었다. 6·25전쟁으로 남하하였다가 박태선 장로에게 인수되어, 부천군 소사읍 괴안리 일대에 건설된 신양촌 사람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1958년 재개교하였다. 1961년 에덴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62년 시온고등학교와 시온중학교로 개편하였다. 1986년 2월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현재의 위치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시온중학교는 폐교되었다.

나. 교수 요목기(1946~1954)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균등, 초등 의무교육' 등 교육제도의 법정의 원칙을 제정하여 교육 체계의 기초를 다지던 시기이다. 1949년 12월 「교육법」이 공포되어 6·3·3·4제 단선형 학제로 기틀이 확립되었다. 1950년 6월 초등학교 6년의 의무교육제가 처음 실시되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법의 제정으로 교육의 기본 방침이 확립되자, 문교부(현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6.25 전쟁 발발로 좌절되었다.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진 이후 1952년 문교부는 각계 인사가 참여한 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의 기반

을 세워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교육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시기 부천에서는 약대국민학교(현 약대초등학교), 괴안국민학교(현 부천동초등학교), 부천농업중학원(현 부천중학교), 소명여자중학교, 소명가정기술학교(현 소명여자고등학교), 부천농업중학교(현 부천공업고등학교), 동양공과기술학교, 소사공과기술학교(현 부천 대학) 등이 설립되었다.

다. 1차 교육과정 시기(1954~1963)

우리 정부가 만든 최초의 교육과정으로서 교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내적 체계가 조직되었고 생활 중심 교육과정 개념이 도입되었다. 1949년에 제정 공포된 「교육법」에 의해 1952년 부천 교육구 교육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교육 자치제가 5.16 군사정변으로 폐지됨에 따라 교육 행정은 부천 군수의 관할로 넘어갔다.

(2) 1960년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은 2차 교육과정(1963~1973)이 적용되는 시기로 생활 및 경험을 강조한 내용이 교육과정 내적 체계의 중요한 개념으로 반영되었다.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에서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의 총체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제3공화국(1963. 12. 17.-1972. 10. 17.) 시기 부천 지역에 새로 문을 연 학교는 소사서국민학교(현 부천서초등학교), 소사국민학교(현 소사초등학교), 오정중학교(현 부천북중학교)이다. 또한 5.16 군사정변으로 폐지되었던 교육 자치제가 1964년 「교육법」 개정으로 시행되었다. 1964년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다시 발족하고 경기도교육청에 홍낙선 초대 교육감이 취임하였고, 같은 해 부천군 교육청이 설치되었다.

(3) 1970년대

부천은 1973년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의 범위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관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유신 체제 시기 1972년부터 1980년에 부천 지역에는 새로 성주국민학교(현 성주초등학교), 부천여자중학교, 부천고등학교가 신설되었다. 1972년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직제가 개편되어 부교육감제가 시행되었다. 1973년부터 시군 교육장이 국민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 등 초등 이하의 학교만을 지휘 감독 하던 것을 중학교까지 지휘 감독하게 되었다.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천시(옹진군 포함) 교육청사가 이전하였다. 교육청사는 본래 인천시 율목동에 있었으나, 7월 1일 부천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인천시 중구 북성동으로 이전하였다.

1975년에 도교육위원회가 관리하던 중고등학교 진학생 추첨 배정 관리 업무를 1977년부터 중학교 진학 추첨, 배정 관리업무를 부천시 교육장이 관할하게 되었다. 이때 부천시 교육청은 옹진군을 통합 관할하였다.

1977년 인천에서 그리고 1979년 수원에서 고등학교 평준화와 입시 개혁이 실시된 후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부천에는 인천과 서울 지역 학생들의 전입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부천지역은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다.

(4) 1980년대(1981.3.~1988. 2.)

1980년 1월 17일 교육청사가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현 부천문화원)으로 다시 이전하였고, 1991년 3월 26일 교육자치제 실시로 경기도 부천교육청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5공화국 성립 이후 부천은 산업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각종 산업 시설과 주택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났다. 특히 중동 신도시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

가 일시에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고, 기존 학교의 학생 수도 늘어나 학교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1973년 총 13개학교(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대학교 없음)에 불과했다.

(5) 1990년대

가. 문민정부(1993~1997)

부천교육청은 1994년 옹진군(대부면) 안산시로 이관되었다가, 1995년 12월 8일 현 위치(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9)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도단위 지방교육 자치제가 실시되었고, 1993년 초대 민선교육감으로 한환 교육감이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시대 부천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및 고등학교 설립의 준칙주의(準則主義)를 시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예술계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부천 지역에서는 1993년 부천정보산업고, 1994년 경기 국제통상고(구 부명 정보산업고)가 개교하였다.

1996년 8월 10일에 발표된 제3차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지방 교육 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 학예 지원의 일반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록 하는 교육 지원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교육의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경기도교육청의 산하기관 역할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교육 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천교육청의 독립적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1998년 일반계 고등학교 고교평준화 배정 추첨제도가 실시되었으나, 부천지역은 비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게 되었다. 관내 부천고등학교와 부천여자고등학교가 명문고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 부천 인근 평준화 지역 학생의 전입이 이어졌다.

나. 6공화국

1기 신도시 정책에 의해 중동 신도시가 형성되었다. 부천의 기존 신시 가지의 미개발지를 활용하여 신·구도시의 연계를 꾀하였다. 중동 신도시는 기존 시가지의 미개발지에 조성되어 좁은 구역에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아파트 배치가 빽빽하고 계획 인구밀도를 높게 잡았다. 이에 따라 중동 신도시 지역에 중흥초등학교, 계남중학교, 계남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신설 학교가 연이어 개교하였다.

(6) 2000년대

가. 국민의 정부(1998~2003)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부터 맞게 된 외환위기로 IMF 관리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로 남북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여 남북한 간의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은 21세기로 넘어간 세기 전환의 시기로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였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에 따라 세계화 시대, 지구촌 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식 정보가 삶의 질을 규정하며, 이를 반영한 개인의 창의성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해졌다.

지식 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교육 체제의 목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만드는 것이었다.

2002년부터 부천에서도 고등학교 비평준화 정책이 폐지되고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2013년에는 126개 학교(초등학교 62개 교, 중학교 32개

교, 고등학교 28개 교, 대학 4개 교)로 늘었다. 특수학교는 2개 교,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학교는 3개 교가 개교하였다.

나. 2003년~2012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경기도의 인구는 2001년 12월 말 9,612,036명에 달하였다. 부천시에서는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해마다 인구가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도시지역의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이중적 과제가 부여되었다.

1990년대 초에 부천 상동지구는 먼저 개발된 중동 신도시의 연장선상에서 1999년 착공돼 2000년대 초반까지 개발됐다. 상동 신도시 지역에는 상일초등학교, 석천중학교 및 상동고등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을 요구하는 교육 공동체의 꾸준한 기대와 요구가 제기되었다. 2003년 이러한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21세기 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예술 인재 육성을 목표로 경기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2010년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은 창의지성교육과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경기도 내 혁신학교를 설립하였다. 혁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 자치와 마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부천지역에서는 교사 공동체의 학교 혁신에 대한 요구로 공동체의 협의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부인중학교를 시작으로 부천 동여자중학교, 부일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이후 소명여자중학교, 내동중학교 등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교육의 새바람을 일

으키는 동인(動因)이 되었다.

다. 2013년 ~ 2022년

경기교육에서 이 시기는 지난 100년의 변화에 버금가는 교육 혁신의 새 바람을 일으킨 유의미한 10년으로 불린다. 김상곤 교육감 취임과 함께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교육 운동으로 창의지성교육과 배움 중심 수업 철학을 기치로 내세운 경기교육은 교사의 자발적 수업 모임에서 출발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공동체에서 혁신학교로 발전해 가는, 아래에서부터의 교육개혁의 움직임을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지역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협력 체제하에서 참된 학력, 자기 생각을 만드는 배움중심 수업철학을 공유해 나갔다.

국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여건을 반영한 지역교육과정인 ‘경기도교육과정’을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배움으로 협력하고 성장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갔다.

경기도교육청 교과별 연구회를 비롯해 독서 토론헌구회, 수업 성장 연구회, 다문화 연구회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사의 연구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전문적 공동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2년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를 통해 구성된 경기도 수석교사회는 토의토론, 모둠 협력수업, 논술형 평가, 자유학기제 등에 따른 현장 연수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였다.

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방향과 교육철학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기교육의 성과에 힘입어 부천교육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동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교육 목표와 세부 지표를 세워 부

천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다.

부천은 인천광역시와 서울을 잇는 수도권 중소도시로 부천의 기존 시 가지에 중동 신도시와 상동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꾸준히 신설 학교가 설립되고 학령인구가 늘어났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와 학령 인구 급감으로 초등학교부터 학급수가 감축되고 있다. 특히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학급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배정 방식이 공동학군제로 바뀌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내 모든 중학교가 선도학교로 참여하여 꿈과 끼를 살리는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목적고 진학으로 우수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로 일반고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모든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과 중점학교를 운영하였다.

경기교육의 방향에 발맞춰 부천교육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경기 꿈의 대학, 주문형 강좌, 교육과정 클러스터, 교과중점학교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마을 전체가 아이를 기른다는 취지에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 공동체가 부천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천에 대한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부천 시승격 50년 문화교육도시 부천

1) 부천교육 미래와 도약

부천시는 서울의 인구 분산과 산업 기능 분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부천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하면서 발전과 성장을 해왔다.

학생, 학교, 마을이 함께 만드는 행복 부천교육을 비전으로 토론 교육 활성화, 기후 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부천교육 중점활동으로 부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2021년 부천 혁신교육지구 시즌3⁴⁾의 출범과 함께 부천시 미래 교육센터의 구축 운영을 통해 교육 협력 및 지원, 학교(혁신학교), 학생(청소년) 자치, 마을(기관, 활동가)을 주축으로 교육자치 역량 강화, 학생 생활 영역에 기반한 교육거버넌스, 체험처(마을학교) 발굴,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교육생태계 형성지원, 공동개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마을 교사 배움터 운영 및 마을 교사 인력풀 구축, 지역 문제 및 의제 중심 토론, 교육 공동체 토론 교육 역량 프로그램 확대, 부천 아트밸리 문화 예술기관 협업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와 마을이 연대하는 마을 학교 확대 등 부천 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2년 제18대 임태희 교육감 시대의 출범과 함께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 교육공동체가 함께 열어가는 부천교육’을 교육지표로 질문하는 학생, 상상을 실현하는 교육공동체, 미래를 여는 배움, 즐겁고 안전한 학교, 학교중심 지원 행정을 교육목표로 유네스코 창의문화도시에서 문화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다.

2025년 목표로 개교할 옥길새길중학교(가칭)⁵⁾는 토의토론, 논술형 평가 확대, IB 교육과정 도입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의 중등교육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된다.

4) 2021년 경기도교육청과 부천시의 업무 협약으로 부천시가 교육혁신 지구로 지정되었다. 관내 초, 중, 고, 특수, 평교 130교(초 64교, 중 33교, 고 28교, 특수 2교, 평생교육시설 3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5) 「부천교육지원청, 6년제 중·고 통합 운영에 관한 ‘부천 미래학교 교육과정’ 논의」『기호일보』, 2022. 9. 22.

2) 부천교육의 교육지표 변화

연도	교육지표	교육목표
2018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행복부천교육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 교실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한 학교 •학교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 심화 •교육행정 혁신
2019	학생이 주도하는 행복한 부천 교육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교실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하는 학생 •즐거운 학교 •상상이 넘치는 마을 •공감하는 지원행정
2020	학생, 학교, 마을이 함께 만드는 행복부천교육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교실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하는 학생 •즐거운 학교 •상상이 넘치는 마을 •공감하는 지원행정
2021 ~2023	학생, 학교, 마을이 함께 만드는 행복 부천교육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하는 학생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상상이 넘치는 마을 •공감과 소통의 지원 행정
2024	교육공동체가 함께 열어가는 부천교육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하는 학생 •상상을 실현하는 공동체 •미래를 여는 배움 •즐겁고 안전한 학교 •학교중심 지원 행정

III. 박물관의 역사와 부천시 박물관 현황

1. 2022 개정교육과정과 미래교육

인공지능, 디지털 혁명의 시대 학교 교육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에 역할을 넘어 창의력, 비판적 사고, 협업 등의 역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 전반의 변화 중 특히 교육 분야는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학습이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교육 방식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 동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 목

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의 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창의성,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2025년 중1, 고1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주도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수업 설계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수업 설계

-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하는 수업 설계

-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한 수업을 설계하여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수업 설계

- 교과 탐구 방법을 스스로 익히고 과정과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 설계⁶⁾

2. 미래 사회의 학교교육과 박물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대안적 교육자원으로 박물관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자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지식 학습과는 다른 차원의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학

교와 연계한 박물관교육은 학생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돋는다. 박물관은 단순 전시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교과지식을 확장하여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물관은 중요한 교육적 자원으로서 학교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안 역사교육과 학교 밖 박물관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박물관의 역사, 부천지역 박물관의 현황, 학교교육 연계 박물관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

1883년 미국을 거쳐 유럽을 둘러본 유길준은 『서유견문』(1885년)에서 'museum'을 박물관으로 번역하고 "천하 각국의 고금 물산을 그 대소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부 수집하여 사람의 견문과 지식을 넓히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유길준은 1881년 일본 게이오의숙에서 공부하면서 일본 근대 사상가 후쿠자와 유기치(1834~1901)의 영향을 받아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의 박물관은 일본의 박물관 개념이 식민지에 적용된 제실 박물관(1911년 이후 이왕기박물관으로 개칭)이 개관된 창경원(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일반에 공개. 조선 왕궁으로서의 맥락을 없애고 관광명소로 만듦)이다.

조선물산공진회(1915. 9. 11.~10. 31.)라는 박람회 부산물로 1915년 12월 1일에 개관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박람회가 끝난 뒤 조선물산공진회 미술 본관을 박물관 본관으로 하고 경복궁 내 균정전, 사정전, 수정전, 자경전을 부속 진열공간 또는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였다. 그 아래 경주분

6) 김현우 외, 『키워드로 잡는 2022 개정교육과정』, 하음출판사, 2023, 112쪽.

관(1926년 개관), 부여분관(1939년 개관)을 두고 관변적인 경주고적보존회와 부여고적보존회가 그 분관을 운영하고 이 분관들은 일본 고대사와의 긴밀성을 크게 강조하여 동화와 내선일체의 역사 문화적 명분을 표상하는 공간이 되었다.

광복 후 친일 청산 실패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박물관(colonial museum)도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제대로 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고고미술이라는 근대 식민지의 역사적 유산은 광복 후 민족주의 대세 속에서 한국 국립 박물관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⁷⁾ 현대에 이르러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전국에 국공립박물관,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이 크게 늘었으나 박물관의 분포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⁸⁾

2) 부천시 박물관과 기념관 현황

(1) 부천시립박물관

부천시는 2021년 기준 박물관들을 부천옹기박물관 뒤편에 신관인 통합관을 짓어 이전하여 ‘부천시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2011년에 개관한 부천옹기박물관에 부천종합운동장 내에 있던 부천교육박물관, 유럽자기 박물관, 부천수석박물관을 옮겨서 통합한 것이다. 주요 전시는 점필재 옹기터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옹기실, 부천 선사 및 통일신라시대, 조선 분묘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한 부천향토역사관, 개인 소장유물 기증으로 삼국시대부터 오늘날 교육의 변천 과정을 볼 수 있는 유물과 전시로 구성된 교육전시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도자기 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유럽자기전시실, 부천의 원로 수석인의 소장품 기증품을 전시한 수석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2) 부천활박물관

우리나라 전통 활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 부천종합운동장의 입구에 개관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 시장 고(故) 김장환 선생(1909~1984)의 국궁 관련 유품 240점을 비롯하여 약 500여 점의 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활과 관련된 도구와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고 국궁 제작 및 궁도의 명맥을 잇는 전문박물관으로 자리 잡았다.

(3) 부천펄벅기념관

소설 『대지』로 유명한 여류작가 펄 벅(1892~1973)이 인권운동가로서 혼혈 아동들을 위해 펄벅재단 한국지부를 설립하였다. 1967년 소사회망원을 세워 전쟁고아와 혼혈 아동 2,000여 명을 돌보며 복지활동을 펼쳤다. 2006년 부천시는 펄 벅의 고귀한 인간 존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옛 소사회망원 자리에 그의 생애와 활동을 보여주는 전시물을 구성하여 부천 펄벅기념관을 개관하였다.

(4) 수주문화관과 고강선사유적체험관

2022년 부천시는 고강동 수주 도서관 내에 수주문화관과 고강선사유적 체험관을 개관하였다. 수주문화관은 한국 근대문학을 개척한 수주 변영로 시인의 문학정신과 작품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문화공간으로 2017년 ‘유네스코 문학창의 도시’ 선정에 즈음하여 부천이 지닌 문화자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관하였다.

고강선사유적체험관은 1995년 부천 고강동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

7) 최석영, 『한국박물관 역사와 전망』, 민속원, 2012.

8)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국 박물관은 국공립 박물관 421, 사립 박물관 355, 대학박물관 109 합해서 885개로 그중 42.48%(376개)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다.

적지를 바탕으로 빨굴 당시 모습과 옛 고리울 마을을 재현한 공간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유물 빨굴 체험과 웜집 생활과 당시 제례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역사체험형 전시공간이다.

(5) 부천자연생태박물관

부천시는 부천자연생태공원 내에 2000년 자연생태박물관을 개관하였다. 도시에서 보기 힘든 생물도감 속 곤충과 민물고기 등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4개의 상설전시관, 3D영상관, 홀씨도서관, 수장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위 숲과 식물원, 무릉도원 수목원과 함께 시민들의 살아 숨 쉬는 자연학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6) 부천물박물관

2001년 물의 탄생과 소멸, 물 이용의 역사,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까치울정수장 관리본관에 개관하였다. 실내전시장은 물과 관련된 측우기, 물시계 등 30여 점의 전시물과 정수장 전경 모형도를 전시하여 수돗물의 생산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7) 한국만화박물관

2001년 개관한 최초의 만화 전문박물관이다.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중대하고 나아가 후대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물려준다는 목적으로 사라져 가는 우리 만화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전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만화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화영상 상영관, 체험 마당, 국내 최대 규모 만화도서관(31만여 장서 보유), 만화역사관, 웹툰 전시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상설전시관은 ‘만화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해방 후부터 1990년대 만화를 전시한 중요한 공간이다.⁹⁾

9) 김대중, 「박물관 및 도서관」『부천시사』3권, 부천시, 2023, 186~204쪽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IV. 박물관 교육의 문제와 학교 연계 박물관교육 방안

학교교육 연계 박물관 프로그램은 박물관 교육 담당자가 학교 교사들과 접촉을 통해 박물관을 활용하여 미술 교육이나 역사 교육 내용과 접목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학교 수업과는 달리 박물관교육은 비형식적이며 자유롭고, 질 높은 정보와 발견, 도전,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¹⁰⁾ 도록, 워크시트, 슬라이드, 비디오 매체 등 교육용 자료를 지원하거나 학교에 유물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 방법도 있고, 보다 적극적 방법으로는 박물관과 협동으로 그룹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전시를 기획하거나 단체 관람과 자유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역사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는 학교교육 연계 박물관 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1. 학교 교육과 박물관 교육의 문제점

첫째, 중학교에서의 박물관교육의 어려움 - 교육과정 중심

박물관은 학교 교과 시간에 텍스트로 평면적 접근을 한 문화유산을, 박물관 탐방을 통해 입체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지식을 낯설고 새롭게 재구성해 가는 공간으로서 학교교육의 보완적 자원의 기능을 한다. 교과서에 선별적으로 실린 문화유산 관련 자료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박물관교육은 학교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과통합이 쉬운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는 전공이 다른 교과 교사들이 학년 수업을 맡아서 교과 간 경계

10) 김은주,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방안-국립박물관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3, 8쪽.

가 뚜렷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역사 교과에 제한적으로 박물관교육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와 세계사 연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유사한 교육과정의 반복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여 역사1은 세계사 영역, 역사2는 전근대 중심의 한국사 영역과 주제 중심의 소략화된 근현대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근현대 중심인 고등학교 한국사와의 중고 연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적은 수업 시수로 한국사 전체를 가르친다는 진도 부담과 3학년 교육과정상 입시와 관련된 시기 이후 전환기 수업으로 한국사 영역의 근현대사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량 적정화를 통해 교육과정 전반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 각 시대의 문화사 부분을 소홀히 다루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역사교육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인이나 교양인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중학교 한국사 영역을 정치사 중심으로 다룬다 보면 옛 선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기회가 없어진다. 학교 역사수업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부재는 박물관교육으로의 연계를 어렵게 한다.

둘째, 학교와 박물관의 협력 체제 구성의 어려움

박물관과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양기관 간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부족하다. 이는 박물관이 학교 교육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박물관은 설립 목적에 맞는 전시와 구성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설명식 전시도슨트, 체험활동, 오디오가이드)를 제공한다. 하지만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성

인에까지 범위가 넓고 전시물에 대한 설명도 학생들 수준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학습 흥미를 저하시키고 마치 시장 돌아다니는 듯한 관람에 그친다. 또한, 전시 유물이 학교교육과정과 맥락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학교 입장에서는 박물관을, 학교라는 제한된 교육공간을 지역사회로 넓히고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물관 탐방은 교육과정에서 창의적체험활동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운영된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교육적 의미를 고려하여 전시물에 대한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활동지를 만든다. 사전 답사를 통해 여러 교과 교사들이 박물관을 찾아 전공 교과에 맞는 전시물을 찾아보거나 역사전공 교사의 경우도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경험해 보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박물관교육을 위한 활동지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교사들과 다르지 않다. 박물관 학예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박물관의 벽은 높다. 교사가 박물관교육에 대한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왜곡되거나 과장된 혹은 미디어에 의해 생산된 가짜 정보에 대한 펙트 체크가 필요한 활동지 내용도 더러 발견된다. 박물관의 설명식 전시 레이블을 바탕으로 제작된 활동지가 어떤 교육적 효과와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규모가 큰 박물관의 경우 현장 교사의 자문을 통해 박물관 활동지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지역의 박물관의 경우에는 교육청 단위 또는 자발적인 역사교과연구회 교사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의 경험이 제한되었던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한 학생) 학생들이 보이는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문해력 저하, 짧은 집중력, 텍스트보다 영상

과 이미지에 대한 높은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의 특성에 비해 박물관 전시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설명식 전시와 내용 수준의 적절성, 영상의 흥미도 정도를 고려해 본다면 박물관을 찾는 초·중학생들에게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일회적 체험학습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박물관이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초등학생의 경우 가족 단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와 연계한 직업체험이나 박물관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박물관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에서는 학교연계 박물관교육에 대해 학교와 박물관의 두 기관의 협력체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2. 학교 연계 박물관교육 수업 방안

1)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의 박물관교육

교육과정의 유연성이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교과수업을 통해서 학교연계 박물관교육이 어렵지 않게 설계 및 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학년 단위의 교과교육과정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과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2월 워크숍에서 같은 학년을 담당한 교과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교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학생 성장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인성적 가치를 학년 교육목표로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 요소를 분석하여 교과 간 통합할 수 있는 공통요소를 추출한다. 2학년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체험처와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한 사례로 교실 속 박물관 수업과 이를 교과통합으로 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한 수업 설계 템플릿은 다음과 같다.

교과통합 교육과정(3학년)

학년 목표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과 단원명	역사	영어	국어	미술	기술가정	장애
수업내용 및 방법	상국박물관 프로젝트 수업 도슨트 체험	문화재 소개 영어 포스터(시나리오 쓰기)	자신의 삶과 경험 글로 표현하기 체험학습 소감문쓰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제 표현하기 표현 결과물을 공간에 전시하기	체험학습 사진으로 학급 동영상 만들고 SNS 올리기	미술 시간 제작한 사진에 포토 앤서니이 쓰기(공동 작업) 전통제본(오침안 정통)으로 문집 묵기	자자자율
체험학습 연계	박물관 활동지 제작	우리 문화재 알리기 캠페인 활동	현장체험학습 소감문 쓰기	학급 문집 표지 디자인 포토 앤솔러리 학급 사진전	학급 ucc 제작하기	학급 만들기	학교 현장체험 학습
통합활동							

도1. 수업 설계 템플릿 예시

2)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박물관연계 역사수업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으로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¹¹⁾ 이에 따라 학교는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새롭게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 할 수 있는데 이때 지역사회 교육자원으로서 지역 박물관과 연계한 학교 연계 박물관교육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학교자율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의 학기별 1주(33시간)의 수업 시간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연계 박물관교육을 교과목(고시외과목)으로 편성하여 경직된 교육과정의 여백을 의미 있게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11) 교육부,『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2022, 29쪽.

3) 디지털시대 교실 속으로 들어온 박물관교육

2025년 중학교 1학년에 영어, 수학, 정보를 시작으로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다. 종이 교과서에 제시된 유물 관련 자료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QR코드로 인식하는 방식에서 2027년에 도입되는 역사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와 자료가 일원화되어 유물의 실재감이나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감이 크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 학생이 제작한 유물 자료를 올릴 수 있는 e-뮤지엄 나만의 유물 만들기의 경우는 박물관 전시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스마트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제작한 유물 포스터를 온라인 가상 공간에 전시하는 e-school museum(온라인 학교박물관)을 만들어보는 등 디지털시대에 맞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 박물관의 경우 제한적으로 학생들이 유물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하는데 박물관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공간에서 3D 방식으로 유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개발¹²⁾되어 유용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맞춰 교사들의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문화 유적 지도 그리기, AI를 활용한 유물 해설 도슨트 활동, VR 기기를 활용한 문화유산 탐방 등 디지털 원어민으로서의 학생들의 주도성이 발현되는 다양한 박물관 연계 문화유산 교육을 교실 속에서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교육 연계 박물관교육을 위한 제안

첫째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통합 수업

학교교육과정에서 박물관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시기는 2월 새학기 교육과정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때가 적절하다. 이때 같은 학년 교사들이 모여서 학년이 지향할 교육목표를 정하고 하위 실천 전략으로 학년에서 가장 큰 행사인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공동체가 함께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수업 시수 6시간(1일형) 또는 19시간(3일형)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여 운영되는 시간인 만큼 교육적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되도록 학급별 소규모 활동으로 운영된다면 박물관 탐방을 위한 적정 인원과 역사수업에서 사전 학습- 학생들이 누리집을 참고한 활동지 제작- 사후 소감문 쓰기(성찰)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때 박물관과 사전 학습 자료(박물관 유물 정보)에 대한 활동지 제작에 학예사의 자문을 구하고 박물관체험 이후 결과 및 만족도를 온라인 설문으로 받아 추후 수업 설계 시 반영해서 재구성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외적 조건 지원(이동수단, 입장료 등)

이때 현장체험학습이 아닌 교과수업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박물관과의 거리, 교통편 등 외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동시간도 수업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이동수단을 지역교육청과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제안해 본다. 김포의 경우 지역이 넓어 체험처까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기가 어렵다. 김포시 사례에서 김포이음버스는 이 점을 고려해서 김포시청에서 지원하는 공유버스이다. 지역교육청-학교-지역교육자원-김포시청을 연결해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부천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중학교의 경우 한 학년당 학급수가 5-6반 정도로 축소되어 소규모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어도 2-3반이 이동할 경우 부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고 도시 범위가 비교적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시간 측면에서 이동수단 지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12) Sketchfab 사이트에 신라 금관,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백제 금동대향로, 무령왕릉, 첨성대, 다보탑 등 우리나라 대표 유물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https://sketchfab.com/3d-models>)

셋째 박물관 오디오 설명 또는 도슨트 해설 시나리오 제작에 학생들의 성장 발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교사 특히 박물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역사교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전시 자문과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교육 관련 교사 설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때 박물관 전시 담당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박물관 입장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부천시의 교육자원인 박물관과 기념관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부천교육지원청 사회역사교과 연구회(사회역사과 수업나눔친구)와 부천시청, 박물관 및 기념관의 공적 기관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다.

넷째 박물관 전시를 관람할 때 설명형 전시보다 영상이 몰입도를 높인다. 그런데 박물관 현장학습에서 학생들의 밀집도가 높은 경우 시청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별도의 시청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벽걸이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의 경우 전시 관람하는 학생들과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 누리집에 전시 자료(동영상)을 탐색하고 학교에서의 사전학습 단계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의 공유를 제안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제작하는 박물관 활동지 구성에 박물관 전시 담당자의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 박물관 전시는 전시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험학습 활동지 구성을 할 때 통사적 접근이 아닌 주제적 접근으로 학교 연계 박물관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또한, 체험중심교육이 중심이 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수준을 고려한 활동지 개발을 역사교사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박물관과 교육청의 협력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의 경우 유물의 특성상 관외 반출로 이동, 안전 부담이 있으므로 복제유물 또는 사진 자료, 키트(발굴체험) 등 교수학습 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예사, 유물복원전문가

등 진로체험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예사 인터뷰 영상을 통해 우리 지역의 박물관과 학예사의 역할, 직업체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물관이 제공하는 교수학습자료를 통해 학교와 박물관이 공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알파세대 맞춤형 전시 방안을 제안한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일명 알파세대는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고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에서 능숙하게 활동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다. 반면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에 익숙하고 긴 영상의 경우 집중도도 낮고 텍스트를 읽어내는 문해력도 떨어진다. 전시물에서 이미지, 영상을 제시하는 비중을 높이고, 도슨트 설명과 함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오디오가이드, 메타버스, VR 체험 등 알파세대 맞춤형으로 다양한 전시 방법으로 제시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자기 학습 속도에 맞게 오디오가이드를 통해 선택적으로 유물과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또한, 박물관 탐험여행은 거시적 관점의 학교에서의 역사교육을 미시적 관점의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 내리티브를 구성할 때 몰입감 있는 박물관학습이 될 수 있다. 또한 PBL(문제해결학습) 방식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과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박물관교육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는 학습자 주도성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미래사회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 번째 한국의 다문화 학생 18만 명 시대¹³⁾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와 박물관교육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박물관교육의 기본적 모

1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의하면 2023년 다문화 학생 181,178명 중 초등학생 115,639명, 중학생 43,698, 고등학생 21,190명, 각종 학교 651명으로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이다. 특히 다문화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향후 학교 교육연계 박물관교육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크다.

토 중 하나는 다양한 문화적 교류인데 실제 이뤄지는 외국인 대상 박물관교육이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알고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타문화와 우리 문화의 만남, 즉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소통과 교류¹⁴⁾를 통해 이해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서아시아관이나 기증 유물관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 다문화 학생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쌍방향적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 중학교 역사1 교과서 구성이 세계 전근대와 근현대사로 이뤄져 역사교과 연계 박물관 교육이 중학교 역사2 한국사 영역에 치우친 면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과 연계한 박물관교육에 대한 연구가 세계사 영역 수업에서도 구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결론

부천 시승격 50주년 이후 새로운 부천시의 미래와 백년지대계로서의 부천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부천교육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부천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의 변화와 2025년부터 도입을 앞두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자 주도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위해 학교교육과 연계한 박물관교육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역사회 자원으로서의 부천시박물관과 학교교육이 어떻게 협력체제를 구축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학교에서 보는 박물관교육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혁명이라는 격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교육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한 박물관교육이 그 실마리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기호일보』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2022.
김대중, 「박물관 및 도서관」『부천시사』 3권, 부천시, 2023, 186~204쪽.
김대중, 부천과 박물관 제1호 부천시립박물관의 탄생과 전시 콘텐츠, 2023
김은주,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방안- 국립박물관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김현우 외, 『키워드로 잡는 2022 개정교육과정』, 하움출판사, 2023.
백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2005.
최석영, 『한국박물관 역사와 전망』, 민속원, 201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 부평향교,
https://www.heritage.go.kr/heri/unified/renewUnifiedList.do?query=%EB%B6%80%ED%8F%89%ED%96%A5%EA%B5%90&home=total&subHome=0&type2=00&sort=2&shapes=50&searchField=d&pageIndex=1&paging_shape=&pageNo=1_1_1 (검색일자 : 2024년 10월 1일)

14) 김은주, 앞의 논문, 48쪽.

부천과 박물관

BUCHEON &
MUSEUMS

연구 논문

인천시립박물관의 전시가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기까지

김래영

인천시립박물관의 전시가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기까지

김래영¹⁾

I. 박물관은 전시로 말한다

전시는 박물관의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교육, 수집, 보관 등의 모든 활동이 전시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박물관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전시’라는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전시는 ‘유물을 진열장에 올려놓기만 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해당 박물관이 가지는 정체성, 사명,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전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적합한 유물을 선별한 후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박물관은 자신들의 설립 근거가 되는 박물관의 존재 의의, 역할, 기능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박물관이 나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역 박물관은 지역 사회와 지역民眾에게 박물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를 끊임 없이 고민해야만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윤을 낼 수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인 박물관은 결국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시는 박물관의 기본적인 활동이면서 한편으로는 박물관이 지역 사회에 갖는 사회적·문화적 위상과 박물관의 존재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목차

- I. 박물관은 전시로 말한다
- II. 최초의 공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이 걸어온 길
- III. 전시를 통해 본 인천시립박물관의 사명(使命)
- IV. 인천뮤지엄파크 시대로, 최초를 넘어 최고를 꿈꾸다

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 학예연구사

이런 측면에서 개관 후 지금까지 여러 전시를 개최하면서 박물관의 사명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구축한 인천시립박물관의 사례는 타지역 박물관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립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한 시기인 1946년에 지역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박물관으로서 한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4번의 이전, 신축, 중축 등을 거치면서 박물관 직원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 끝에 인천을 대표하는 박물관이자 지역의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개관 후 지금까지 현실적 한계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천시립박물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박물관의 역사와 전시의 변천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최초의 공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이 걸어온 길

1. 세창양행 사택 시대(1946.4.1. ~ 1950.6.27.)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인천향토관의 문화유산 처리 문제로 고민하던 미군정은 독일계 무역상사인 세창양행 사택 건물에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립박물관의 초대 박물관장인 이경성 관장의 기록에 의하면 1945년 9월에 미군정관 흄펠 중위와 젊은 통역관 최원영이 찾아와 인천에 향토관이 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하여 박물관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박물관 건립을 수락한 이경성 관장은 1945년 10월 31일 인천시장실에서 정식으로 인천시립박물관장 발령을 받았다. 개관날짜는 4월 1일로 정하고 개관 준비에 착수한 당시 28세의 젊은 미술학도였던 이경성은 일제에 의해 흩어져 있던 여러 자료를 수습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인천향토관의 유물을 인수하였다. 이곳에는 러일전쟁의 제물포 해전에서 침몰한 바리야크함의 깃발을 비롯해 전리품으로 수집한 것들과

그림, 자기 등의 고미술품이 있었다. 당시 향토관에서 인수한 유물의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으나 대략 30여 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토관의 소장품 외에도 일본인들이 인천에 남겨둔 적산 물품도 수집하였다. 대표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수집했지만 본국으로 가져가지 못한 맘모스 상아가 1946년 3월 19일 인천경찰서에서 시립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²⁾



도1. 일본인 적산품(맘모스 상아)



도2. 인천향토관 소장품(바리야크함 대군함기)

박물관 개관을 위해 소장품을 수집하던 이경성 관장은 당시 국립박물관 김재원 관장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산곡동과 부평동 일대에 설립된 일본육군의 무기공장인 일본육군인천조병창에서 무기 제조를 위해 우리나라 전역과 중국에서 강제로 공출해 온 금속제 문화재가 다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경성 관장은 미군정의 협조를 받아 조병창으로 가서 중국에서 온 향로, 범종, 불상, 대포, 상평통보 엽전 등을 미군 트럭에싣고 왔다.

1946년 3월, 인천 미군정청 문화교육담당관 흄펠 중위의 안내로 부평 조병창 자리에 갔든 것이다. 문자 그대로 고철의 산이 여기저기에 이루어지고 큰 철종이 몇 개 땅에 뒹굴고 옛 중국대포등이 미국으로 가지고 갈려고 포장된 것도 있

2) 「괴수백치(怪獸白齒) 박물관행」『대중일보』, 1946. 3. 22.

었다. 나는 인천박물관으로 가지고 갈 중국미술품을 골라서 여기저기 헤맸다. 어느 창고에 들어가니 한국 내에서 빼온 유기류가 가득 차 있었다. 또 산과 같은 엽전의 무더기에서는 일부를 써서 은전만을 골라내기도 하였다. 너무 욕심을 낼 수도 없어 나는 중국종 3점과 수형대포 1기, 불상 1구, 청동대향로 2점, 그리고 말굽 등을 골라냈다.³⁾



도3. 이경성 관장이 조병창에서 수습한 중국 철제 유물들(청동관음보살좌상, 명대철 제도종, 청동향로)

빈약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보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1890년에 세창양행 직원들의 숙소로 세워진 사택을 박물관 기능을 갖춘 건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였다. 당초 거주 용도로 지어진 이 건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망으로 적산(敵產)이 되었다가 인천부가 1922년 경매로 구입하여 인천부립도서관으로 사용되었고 1942년 이후에는 인천향토관으로 활용되면서 건물의 용도가 계속해서 바뀌었다. 56년의 세월이 깃든 낡은 건물, 열악한 재정 환경, 전란 후의 건축 자재 수급의 문제 등 박물관의 개관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이경성 관장은 박물관을 수리하기 위해 목재, 페인트, 못 등의 모든

재료를 인천에 있는 여러 공장에서 실어 왔다고 한다. 홈펠 중위와 지프 차를 타고 적산이 된 조선기계제작소, 인천제정 등의 창고를 뒤져서 건물 수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왔고, 직접 낡은 마루를 고치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46년 4월 1일 인천시립박물관은 수집된 소장품 364 점을 바탕으로 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4월 1일 11시, 세창양행 사택을 개조한 시립박물관의 개관식에는 임홍재 인천시장, 길영희 인천중학교 교장, 황광수 인천시 교육감, 미군정 스텔만 중령과 홈펠 중위 등 지역의 문화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식전 행사로 박문여고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고 개관식이 끝난 뒤에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당시 박물관은 6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었다. 각 전시실은 시기와 종류별로 유물을 전시해 놓았는데, 제1호실에는 금속 유물, 제2호실~제4호실에는 도자기, 제5호실에는 토기와 기와, 제6호실에는 러일전쟁과 청일전쟁 관련 유물을 전시하였다.



도4. 세창양행 사택 시대의 박물관



도5. 구입유물(이순신 장군 포진도)

그러나 박물관은 개관한 지 4개월 만인 8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건물의 수리 관계로 임시 휴관을 하였다. 이 기간에 이경성 관장은 부족한 소장품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서울 국립박물관으로부터 삼국시대의 토기 19점, 국립민족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자기 70여 점을 빌려왔다. 또 국립민족박물관 송석하관장에게 가면극에 사용하던 탈 15점과 서울의 골동품 상인인 장석구가 기증한 겹재의 「팔경도」를 비롯

3) 이경성,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중국미술품들」, 『기전문학연구』, 1973년.

하여 고려자기 300점을 대여하였다.⁴⁾ 10월 10일 재개관 이후에도 「이순신 장군 포진도」를 비롯해 기증, 구입, 수집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소장품을 확충해 갔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6월 27일부터 박물관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모은 소장품을 박물관 인근에 위치했던 시장관사의 방공호로 옮겼으나 이곳이 폐쇄되자, 박물관 직원의 친척이 사는 송림동의 창고로 다시 옮겨 보관하였다. 국립박물관과 국립민족박물관에서 빌려 온 유물은 이경성 관장이 직접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국립박물관 임시 사무실에 안전하게 전달하였다. 천만다행으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박물관의 소장품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

2. 제물포구락부 시대(1953.4.1. ~ 1990.1.1.)

전쟁 발발 후 약 2년 10개월 동안의 휴관을 끝내고 박물관도 재개관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존에 박물관 건물로 사용하던 세창양행 사택이 인천상류작전의 폭격으로 소실되어 박물관 건물을 대체할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창양행 사택 인근에는 러시아 건축가 사바린이 설계한 2층 규모의 제물포구락부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곳이 박물관의 새로운 건물로 낙점이 되었다. 제물포구락부는 1901년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교클럽으로 사용되다가 1914년 인천에 조계가 철폐됨에 따라 일본 재향군인회관이 들어섰고 1934년에는 부인회관으로 이용되었다. 해방 후에는 미군 장교클럽으로 사용하다 1953년부터는 인천시립박물관의 건물이 되었던 것이다.

세창양행 사택에 이어 제물포구락부에 새롭게 등지를 튼 인천시립박물관은 복관식을 개관일 날짜에 맞춰 1953년 4월 1일에 거행하였다. 재개관

과 함께 기획전인 「제1회 고미술전」을 개최하였고, 20일 동안 복관기념 무료 관람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주고자 노력하였다. 또 시립도서관에 임시 보관 중이던 소장품을 다시 옮겨왔으며 세창양행 사택 야외에 아직 남아있던 중국 범종과 수형대포를 새로운 박물관 건물로 이전하였다.



도6. 복관 기념식(1953.4.1.)



도7. 제물포구락부 시대의 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은 1953년 복관 후부터 1968년까지 전시, 연구, 소장품 수집 등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박물관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선사시대 돌칼과 돌화살촉, 고서화, 조선시대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구입과 기증을 통해 박물관의 소장품을 늘려나가기 시작하였다. 연구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용현동 소재 고분 및 주안 고인돌 발굴 조사', '영종도 운남동 고인돌 발굴 조사',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발굴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천 지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연구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시립박물관은 자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문화에도 영향력을 끼쳤다. 오늘날 예총인 문총(文總), 사진작가 모임인 은영회(銀影會), 인천교육무용연구소, 미전(美展) 등의 활동이 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경기도 계엄민사부 주최의 「시화전」, 한미친선위원회의 「한미친선예술사진전」, 은영회의 「제3회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시립박물관은 명실상부 인천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다.

4) 「신축한 시립박물관, 추가 진열될 일품 400점」『대중일보』, 1946. 9. 20.

박물관의 부흥기였던 1968년까지 박물관을 이끌었던 관장은 인천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미술평론가, 서예가, 화가 등의 문화예술가들이었고, 그들이 박물관의 전문직 관장으로 부임하였다. 특히 초대 관장이었던 이경성은 인천시립박물관의 개관부터 복관까지 9년 동안 관장으로 있으면서 박물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68년 이후로 관장의 직급이 행정 사무관으로 상향되면서 문화 예술인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이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전문직 직원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관장이 박물관 운영을 총괄하고, 여기에 열악한 환경과 빈약한 예산 지원으로 시립박물관은 전시, 교육, 조사, 연구, 소장품 확충 등의 박물관 고유의 기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겨우 전시실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명맥을 이어 나갔다.

그 후 1988년 개관 이후 최초의 전문 인력인 학예연구사가 채용되었고, 부족한 시설 규모의 확장을 위해 1987년부터 박물관 신축 이전 계획이 추진되었다. 1989년 12월 20일 지금의 연수구 옥련동 525번지 청량산 기슭에 2,692m² 규모의 시립박물관 청사의 완공과 함께 시립박물관은 1990년 1월 1일 신축 건물로 이전하였다.

3. 옥련동 시대(1990.5.4. ~ 현재)

1990년 5월 4일, 인천시립박물관은 세 번째 건물에서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에 3개의 전시실과 야외전시장을 갖췄으며, 박물관의 규모는 연면적 2,692m², 전시실 800m²이었다. 옥련동의 이전으로 대지는 약 20배, 건물 면적은 6배 증가하고 박물관의 직원도 학예연구사를 포함하여 2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좁은 전시 공간으로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기획전은 매년 1회 이상 열렸으며, 1993년에는 지역 문화 학교로 지정되면서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박물관 교육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항온항습 시설이 있는 수장고가 생기면서 체계적

인 유물 관리도 가능하게 되었고 1994년에는 '영종·옹유 지역 문화 유적지 표조사'를 시작으로 지역사 연구도 재개하였다. 1995년에 들어서 인천 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급되면서 관명이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변경되었다. 옥련동의 신청사로 이전한 인천시립박물관은 외형적, 기능적으로 확장하였고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도8. 옥련동 시대의 박물관(개관 초)



도9. 시립박물관 신축 개관식

그러나 옥련동의 건물이 박물관의 용도로 신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사용해야 하는 학예사는 참여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박물관 고유의 기능을 담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별도의 기획전시실이 없어 매년 상설전시실의 유물을 옮긴 뒤 특별전을 열어야 했고,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의실도 마련되지 않아 이웃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영상관을 대관해야만 했다. 소장품의 수량도 나날이 증가하는데 수장고의 규모가 작아서 이전한 직후부터 수장고 포화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박물관이자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하여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박물관의 중개축 공사를 실시하였다. 공사 완료 후 박물관의 연면적은 2배로 늘어나고, 전시실은 3개실에서 5개실, 수장고도 2개에서 4개로 확장되었다. 303m²의 기획전시실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박물관의 교육과 공연을 위해 세미나실과

200석 규모의 강당도 갖추게 되었다. 개관 60주년이 되는 2006년 7월 10일, 인천시립박물관은 전시와 연구에만 중점을 두던 기준의 박물관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중심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로서의 박물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재탄생하게 되었다.



도10. 옥련동 시대의 박물관(재개관 후)



도11. 시립박물관 재개관식

III. 전시를 통해 본 인천시립박물관의 사명(使命)

1. 지역박물관으로서 역할 정립과 과도기

세창양행 사택의 건물에서 박물관을 개관할 당시 전시실은 총 6개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창양행 사택은 당초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지어진 건축물로 내부를 가로지르는 복도를 중심에 두고 4개의 큰 방과 작은 방 5개가 있는 구조였다. 이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박물관의 전시실로 활용하려다 보니 작은 규모의 전시실이 6개가 만들어졌다. 이경성 관장이 박물관 개관을 위해 수집한 소장품 364점을 6개실에 분류하여 전시하였는데 인천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전시보다는 고고미술사 관련 유물들로 채워졌다. 금속 유물과 도자기, 토기, 와당, 서화류 등은 제1전시실~제5전시실에 전시하고, 제6호실에 전시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전리품과 사진만이 유일하게 인천과 관련된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조병창에서 가져온 철제 범종, 향로, 수형대포 등을 야외에 노출해 전시하였다. 당시 짧은 준비기간과 제한된 유물, 부적합한 전시 공간으로 체계적인 전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표1. 세창양행 사택 당시의 박물관 상설전시⁵⁾

전시실	전시유물
제1호실	고려시대 금속 제품, 조선시대 금제품 차(金製風車), 자개 장식품,
	조선시대 옥 제품, 이순신 장군 포진도
제2호실	고구려 도기
제3호실	고려 청자, 조선 백자, 김옥균 친필
제4호실	조선 백자, 중국 도자기
제5호실	신라 토기, 석기, 와당
제6호실	청일·러일전쟁 사진 및 무기, 맘모스 상아

도12. 제1회 아동작품미술전람회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해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인천시립박물관 최초의 기획전시라고 할 수 있는 「아동작품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인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미술대회 입상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였다. 1948년 4월 1일에는 개관 2주년을 맞이하여 전시 유물의 교체가 있었고, 1949년에는 새로 수집한 낙랑 대호 등 30점의 유물을 추가로 전시하였다. 개관 초기에는 고고미술사 중심의 박물관 소장품 확충과 전시에 집중해 있었다. 다만, 조사·연구 활동에 있어서는 인천 지역에 대한 학술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49년 5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인천 전역을 문학산, 청량산, 선미도, 주안, 석남동, 계양산, 서곶 방면으로 나누어 7차례에 걸쳐 고적 조사를 하였고 당시에 조사했던 문화유적의 상당수가 박물관의 소장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을 정도로 지역사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47년 2월, 인천시립박물관 최초의 관보인 『고적』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당시 이경성 관장은 「인천박물관의 방향」에 아래와 같은 글을 실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국제성’과 ‘향토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살리

4) 『대중일보』, 1946. 4. 2.

고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과의 차별성을 위해 지역박물관으로서 지역사 연구에 주력하고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인하는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시립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근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제 인천박물관의 방향을 말할지니 곧 지리적 특수성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무역항이라는 데서 오는 인천의 국제성과 지방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향토성이 그것이다.

인천박물관의 국제성이라 함은 장차 외국 무역의 진전과 관광으로 말미암아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외국인의 박물관 관람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현재도 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서울까지 갈 수 없는 미국 해군과 외국 선원 다수가 인천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단편적이나마 조선 문화가 어떤 것인지 를 알고 다시 출항한다. 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서울의 국립박물관보다 책임과 이용 가치가 더욱 많다고 생각한다.

다음 향토성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인천의 향토사 연구가 아직 막연하다는 점, 간접적으로는 서울에 국립박물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전국에서 좋은 유물만을 수집, 보존하고 진열하자면 국립박물관과 동일한 노선을 걷게 된다. 그러다 보면 예산의 우위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비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이 경우 “서울에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접근거리에 무슨 박물관이 또 필요하단 말이냐”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운명적으로 향토사적 유물을 수집, 보존, 진열하여야 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천박물관은 인천 부근의 도서를 포함한 향토사 연구에 주력하고, 그 분야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 문화산 부근, 계양산 부근, 그리고 강화도, 덕적도에서 멀리 석기시대부터 고구려, 신라의 유물, 유적을 답사하고 조선 최근세사에 등장한 제물포 시대를 중심으로 외적의 침략에 대한 진실을 과학적으로 진열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인천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근본 사명이라 믿는다.

인천박물관이 인천의 사라진 문화를 발견하고 향토 인천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공헌한다면,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그때는 “인천박물관은 무엇하러 설치되었는가?”하며 떠드는 사람들도 없어지리니 그리하는 것이 박물관으로 보아도 좋고, 인천시민으로 보아도 좋을 일이다. 우리 인천박물관은 이러한 정신과 방법으로 이 방향에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성이 꿈꾸던 박물관은 개관 4년째인 1950년의 한국전쟁 발발로 무기한 휴관에 들어가면서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포화에서 박물관의 소장품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지만, 박물관 건물로 사용하던 세창양행 사택이 인천상륙작전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박물관의 재건을 위해 이경성 관장이 동분서주하던 와중에 세창양행 사택 인근에 있던 제물포구락부를 새로운 박물관 건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1953년 4월 1일 복관 기념식을 열고 고서화 25점을 선별하여 복관 기념 특별전 「제1회 고미술전」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박물관이 자리를 잡아가기도 전인 이듬해 3월 31일 이경성 관장이 사임함으로써 그

가 구상했던 ‘지역성’의 연구를 통한 전시라는 인천시립박물관의 사명은 한동안 실현될 수 없었다.



도13. 제물포구락부 당시의 박물관 전시실, 1953년.



도14. 제물포구락부 당시의 박물관 전시실,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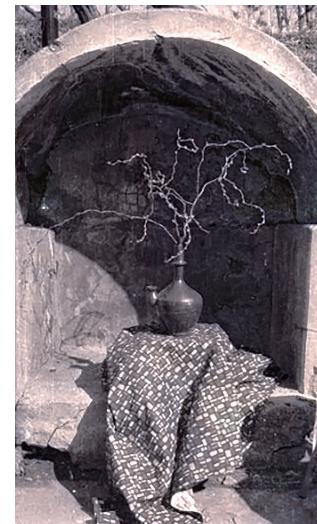
제물포구락부는 연면적이 386m²로 세창양행 사택보다 규모가 작았고, 전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층은 280m²에 불과했다. 클럽이나 회관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내부가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 매우 협소하여 박물관의 전시실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복관 후 개최한 「제1회 고미술전」을 시작으로 인천 시내 고등학생들의 미술작품 전시회, 시민의 개인 소장품 전시회 등의 전시를 개최하였다. 인천의 지역성을 탐구한 결과를 기초로 인천시립박물관만의 정체성이 반영된 전시가 아니라 이경성 관장이 우려한 대로 소장품의 가치, 박물관의 규모, 예산적인 지원이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차별 점은 찾아볼 수 없는 보편적인 고고미술사 전시가 중점을 이루었다. 그나마도 1962년 인천시로부터 4백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건물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후에 개수개관을 기념하여 개최한 「국립박물관 소장 국보급 유품전」을 끝으로 박물관에서 기획한 전시는 더 이상 개최되지 못했다.

표2. 1953~1989 인천시립박물관 자체 기획 특별전시 현황

연번	개최기간	일수	전시명	전시내용
1	1953.04.01 수 ~ 1953.06.24 수	85일	복관기념「고미술전」	서화류 25점
2	1955.12.27 화 ~ 1956.01.20 금	25일	제1회 재인 「남녀중고등학생미술전람회」	미술작품

연번	개최기간	일수	전시명	전시내용
3	1956.04.30 월 ~ 1956.05.12 토	13일	개관10주년 개인소장품 전시회	전시유물 약 20점
4	1957.02.15 수 ~ 미상	미상	제2회 「남녀중고등학생미술전람회」	미술작품
5	1957.03.15 금 ~ 1957.04.06 토	22일	제3회 「남녀중고등학생미술전람회」	미술작품
6	1957.09.15 금 ~ 1957.10.07 토	22일	제4회 「남녀중고등학생미술전람회」	미술작품
7	1962.11 ~ 미상	미상	개수기념 국립박물관소장 「국보급 유품 특별전시회」	유물 30여 점

1968년 이후로 박물관은 직제가 개편되어 인천 지역 문화예술가들이 운영하던 전문적 관장 체계에서 행적적 5급 관장 체계로 바뀌었다. 그나마 있던 전문 인력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박물관은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전시를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대신에 교육청이나 문화원 등 외부 기관의 사진전·서화전 등의 전시회를 유치하고 대관하는 수준으로 전시 기능을 유지해 갔다. 그러나 보니 대관 전시였던 「꽃꽂이 전시회」에서는 박물관 소장품인 고려청자를 꽃병으로 사용하여 그 안에 꽂을 꽂아서 전시하는 등 웃지 못할 춘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도15. 꽃꽂이 전시회

아직은 전시 공간의 규모, 소장품의 한계, 전문 인력의 부재, 턱없이 부족한 예산, 문화행정에 대한 시 당국의 무관심 등 시립박물관의 사명인 지역성의 완성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장벽과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지역 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고 서울올림픽의 여파로 박물관의 이전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옥련동에 새로운 신축 박물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90년 5월 4일 옥련동에 개관한 신축 박물관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6배로 확장되었고 전시 공간은 800m²로 총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었다. 전시실은 경사로로 연결되어 각각 독립된 전시 공간을 갖추었다. 이전개관 당시 문화회관에 있던 향토역사관 소장자료를 인수하여 유물 수량은 늘어났지만, 대부분 사진과 민속자료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박물관 소장 유물은 여전히 고고미술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전의 박물관보다 전시 공간은 확실히 늘어났지만 전시의 구성과 내용은 기존의 전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1전시실과 2전시실은 나름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시대순으로 소장품을 전시하였지만, 3전시실만 서화전시실로 특화했다는 점이다. 시대별 전시와 주제별 전시가 섞여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일관된 전시구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표3. 옥련동 시기의 박물관 상설전시(1990년~2003년)

전시실	전시내용	대표유물
1전시실	선사시대~고려시대까지의 자연사, 고고, 맘모스 상아, 거거, 수봉산 출토 간돌칼, 미술사, 역사관련 유물	고려청자, 녹청자도요지 출토 청자편
2전시실	조선시대~일제강점기까지 미술사, 역사 관련 유물	분청사기, 청화백자, 목조관음좌상, 라일전쟁 관련유물, 불랑기포, 전환국발행 동전
3전시실	서화 유물	이순신장군 포진도, 이조열성어필, 산수도, 인천산천총도
야외전시장	크기가 큰 대형 유물	각국조계석, 중국철제범종,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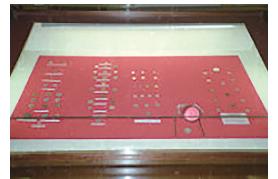
그럼에도 인천 지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상설전시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는데 '지역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전시실에는 수봉산과 남촌동 등 인천 내륙에서 출토된 돌칼, 돌도끼 등의 석기류와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에서 수습된 유물 일체를 전시하였고, 2전시실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관련 유물을 각각 별도의 진열장에 전시하였다. 이처럼 전시에서 시작된 지역성의 회복 노력은 유물 수집에도 영향을 미쳐 특히 인천의 지역사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근대 유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유물은 그대로 전시에 활용되었는데 인천전환국에서 발행한 동전들을 2전시실에, 인천 출신의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 선생의 유품과 저서 등 관련 유물을 3전시실 앞 복도에 전시하였다.



도16. 1전시실 녹청자
도요지 진열장



도17. 2전시실 라일전
쟁 진열장



도18. 2전시실 인천
전환국 진열장

상설전시를 통해 지역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모습은 기획전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아래의 표는 옥련동으로 이전 후 2003년까지 시립박물관에서 개최했던 기획전 현황이다. 「십지시신상 탁본전」, 「태극문양전」을 제외하면 유희강, 이경성, 김은호와 같은 인천 출신의 문화예술인을 주제로 하거나 '인천'과 '근대'라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시를 주제로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향토'를 주제로 개최된 시리즈 전시는 향토라는 명칭에서도 보이듯 지역성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었다.

표4.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 현황(1990~2003)

연번	개최기간	일수	전시명	전시내용
1	1991.12.17 화 ~ 1992.01.31 목	45일	「십이지신상 탁본전」	경주 김유신묘 12지신상 호석 등 38점
2	1992.10.01 목 ~ 1992.10.31 토	1개월	「검여유희강 서예전」	검여 유희강 선생의 서예작품
3	1993.07.01 목 ~ 1993.08.31 화	2개월	「근대교육사자료전」	근대기 교육과 관련된 자료 107점
4	1994.10.15 토 ~ 1994.12.15 목	2개월	「향토인천문화재전」	시내 개인 및 기관 소장유물 311점
5	1995.10.15 일 ~ 1995.12.15 금	2개월	「향토민속생활용구류전」	시내 개인 및 기관 소장유물 300점
6	1996.10.15 화 ~ 1996.11.15 금	1개월	「향토인천근대사자료특별전」	박물관 소장 근대유물 200점
7	1997.10.15 수 ~ 1997.12.15 월	2개월	「향토인천금석문탁본전」	인천 시내 금석문의 탁본자료 54점
8	1998.12.15 화 ~ 1999.02.14 일	2개월	「석남 이경성전」	초대관장 이경성 선생의 작품 등 95점
9	1999.10.01 금 ~ 1999.11.30 화	2개월	「인천시민소장유물전」	인천시민 소장유물 342점
10	2000.10.15 일 ~ 2000.11.30 목	45일	「근대교육사자료전」	학교 및 개인, 기관 소장유물 245점
11	2001.10.15 월 ~ 2001.11.30 금	45일	「태극문양전」	태극기 문양이 들어간 다양한 생활용구 67점
12	2002.10.14 월 ~ 2002.11.30 토	46일	서해도서민의 삶 「바다와 함께 한 세월」	인천지역 어로활동 관련유물 130여점
13	2003.08.12 화 ~ 2003.09.28 일	45일	「이당 김은호의 삶과 예술」	조선의 마지막 어진화가 김은호 선생 작품 등 40점

그러나 신축 당시 기획전시를 위한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지 않아 전시를 개최하려면 3전시실의 서화 유물을 수장고로 옮기고, 3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활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보니 유물이 이동하면서 훼손의 우려가 커졌고, 실제로 배접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관람객들이 기획전시 기간에는 서화 유물을 관람할 수



도19.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 포스터(1990~2004)

없다는 점도 가장 큰 문제였다. 기획전시실의 부재뿐만 아니라 상설전시실도 또 다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동선이었다. 관람 동선은 현관에서 시작하여 경사로를 따라 각 전시실로 진입하고, 관람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경사로를 통해 현관으로 진출하는 구조였다. 진입과 진출 동선이 섞여 있어 주말이나 방학, 단체 관람이 있을 때는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 2전시실의 경우 9m 정도의 높은 층고로 전시품 관람에 방해가 되었고 공조 시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유물의 보존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결과 인천시립박물관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 공사를 위한 임시 휴관에 들어갔고 휴관 2년 4개월 만인 2006년 7월 10일 다시 문을 열었다.

2. 박물관의 정체성과 근본 사명의 완성

재개관한 인천시립박물관은 1,533m²의 상설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중축을 통해 기획전시실을 별도로 조성하였다. 층고가 높았던 2전시실을 상하로 분할하여 1개 전시실을 늘리고, 역사1실, 역사2실, 공예실, 서화실, 기증실 등 총 5개의 전시실로 공간을 구획하였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고고미술사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선사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오롯이 인천의 지역사를 주제로 한 전시실을 마련해 역사1실과 역사2실에 나누어 전

시하였다. 이전의 박물관에서 전시했던 서예, 공예, 회화 작품들은 공예실과 서화실에 전시함으로써 인천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박물관의 전통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시실의 비중을 역사1실과 역사2실에 더 실어줌으로써 앞으로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상설전시에 분명히 반영하였다. 아울러 진입과 진출 동선을 분리하고 전시의 흐름을 단절시켰던 경사로에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를 재현하였고 인천시립박물관의 발자취 코너를 통해 시립박물관 고유의 역사성을 알리는 전시를 처음으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1990년 이전개관 이후 ‘향토’를 탐색하고, 인천이라는 지역성을 회복하기 위한 박물관의 노력과 결실은 2006년에 재개관한 박물관의 상설전시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표5. 2006년 이후 박물관 상설전시

전시실	전시내용	대표유물
역사1실	선사시대~고려시대까지의 인천사관련 유물	창후리 출토 다각면 원구, 매소홀명 기와, 이자연묘지명, 녹청자도요지 출토 그릇편
역사2실	조선시대~일제강점기까지 인천사관련 유물	강도지, 영종진 호적, 석남동 회과묘 출토 복식, 인천항 갑문 작동모형, 관지계석
공예실	토기, 도자기, 불교공예, 목공예품 등 공예품 전시	청자변기, 백자명기, 건칠불여래좌상, 나전칠기 이충농,
서화실	민화, 선비화, 탁본, 책가도 병풍 등 서화작품 전시	이순신장군 포진도, 이조열성어필, 산수도, 북관대첩비
기증실	전년도 기증자의 기증유물 1점 이상, 고유선생 관련 진열장	원대철제범종, 3층석탑, 우현 고유섭 동상 화방공사조난지비, 잠령공양탑, 학익고인돌

상설전시에서 강조된 인천의 지역성과 역사성에 대한 결실은 기획전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시립박물관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개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였다. 「베트남의 관문, 하이퐁」, 「근대 키타큐슈 시 100년의 발자취」, 「기모노가 말해주는 일본의 정서」, 「위대한 도구,

젓가락」 등의 국제교류전이나 청소년 참여전 「이 순간들」, 이동우 사진전 「핀도, 뭉우리돌을 찾아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시가 인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가 직접적으로 인천과 관련성이 없는 전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인천을 다뤄주고 있는데 「수중유물, 고려 바다의 흔적」에서는 서해안의 난파선 중에서도 인천의 영홍도선을 조금 더 부각했으며, 「큐레이터의 선택, 청동향로를 해석하는 다섯가지 방법」에서는 ‘전쟁 속의 인천’이라는 소주제를 통해서 향로가 박물관으로 오게 된 경로로서 인천의 조병창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46개의 전시 중 40개의 전시가 인천을 주요 전시 테마로 설정하였다. 그동안 개최된 40개의 전시 중에서도 시대적 배경이 근대인 전시는 23개로 50% 이상이 ‘인천’과 ‘근대’의 두 개의 주제를 공통 분모로 하고 있다. ‘인천’만을 주요 테마로 한 전시 중에는 인천시립박물관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박물관 70년, 기억의 문을 열다」나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전시인 「강도(江都), 고려왕릉」 같은 시의성 있는 전시회도 있었으며, 「李慶成, 그 사람」, 「그리움... 인천이 낳은 지도자, 조봉암」 등 인천 출신의 인물 전시나 「인천 찬물에 대한 해명」, 「해양의 도시, 인천」, 「이음, 섞임, 그리고 삶, 해불양수의 땅 인천」 등 인천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통찰할 수 있는 전시회도 있었다. 또 어린이들이 인천의 역사와 설화를 체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낸 「인천이랑 친해지기」, 「인천아~ 놀자!」, 「백두더 백년전 인천」, 「구름나무와 친구들」 등과 같은 체험전도 개최하였다.

그럼에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한 대부분의 전시가 ‘인천’을 공간적 범위로, ‘근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진 기획특별전을 진행하였다. 인천을 통해 한국에 처음 도입되어 현대 사회까지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커피, 기차, 야구, 영화, 시간, 전화, 사진 등의 근대문화

들을 주제로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기행」, 「베쓰볼 인천·인천야구 100년사」, 「Coffee, 양탕국에서 커피믹스까지」, 「수인선, 두 번째 안녕」, 「인천, 근대의 시간을 달리다」, 「인천, 어느날 영화가 되다」, 「시대의 관문, 인천해관」, 「근대가 찍어 낸 인천 풍경」, 「이발소 풍경」, 「더률풍, 마음을 걸다」 등을 개최하였다. 근대기에 인천을 배경으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다룬 「하늘을 울린 전투, 신미양요」, 「세 가지 시선, 러일전쟁」, 「고승호, 끝나지 않은 항해」 전시를 통해 신미양요, 러일전쟁, 청일전쟁 등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근대기에 변성하였다가 지금은 구도심이 되어버린 인천의 동네를 주제로 「안녕하세요, 배다리」, 「월미도, 기억 너머의 기억」, 「오래된 이웃, 화교」, 「피고 지고, 그리고... 화수·화평동」 등의 마을 전시도 개최하였다.

이제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의 주요한 방향성은 '인천'과 '근대'로 명확해졌다. 상설전시에서 보여주는 인천이라는 '지역성'과 '역사성'이 기획전시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이경성 관장이 「인천박물관의 방향」에서 언급한 인천시립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근본 사명이 1946년의 개관 이후의 지난한 시간 속에서 학예사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자리를 잡은 결과이다.

표6.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 현황(2006 ~ 2023)

연번	개최기간	일수	전시명	전시내용
1	2006.07.10 월 ~ 2006.09.10 일	2개월	개관 60주년 기념 특별전 「도시기행-인천, 상하이, 요코하마」	한,중,일 개항도시의 관련유물 300여 점
2	2007.05.26 토 ~ 2007.06.24 일	1개월	「출토유물로 보는 인천」	인천지역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210여 점
3	2007.09.14 금 ~ 2007.10.28 일	45일	「베트남의 관문, 하이퐁」	자매도시 베트남 하이퐁시의 역사유물 182점
4	2007.12.01 토 ~ 2007.12.30 일	1개월	「2007 수집유물 공개전」	2007년도 박물관에서 수집했던 유물 270점
5	2008.06.11 수~ 2008.07.06 일	2개월	「하늘을 울린 전투, 신미양요」	'帥'자기 및 신미양요 관련자료 500여 점

연번	개최기간	일수	전시명	전시내용
6	2008.07.19 토 ~ 2008.09.21 일	2개월	키타큐슈시립박물관 교류전시「근대 키타큐슈시 100년의 발자취」	키타큐슈시립박물관 기획 키타큐슈 근대문화 100점
7	2008.11.25 ~ 2009.03.01	95일	부산근대역사관 공동기획전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기행」	부산, 인천의 근대자료 및 철도관련자료 300여 점
8	2009.04.01 수 ~ 2009.05.31 일	2개월	「베쓰볼 인천-인천야구 100년사」	인천지역의 야구, 야구인 관련유물 210점
9	2009.07.28 화 ~ 2009.10.25 일	3개월	여름방학 맞이 체험특별전 「인천이랑 친해지기」	인천의 지리, 환경, 역사 내용을 체험교구로 전시
10	2009.11.10 화 ~ 2009.01.31 일	3개월	「그릇, 근대를 담다」	근대기 국내외에서 생산, 유통된 도자기 140여 점
11	2010.04.06 화 ~ 2010.05.30 일	55일	「인천 짬뽕에 대한 해명」	염전 및 야구 관련 유물 90여 점
12	2010.07.06 화 ~ 2010.08.29 일	54일	여름방학 맞이 체험특별전 「인천아~ 놀자!」	인천의 바다, 국방, 근대 내용을 체험교구로 전시
13	2010.12.01 수 ~ 2011.01.30 일	2개월	「세가지 시선, 러일전쟁」	러시아 전함 바랴크호 갓발·지도·사진 등 130여 점
14	2011.04.01 금 ~ 2011.05.29 일	2개월	「Coffee, 양탕국에서 커피믹스까지」	커피관련 자료 250여점
15	2011.07.19 화 ~ 2011.09.18 일	2개월	「백투더 백년전 인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알아보는 백년 전 인천
16	2011.11.15 화 ~ 2012.01.29 일	75일	「근대 채색인물화」전	근대기에 그려진 채색인물화 17점
17	2012.05.01 화 ~ 2012.07.01 일	2개월	「수인선, 두 번째 안녕」	수인선 관련유물 385점
18	2012.07.24 화 ~ 2012.09.23 일	2개월	나무가 들려주는 옛날 옛적 인천이야기 「구름나무와 친구들」	인천을 배경으로 한 창작동화 4편, 인천설화 8편
19	2012.11.27 화 ~ 2013.01.27 일	2개월	石南 타계 3주기 추모전 「李慶成, 그 사람」	초대관장 이경성의 유품, 저서, 작품 등 142점
20	2013.07.30 화 ~ 2013.09.29 일	2개월	청소년 참여전 「이 순간들」	청소년들의 회화, 사진, 영상과 설치미술 170여점
21	2013.12.03. 화 ~ 2014.02.02. 일	2개월	「안녕하세요, 배다리」	배다리 관련 사진 및 실물자료 323점

연번	개최기간	일수	전시명	전시내용
22	2014.04.30. 수 ~ 2014.07.30. 수	3개월	「월미도, 기억 너머의 기억」	월미도 관련 사진, 문서, 실물 자료 400여점
23	2014.11.25. 화 ~ 2015.02.01. 일	2개월	「오래된 이웃, 화교」	화교관련자료 254점
24	2015.05.27. 수 ~ 2015.07.19. 일	53일	「고승호, 끝나지 않은 항해」	청일전쟁 및 고승호 관련유물 922점
25	2015.08.11. 화 ~ 2015.10.11. 일	2개월	「인천, 근대의 시간을 달리다」	근대기 시간, 시계 관련 유물 237점
26	2016.04.01. 금 ~ 2016. 6. 9. 일	2개월	「박물관 70년, 기억의 문을 열다」	인천시립박물관 70년의 여정
27	2016.09.06. 화 ~ 2016.11.20. 월	66일	「인천, 어느날 영화가 되다」	개항 이후 인천의 영화, 극장에 관련된 전시
28	2017.02.14. 화 ~ 2017.03.19. 일	34일	「기모노가 말해주는 일본의 정서」	동아시아우호박물관 순회전 시 중 첫 번째 전시
29	2017.09.12. 화 ~ 2017.10.29. 일	50일	「해양의 도시, 인천」	인천 해양의 중요성과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전시
30	2017.11.28. 화 ~ 2018.02.18. 일	83일	「근대가 찍어 낸 인천 풍경」	인천관련 근대 이미지를 한데 모아 전시
31	2018.06.05. 화 ~ 2018.07.15. 일	34일	「시대의 관문, 인천해관」	관세의 의미 및 인천 해관과 관련한 전시
32	2018.08.14. 화 ~ 2018.10.03. 일	51일	「자료로 본 인천의 근현대」	화도진도서관 소장 근현대 자료를 전시
33	2018.10.30. 화 ~ 2018.12.09. 일	41일	「강도(江都), 고려왕릉」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전시
34	2019.01.23. 화 ~ 2019.02.24. 일	33일	「위대한 도구, 젓가락」	동아시아우호박물관 순회전 시 중 두 번째 전시
35	2019.06.28. 금 ~ 2019.09.01. 일	66일	「이음, 섞임, 그리고 삶, 해 불양수의 땅 인천」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1차 전시
36	2019.10.08. 화 ~ 2020.02.16. 일	132일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꽃빛 꽃」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2차 전시
37	2020.05.27. 수 ~ 2020.10.11. 일	137일	「이발소 풍경」	이발소의 역사와 시대적 사회상 재조명
38	2020.11.24. 화 ~ 2021.03.01. 월	99일	「뒷간, 화장실이 되다」	동아시아우호박물관 순회전 시 중 세 번째 전시

연번	개최기간	일수	전시명	전시내용
39	2021.04.13. 화 ~ 2021.05.23. 일	41일	사진기자 박근원의 사진첩 「찰나의 인천」	인천의 원로 사진기자 박근원 선생의 사진전
40	2021.07.27. 화 ~ 2021.10.17. 일	87일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공동기획전시
41	2022.03.01. 화 ~ 2022.05.15. 일	76일	「그리움... 인천이 넓은 지도자, 조봉암」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의 순회전시
42	2022.07.19. 화 ~ 2022.10.16. 일	91일	「큐레이터의 선택, 청동향로를 해석하는 다섯가지 방법」	하나의 유물에 대해 큐레이터의 해석방법 소개
43	2022.11.22. 화 ~ 2023.2.5. 일	66일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 기념 김동우 사진전 「편도, 뭉우리들을 찾아서」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와 독립 운동가 후손들의 사진전시
44	2023.4.4. 화 ~ 2023.6.18. 일	67일	「다시 비상 - 인천유나이티드 2003-2023」	인천 연고 축구팀 인천유나이티드의 20년 역사
45	2023.7.18. 화 ~ 2023.10.15. 일	80일	「피고 지고, 그리고... 화수·화평동」	도시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화수화평동의 공간과 일상을 전시
46	2023.12.1. 금 ~ 2024.2.25. 일	77일	「덕률풍, 마음을 걸다」	전화기의 수용과 보급 확대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상 조명



도19.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 포스터(1990~2004)

IV. 인천뮤지엄파크 시대로, 최초를 넘어 최고를 꿈꾸다

광복 후 국립박물관이 12월 3일에 개관하고, 이듬해 3월에는 덕수궁 내의 이왕가미술관이 덕수궁미술관으로 명칭을 바꿔 문을 열었다. 덕수궁 미술관이 개관하고 한 달 뒤인 1946년 4월 1일에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이 개관하였다. 개관 초기부터 1968년까지는 미술평론가인 이경성 초대 관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예가, 화가 등 인천 지역의 예술가들이 관장으로 부임하여 인천의 지역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확립하고 인천 지역 문화 예술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부터 1980년 까지 전문 관장의 자리에 행정직 관장이 임용되면서 인천시립박물관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1988년에는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가 채용되었고 1990년에 옥련동으로 이전하면서 박물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 리모델링을 통한 재개관 이후에는 인천 지역의 박물관으로서 ‘역사성’과 ‘지역성’ 확립을 설립 목적과 근본 사명으로 삼아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반영한 상설 전시, 소장품 수집,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으며, 특히 시립박물관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은 기획특별전을 연간 3~4회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그동안 국립박물관과 서울, 경기, 부산의 박물관에 밀려 변방의 작은 박물관이었던 인천시립박물관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창양행 사택, 제물포구락부를 거쳐 옥련동의 현재의 건물로 이전해 2006년에 재개관을 한 지 어느덧 18년의 시간이 흘렀다. 현시점에서 인천시립박물관의 설립 목적과 사명을 찾으려는 박물관의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고 본다. 이러한 결실들이 전시, 교육, 소장품 수집 등 다양한 영역에 반영되고 있으며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된 건물은 변

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요즘의 박물관 트렌드에 맞는 전시시설을 구축하기에는 건축적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 시립박물관은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도21. 2028년 이전 예정인 인천시립박물관 조감도

시립박물관은 2017년부터 박물관의 확장 이전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8년에 ‘인천뮤지엄파크’로 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박물관, 미술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같은 건물을 공유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새로 지을 박물관의 건물은 현재 옥련동 박물

관 건물의 4배 이상이 확장되며, 전시 면적도 3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확장된 전시 공간에는 2000년대 이후 ‘인천’과 ‘근대’ 위주로 수집한 소장 품들을 폭넓게 전시하고, 유물의 보조적인 장치로서 최첨단 전시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공간 부족 문제로 다루지 못했던 인천의 현대실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기획전시실도 1개실에서 2개실로 확대 운영하여 매년 2~3회밖에 운영 하지 못했던 기획전시를 늘려 소규모의 테마 전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창양행 사택에 시립박물관이 문을 연 지 어느덧 78년이 지나고 인천 뮤지엄파크 시대를 앞둔 지금, 시립박물관은 시대적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출발선에 서있다. 이제 인천시립박물관은 최초(最初)의 공립박물관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최고(最高)의 박물관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문헌

- 『대중일보』
- 이경성,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중국미술품들」『기전문화연구』, 1973.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제8집 연보』, 1996.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70년사』, 2016.

부천과 박물관

BUCHEON &
MUSEUMS

설립(說林)

부천시립박물관 유물 수집 현황과 수집 방향

김태동

부천활박물관의 유물 현황과 향후 전략 방향

채지원

부천펄벅기념관의 소장유물현황과 수집방향

박민주

수주문학관 소장 기증유물의 현황과 수집 방향

정보람

부천시립박물관

유물 수집 현황과 수집 방향

김태동¹⁾

목차

-
- I. 머리말
 - II. 부천시립박물관 유물 수집 현황
 - III. 유물 수집의 중요성과 방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부천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박물관을 설치하였다.²⁾ 그중 몇 개의 박물관은 “부천시박물관”으로 묶어 문화예술기관 등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나뉘어 있는 각 박물관을 약 20년간 운영하면서 관람객들의 동선과 업무적 효율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부천종합운동장 1층에 있던 교육·유럽자기·수석박물관을 약 1km 북쪽에 위치하던 옹기박물관 자리로 옮겨 통합박물관을 건립하였다. 그렇게 2021년에 교육박물관·유럽자기박물관·수석박물관·옹기박물관·향토역사관³⁾이 모여서 부천시립박물관이 탄생하였다. 이처럼 부천시립박물관은 “시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있는 지역 역사 중심의 시립박물관들과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테마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부천시립박물관 학예사

2) 부천향토역사관(2000), 부천자연생태박물관(2001), 부천물박물관(2001), 한국만화박물관(2001), 부천교육박물관(2003), 부천유럽자기박물관(2003), 부천수석박물관(2004), 부천활박물관(2004), 부천로보파크(2005), 부천펄벅기념관(2006), 부천옹기박물관(2011), 수주문화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2022).

3) 향토역사관은 2017년에 부천옹기박물관으로 통합하였다.

박물관을 통합하자 부천시립박물관은 박물관의 역사 속에서 큰 변곡점에 들어섰다. 통합 전까지는 각 박물관에서 각자의 테마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 다양한 테마들을 한 공간에 아우르자 오히려 박물관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박물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로 압축하기에는 각 테마의 개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천시립”이라는 타이틀이 생겨서 부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의 변화도 필요해졌다. 부천시립박물관은 이제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고민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유물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와 교육을 구성할 때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테마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 종합박물관을 지향하는 고민이 필요해졌다. 근래 박물관 내에 부천 역사전시실을 세우려고 했던 시도도 이런 고민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천시립박물관은 2023년 부천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장롱 속 유물을 찾습니다’라는 유물기증 캠페인을 열었다. 이 때 꽤 많은 양의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아울러 2024년에도 부천시와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수중하였다. 이 중 많은 수의 자료는 기존의 테마(교육·유럽자기·수석·옹기·향토)와 거리가 있는 생활사 중심의 수집품들이었다. 이전까지는 테마 소장품만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양하고 종합적인 소장품들이 생기기 시작함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유물 수집은 의미가 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수집품들을 살펴보고 유물 수집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 간단히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통합 전부터 있었고 현재에도 박물관 소장품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테마 소장품들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2장 2절에서는 통합 이후에 수집한 자료들을 기증 사항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부천시립박물관의 정체성 확장을 위한 유물 수집의 중요성과 앞으로 어떤 유물과 자료들을 수집하면 좋을지 얘기해 볼 것이다.

II. 부천시립박물관 유물 수집 현황

1. 통합 이전 수집 유물 현황

2000년대 초에 부천시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박물관 건립을 위해 다양한 박물관 자료를 물색하였다. 그때 세운 박물관 중 현재 부천시립박물관 유물과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크게 교육, 유럽자기, 수석, 옹기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테마박물관으로 운영하다가 2021년도에 들어서 부천시립박물관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이후 아무리 많은 자료를 수집했어도, 현재 부천시립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은 이들 테마 소장품이다. 박물관이 종합박물관을 지향한다고 해서 이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부천시립박물관의 뿌리이며, 현재까지는 다수이다. 다량이기에 신규 유물 수집에서는 비율을 줄여나갈 필요는 있다. 하지만 연구와 전시 및 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박물관이 집중해야 하는 영역이다. 1절에서는 이러한 기존 유물들에 대해 각 테마별로 간단히 살펴보겠다.

부천유럽자기박물관의 소장품들은 복전영자관장이 국내외를 다니면서 직접 수집한 작품들이다. 복전영자관장은 모아놓았던 수집품들로 1998년 서울시 종로구에 셀라뮤즈 자기박물관을 세웠다. 이후 2002년에 부천시와 기증협약을 체결한 뒤, 2003년에 부천유럽자기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유럽자기’ 테마를 등록한 박물관이다. 이곳 소장품에는 유럽자기의 명가인 독일 마이센, 프랑스 세브르, 영국의 로열 우스터, 덴마크 로열 코펜하겐, 헝가리의 헤렌드 등에서 제작한 제품들이 있다. 또한, 도자기를 얇고 평평하게 만들어 그림을 그리고 액자에 넣은 도자기 화판이나 도자기로 만든 아름다운 인형들이 있고, 그 외에도 유리(크리스탈)로 제작한 화병 등이 있다.

부천교육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민경남 관장이 직접 모은 자료들이다. 민

관장은 학창시절 친구가 잡지를 잘 보여주지 않자 책을 모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고 한다.⁴⁾ 1960년대부터 모은 이 자료들은 교육 외에도 신문, 포스터, 화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민 관장은 이 중에서 교육 관련 자료들을 2002년에 부천시에 무상 기탁하였고, 2003년에 부천교육박물관이 개관한 뒤인 2005년에 기증으로 전환하였다. 일제강점기 시기의 교과서부터 한국전쟁기를 거쳐 현대까지 많은 양의 교과서를 기증하였다. 게다가 학교에서 발행한 여러 상장, 졸업장, 교지 등도 있으며, 학교에서 사용하던 문구류, 각종 교복 등 상당히 많은 자료를 기증하였다.

부천수석박물관은 정철환 관장이 직접 수집하거나 구입한 수석과 관련 자료들로 구성하였다. 정 관장은 1974년에 수석계에 입문하여 부천시수석인연합회 회장, 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 부회장, 한국수석회 경기지역 회장 등을 지냈고, 다양한 수석대전에도 참가한 수석계의 원로였다.⁵⁾ 수석문화의 확산과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2,200여 점의 자료를 부천시에 기증하여 국내 최초로 수석박물관을 건립하였다. 크고 작은 크기의 산수경석, 문양석, 형상석, 물형석, 추상석, 토중석, 진기석 등이 있다. 또한, 각종 수석의 모습과 수석인들의 소식을 담은 석보나 기념메달, 동폐 등 수석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도 있다.

부천옹기박물관은 과거 부천시 여월동에서 옹기를 굽던 가마터 인근에 자리 잡았다. 옹기박물관은 앞선 박물관들과는 다르게 주로 구입을 통해 유물을 수집하고, 일부 유물은 여러 기증자에게서 수증하였다. 여기에는 신줏단지, 시루, 병, 소줏고리, 옹기로 빚은 굴뚝, 약탕기, 허벅 등 다양한 형태·크기·용도의 옹기들이 있다. 수량이 많고 형태가 다양하기에 한반도 지역별 옹기의 모양도 확인할 수 있다.

4) 김대중, 「박물관 및 도서관」『부천시사』3, 부천시, 2023, 187쪽.

5) 부천수석박물관, 『부천수석박물관 소장석 도록』, 2015, 3쪽.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 이전의 소장품은 매우 다양하고 각각 개성이 강하다. 게다가 박물관을 통합한 현재에도 부천시립박물관 소장품의 주를 이루고 있다.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만큼 여러 방면의 활용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율에 비해 이 소장품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수량은 많기에 박물관 자료 수집 우선순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구·전시·교육적인 차원에서 부천시와 박물관의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한다.

2. 통합 이후 수집 유물 현황

부천시는 부천종합운동장 1층에 자리하고 있던 교육·유럽자기·수석박물관 각각을 2021년에 옹기박물관 쪽으로 이전하여 부천시립박물관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이후 2023년, 부천시립박물관은 부천시 승격 50주년 기념 특별전과 함께 <장롱 속 유물을 찾습니다> 기증캠페인을 열었다. 캠페인의 목적은 시승격 50주년 특별전에 전시할 유물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부천시박물관의 소장품 다양성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 캠페인은 2023년 4월부터 특별전이 개막한 10월 말까지 지속하였다. 초기에는 기증 신청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8월부터 신청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에 연말까지 캠페인을 연장하여 자료 기증을 받았다. 그렇게 2023년 한 해 동안 총 8명의 기증자로부터 937건 2,010점의 기증품을 접수하였다.

표1. <장롱 속 유물을 찾습니다> 기증캠페인 접수 현황 (기증 시기순)

번호	자료명	건	점
①	진로 고려인삼주	1	1
②	수석	86	89
③	손목시계	1	1

번호	자료명	건	점
④	근현대 민속자료	738	1,808
⑤	성주국민학교 생활통지표 등	2	2
⑥	현대 민속자료	40	40
⑦	브라더미싱 등	2	2
⑧	역사 서적	67	67
⑨	부천 관련 서적	11	11
⑩	옹기	4	4
⑪	한준 묘지석과 석함	2	9
⑫	진로 판촉용 술	5	5
	계	959	2,039

표1은 기증자별 기증 현황을 도표화한 것이다. 부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도 있었고, 부천시립박물관의 테마와 관련한 자료, 과거와 현재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었다. 이처럼 박물관은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번호별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은 부천 송내동에 위치했던 진로주조 공장에서 생산된 고려인삼주이다. 제품 하단에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동 365”라는 생산지 표시가 있다. 제품은 미개봉 상태로, 금속 스크루 캡(screw cap) 형태의 뚜껑이 생산 당시의 것 그대로 보존 중이다. 병 내부에는 인삼이 담긴 인삼주가 있으며, 투명 유리 재질의 병이기 때문



도1. 송내동 진로주조공장
생산 고려인삼주

에 내부의 내용물이 그대로 보인다. 진로주조부천공장은 부천시승격 다음 해인 1974년 12월에 준공하였다.⁶⁾ 때문에 부천시승격과 함께 부천 산업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②는 수석으로, 기증자 가족의 기증 사례이다. 기증자는 작고하였으며, 기증자의 딸이 선친(기증자)의 수집품인 수석 여러 점을 보관하다가 기증하였다. 1926년생인 기증자는 국민학교 교사였으며, 1980~1990년대에 취미 삼아 수석을 수집하러 다녔다고 한다. 그렇게 모은 수석들의 좌대도 직접 제작하는 등 애정이 깊다. 기증자가 작고한 이후 딸이 이를 간직하고 있었으나, 개인의 주거지에 많은 양의 수석을 보관하고 있기에 한 계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 부천시립박물관에 수석전시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증하였다. 수석은 부천시립박물관 통합관 상설전시의 한 축이기도 하기에 향후 수석 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은 1970년대 말에 기증자가 직접 구입한 카시오 손목시계이다. 기증자는 항만공사 직원으로서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였다. 근무가 끝날 즈음인 1979년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해당 시계를 구매하였다고 한다. 기증자는 귀국한 뒤부터 현재까지 약 40년간 부천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1973년 시승격 이후 부천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부천으로 이주하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기증자료는 일반적인 손목시계이긴 하지만, 부천 이주민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④ 항목은 근현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이다. 기증자는 오랫동안 골동품을 수집해왔는데, 미래 세대에게 과거 한국의

6) “진로주조 부천공장 준공”『동아일보』, 1974. 12. 24., 2면.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여 박물관 기증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기증자가 특정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골동품 전반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를 크게 분류해본다면, 먼저 농경과 생활사 관련 자료, 옛날 가전제품, LP음반과 카세트 테이프,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농경과 생활사 관련 자료는 농사에 실제 쓰이던 농기구나 농경 생활에 쓰이는 물건들이다. 쟁기, 탈곡기, 뒤주, 지게, 절구, 맷돌, 풍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과거 가정이나 시장 등에서 사용하던 책상, 그릇, 저울 등이 있다. 여기에는 아이디알 미싱(재봉틀)도 포함할 수 있는데, 아이디알은 1960년대에 부천에 공장을 세우고 재봉틀을 생산하였다.⁷⁾ 따라서 재봉틀을 사용하던 생활사적 측면뿐 아니라 부천의 산업사에 대한 자료로도 연구와 활용을 할 수 있다.

가전제품은 TV와 라디오가 주를 이룬다. TV는 본체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고 상자에 여닫이문이 달린 오래된 모델과 주방이나 차량에서 사용하던 작은 제품들이 있다. 라디오도 다양한 연대와 모델의 라디오들이 있다. 이외에도 슬라이드 영사기, 터자기, 슬라이드 형식의 휴대폰 등의 가전제품이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LP음반을 상당수 수증했다는 점이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발매한 LP음반이 주를 이룬다. 앨범 자켓과 음반, 그리고 이를 포장하던 비닐들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대중음악 음반이 많긴 하지만, 춘향전이나 불경처럼 생소한 음반들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음반들을 주제별, 시대별로 분류 및 조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카세트 테이프, 조금 더 이른 시기의 두꺼운 8트랙 테이프까

지 있어서 음악시장과 관련한 컨텐츠를 꾸릴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2. 국산자동차주식회사 주권

기타 자료에는 문서, 미술품, 화폐, 우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당장 주목해볼 수 있는 자료는 국산자동차주식회사 주권이다. 국산자동차주식회사는 1930년대에 설립한 자동차 회사이다. 현재의 부평 지역에 위치했었는데, 설립 당시에는 행정구역상 이 지역이 부천에 해당하였다. 해당 회사는 해방 후에도 존속하다가 1967년에 거래를 정지하였다.⁸⁾ 이번에 수증한 주권에도 1967년도 3월까지의 주권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부천시의 영역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부천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했기에 부천 산업사의 한 조각으로 맞춰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근 지역의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연구·전시에 활용할 가치도 있다. 부

7) “아이디알 미싱 준공식”『동아일보』, 1963. 12. 5. 7면.

8) “당좌거래정지 서울(3일) 국산자동차주식회사…”『매일경제』, 1967. 4. 5. 4면.

천의 역사에 대한 유물이 많지 않고, 이제 축적하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에 귀중한 자료이다.

⑤는 1983년도 부천 성주국민학교 재학 당시 기증자의 생활통지표와 학
급의 단체 사진이다. 생활통지표에는 기증자의 이름과 당시 담임 선생님
의 이름이 적혀 있고, 신체발달상황,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교과학
습발달상황, 출석상황, 통신란, 검인란이 실려 있다. 단체사진은 학교 건
물 앞 계단에 다 같이 서서 촬영하였다. 선생님 한 분과 56명의 학생이 한
반을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학생들이 남색 베레모를 착용하고
있으며, 몇몇 학생은 동일한 빨간색 외투를 입고 있다. 기증자는 1년이 안
되는 기간을 부천시에서 거주하고 곧 주변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앞선 ③의 사례처럼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천을 거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 부천 교육사에서도 좋은 자료이다.

⑥은 기증자의 가족이 그동안 모아왔던 옛날 물건들이다. 손목시계, 옛
날 휴대폰, 외국 화폐, 동전, 토큰 등이 있다. 과거에 사용하던 1원, 5원 동
전과 시내버스 토큰이 우리나라의 과거 생활상을 조명하는 자료이다. 그
외의 자료들은 비교적 최근의 물건들이기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⑦은 기증자가 약 50년 전 결혼할 당시 혼수품이었던 가정용 부라더미
싱(재봉틀), 가정에서 사용하던 삼성 압력밥솥이다. 부라더미싱은 1960년
대부터 재봉틀을 생산하였는데, 이 재봉틀들은 해외로도 수출되는 등 많
이 쓰였다. 게다가 기증자의 재봉틀은 가정용으로 제작되어, 상자 안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형태이다. 가정에서 재봉틀을 어떻게 보관하고 사
용했는지 보여주기에 소장 가치가 높다. 삼성 압력밥솥에는 1980~1992년
의 삼성 로고를 사용하였기에 그 당시의 제작 상품으로 보인다. 이들도
다른 기증자료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나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중요

한 자료들이다.

⑧은 역사학 관련 원문 서적들이다. 1970~1980년대에 발간된 도서들이
며, 기증자가 공부하며 직접 구매하고 참고한 자료들이다. 『고려사』, 『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등의 책들이 세트로 있다. 권마다 기증자가
직인을 찍고 기증날짜를 적어두었다. 이 자료들은 전시나 연구에 필요할
때 참고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⑨도 위와 마찬가지로 서적 자료 기증이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부
천과 관련하여 발간한 책들이다. 주로 부천문화원에서 부천의 문화, 지명,
특산물 등에 대해 발간한 책과 수주 변영로의 작품 등을 다룬 책들이다.
이들은 희소성과 시간적인 면에서 아직 유물로 분류하기는 어렵겠지만,
부천 연구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⑩은 옹기 4점이다. 기증자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옹기이며, 부모
님께서 돌아가신 후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증하였다고 한다. 지름
65cm, 높이 90cm에 이르는 대형 옹기 항아리와 젓갈을 담아 쓰던 젓독
등이 있다. 일부 옹기는 내부에 손으로 하나씩 누른 자국이 남아 있어서
손수 제작한 제품으로 추정한다. 또한, 항아리 옹기는 배 부분이 완만하
고 입자름과 밑자름이 비슷하게 넓어서 서울·경기 지역에서 제작한 것
으로 보인다.

⑪은 한준(1542~1601)의 묘지석⁹⁾ 7점과 석함이다. 한준은 조선시대 중
기의 인물로, 정여립 모반사건을 고변하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순화군(順
和君 1580~1607)을 호종하였다. 호조판서, 한성부판윤, 이조판서 등을 지
내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여러 차례 다녀오는 등 다양한 업적을 지닌 인
물이다. 한준의 묘와 묘비는 부천시 계수동에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에

9) 묘지석은 죽은 이의 약력이나 가족사항 등을 적어서 묘에 같이 묻어두던 돌판 등이다.



도3. 한준 묘지석

계수동 개발로 청주 한씨 이양공·청평군파 종중에서 묘를 지금의 옥길동 자리로 이장하였다. 묘지석이 담긴 석함은 이장 당시에 종중에서 발견하였다. 청주 한씨 이양공·청평군파의 35세 종손이면서 한준의 16대 종손이기도 한 기증자도 이장 현장에 있었다. 그는 이장 당시에 묘지석과 석함을 부천시에 기탁하여 부천시박물관에서 보관하였다. 2024년에 이르러 후대를 위해 감사하게도 이를 기증으로 전환하였다.

묘지석 내용의 말미에는 “송정기원후(崇禎紀元後) 50년 정사(丁巳)”라고 찬술 시기를 적었다. 송정기원후 50년은 정사년인 1677년이다. 따라서 해당 묘지석은 1677년 이후에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조선시대의 유물이 부족한 부천시와 박물관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증품이다. 한준 묘와 신도비도 현재 부천시 향토문화유산이기에 이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⑫는 ⑪과 마찬가지로 부천 송내동 진로주조공장에서 생산한 술이다.

술병의 크기가 작고, “견본용비매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병도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판촉용 제품으로 추정한다. 기증자는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진로 공장에 재직하였고, 그 당시 회사로부터 받은 술 샘플을 보관하다가 이번 기회에 기증하였다. 실제로 해당 술들은 모두 제조장소인 “송내동”이 번지수와 함께 적혀 있다. 술의 종류도 다양하다. 길벗 버번 위스키, 길벗 로얄 위스키, 쥬니퍼 런던 드라이 진, 고려 인삼주 등이 5점 있다. 재미있는 점은 개중에 “반공, 방첩 P·X 초전박실”라는 문구와 함께 “₩” 단위와 빈 공란이 있는 스티커가 붙은 제품도 있다는 것이다. 가격표 스티커인 것으로 보이며, 군에 납품할 예정이었던 제품으로 추정한다.

III. 유물 수집의 중요성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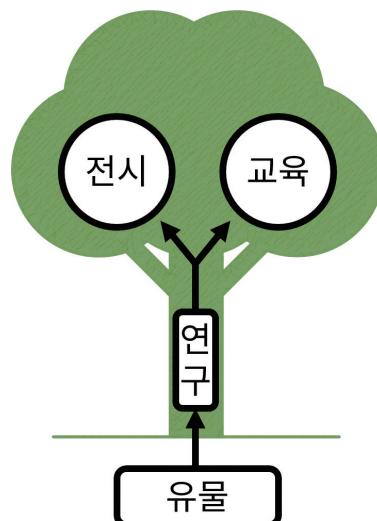
II장에서 그동안의 유물 수집 현황을 살펴보았다. 통합 전에는 각 박물관의 테마에 대한 자료들만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21년에 박물관을 통합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기증 받았다. 기증 받은 자료 중에는 수석이나 옹기처럼 기존 테마와 관련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생활사와 관련한 유물들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부천의 역사와 관련 있는 한준 묘지석, 아이디얼 미싱, 국산자동차주식회사 주권 등이 있었다.

부천시립박물관은 여러 테마박물관을 합친 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각각의 테마박물관일 때에는 관이 나뉘어 있었기에 각 공간의 특색을 살려 전시·교육·유물수집을 해도 무방했다. 하지만 이들을 한 공간에 묶고 “시립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여러 박물관이 통합한 경위를 잘 모르는 관람객들은 한 공간에 서로 다른 테마가 왜 같이 있는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시립박물관”이라는 용어 때문에 지역의 역사를 기대하고 방문했으나 그런 내용이 많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부천시립박물관은 기존의 테

마박물관적 성격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담은 종합박물관적 성격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금은 그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과도기에 박물관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적절한 유물을 수집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박물(博物)이라는 단어는 '온갖 물건들'을 이른다. 박물관은 온갖 물건들 즉 유물을 담은 공간이다. 박물관 학예사들의 역할은 이 공간에 소장 중인 유물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연구 성과와 유물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시를 열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박물관을 지탱하는 주춧돌은 '유물'이다. 유물이 있어야,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전시와 교육이 꽃을 피울 수 있다. 부천시립박물관이 부천시의 정체성을 담은 종합박물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유물을 먼저 수집해야 한다. 유물을 수집하고 그 유물을 연구하여 전시와 교육을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박물관의 정체성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부천시의 정체성을 담은 박물관을 지향한다면, 그에 발맞춰 부천의 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이번에 수증했던 한준 묘지석이나 아이디얼 미싱처럼 부천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는 물론, 간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료도 여기에 해당한다. 가령, 부천시는 복승아가 유명하여 과거에는 복승아밭이 많았



도4. 박물관에서 유물 수집의 중요성

고, 이곳에서 생산한 복승아를 수출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복승아와 관련한 그림이나 시가 적힌 서화가 있다면 수집 대상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인공업 관련 자료, 수도권 전철 관련 자료,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관련 자료들도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다. 즉, 부천사와 관련한 자료의 범위를 넓게 잡고 수집하는 것이다.

부천사에 대한 자료만 수집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물관이 반드시 해당 지역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과의 관련도는 떨어지더라도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료라면, 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도 박물관의 역할이다. 따라서 최근에 기증 받은 생활사 자료들처럼 과거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수집 대상에 해당한다. 생활사에 대한 자료들은 부천의 역사를 다룰 때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과거 생활에 관한 전시를 선보일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특정 분야의 생활사 자료가 많이 모이면,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특별전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테마(교육, 유럽자기, 수석, 옹기, 향토)와 관련한 자료들도 수집 대상으로 잡을 수 있다. 다만, 테마 자료는 이미 많이 소장중이고 박물관 자체도 종합박물관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시기이기에 그 비율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 소장품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각 테마에 대해 전시와 연구의 가치가 있는 자료라면, 박물관 내부 협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맷음말

본고에서는 부천시립박물관의 유물 수집에 대해 간략하게 다뤄보았다. 2021년 박물관 통합 전까지는 각 테마별 성격에 맞는 유물들을 각자 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부천시립박물관으로 통합하면서 박물관은 종합박물관이라는 새로운 성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에는 통합 이후에 수집한 자료들이 있었다. 기존 테마와 관련한 자료들도 있긴 했지만, 과거 생활사 자료나 부천의 역사와 관련한 자료들이 수집품의 주를 이루었다. 이는 종합박물관으로서 부천시립박물관의 첫 발걸음에 해당할 것이다. 앞으로 여기서 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한 연구·전시·교육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유물의 수집을 위해서는 여유로운 공간도 필요하다. 부천시립박물관에는 소장품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있는데, 최근의 수집품들로 인해 수장고는 어느 정도 차 있다. 조금 더 밀도 있게 정리를 한다면 공간이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넓은 공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유물 수집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천시와 박물관은 수장고 증축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물을 수집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집한 유물을 연구해야 보다 정확한 보존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전시·교육 등의 컨텐츠로 알맞게 활용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학예지, 학술사업 등을 통해 외부연구자들이 부천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축적할수록 컨텐츠 생산은 물론이고, 자료 수집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고 자료를 발굴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천시와 박물관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연구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립박물관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테마박물관에서 종합박물관으로 성격을 바꾸면서 유물·연구·전시·교육의 영역을 거의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표면적인 규모는 이미 종합박물관의 그것에 견줄 수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기대치도 높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직 채워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부천시와 박물관 직원들의 많은 노고를 예상한다.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유산이나 역사에 대한 발굴이 아직 많지 않은 부천이지만, 언젠가는 박물관이 그중에서 한 영역을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천활박물관의 유물 현황과 향후 전략 방향

채지원¹⁾

I. 머리말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 중 하나인 '활(弓)'은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천활박물관은 이러한 한국의 전통 활과 활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공립박물관으로서, 활을 비롯한 전통문화의 전시 및 연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부천시는 한국의 전통 활 문화를 보존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에 부천활박물관을 개관하였다.²⁾ 개관 당시 국가무형유산 제47호 궁시장 김장환(金長煥, 1909-1984)의 유품 240여 점을 기증받았고, 현재는 약 500여 점의 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³⁾

이 글에서는 부천활박물관의 설립 배경과 목적,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또한 현재 소장 유물 현황을 종류별로 분석하고, 향후 수집 방향을 제시하여 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
- I. 머리말
 - II. 부천활박물관의 개요
 - III. 부천활박물관의 현재 유물 현황 분석과 향후 전략
 - IV. 맺음말

1) 부천활박물관 학예사

2) 김창선, "부천 종합운동장에 활박물관 개관", 연합뉴스, 2004.12.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851610?sid=103> (검색일 : 2024년 10월 17일).

3) 부천활박물관은 2024년 현재 총 219건 481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천활박물관이 한국의 전통 활 문화를 대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집을 통한 전통 활 문화의 보존과 연구, 그리고 전시로서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려 한다.

II. 부천활박물관의 개요

2024년 현재 부천에는 여러 주제의 테마형 박물관이 있다. 옹기관, 향토 역사관, 수석전시실, 유럽자기실, 교육실로 구성된 부천시립박물관, 부천 활박물관, 펄벅기념관, 수주문화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이 부천문화재단 산하의 공공기관이다.⁴⁾ 2022년에 개관한 수주문화관과 고강선사유적체험관을 제외하면,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부천시가 ‘도서관·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표방하면서부터 이러한 박물관들이 설립되었다.⁵⁾ 부천문화재단 소속이 아닌 부천시 관내 공·사립박물관은 부천자연생태박물관, 한국문화박물관, 부천물박물관, 부천로보파크 등이 있다.

부천시의 공립박물관은 대체로 테마형 박물관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색과 관련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다.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이주, 옹기를 구워 생계를 꾸려 나갔던 향토사가 있는 부천시립박물관의 옹기관이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펠 벅(Pearl S. Buck, 1892-1973)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소사동에 세웠던 복지시설 ‘소사회원’ 부지에 설립된 부천펄벅기념관이 그러하며, 수주문화관과 고강선사유적체험관도 각각 부천과 대대로 연고가 있었던 시인 변영로(卞榮魯, 1897-1961)와 고강동의 청동기 유적과 연관되었다.

4)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가 출연한 공익·비영리법인으로, 광역시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의 문화재단이다. 2001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다.

5) 김대중, 「부천시립박물관의 탄생과 전시콘텐츠」『부천과 박물관』, 부천시박물관, 2023, 236쪽.

그중에서 부천활박물관은 부천종합운동장(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입구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활’이라는 테마도 역시 부천시의 향토사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전통 활은 ‘각궁(角弓)’이라 하는데, 대나무와 뽕나무, 참나무, 가공한 물소뿔 등의 재료를 믿어 부레를 끓여 만든 풀로 서로 결합시켜 강하고 탄력성이 있도록 제작한다. 조선시대부터 전해진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각궁을 만드는 장인들이 전국에 있었는데, 경기도 부천 일대에도 터를 잡고 대를 이어서 활을 제작하는 장인이 있었다. 부천의 대표적인 활 장인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47호로 지정된 궁시장 김장환(金章煥, 1909-1984)이었다.⁶⁾ 김장환의 슬하에는 장남 김기원(1934-1988)과 제자 김박영(1929-2011)이 있었고, 김박영의 장남이자 제자 김윤경(1971-)이 궁시장 보유자로서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잇고 있다.⁷⁾

그리고 부천시에서 박물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던 2004년 6월경, 김장환의 차남 김기홍이 선친의 유품 240여 점을 시에 기증하였다.⁸⁾ 김장환이 생전 제작, 소장하고 있던 각궁 및 제작품, 활쏘기 관련 용품, 활쏘기 대회의 기념패, 메달, 접시 등의 기념품, 생전 인터뷰나 기사가 실린 도서 및 잡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실제로 활을 제작할 때 사용하였던 도구류 일괄 등이었다. 또 김장환의 유품뿐만 아니라 개관 당시 부천활박물관의 명예 관장을 지냈던 김박영이 직접 제작, 재현한 활 유물, 시장(矢匠) 유영기(劉永基, 1936-2023)가 직접 제작, 재현한 화살 유물 등도 포함되었다.

2024년 현재까지 부천활박물관의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6) 김일환, 『궁시장』,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284쪽.

7) 현재도 부천활박물관은 궁시장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와도 협조, 연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활과 관련된 교육·체험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8) 양주승, “부천에 활박물관 개관…좋은 학습체험장 될 듯”,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4.12.15.,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65084133> (검색일 : 2024년 10월 18일).

표2. 부천활박물관 주요 연혁

2004	故 김장환의 차남 김기홍으로부터 국궁 관련 유물 240점 기증 협약식 부천활박물관 개관	2017	부천시박물관 정책토론회 '부천시박물관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각궁, 다채로운 옷을 입다' 개최 지역문화예술품 레전드 육성사업 선정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박물관(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위수탁 운영		부천시박물관 통합 홈페이지 오픈 개관 1주년 특별전 '각궁의 이해' 개최
2005	부천시박물관 통합 홈페이지 오픈	2018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박물관(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페스티벌, 옹기, 향토) 위수탁 운영 종료
	개관 1주년 특별전 '각궁의 이해' 개최		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페스티벌, 옹기, 향토) 위수탁 운영
2006	부천시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e뮤지엄(www.emuseum.go.kr)' 등록 특별전 '전쟁과 무기' 개최	2019	특별전 '궁시장 김박영'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부천활, 그 명맥을 잇다' 개최 대한궁도협회 소속 부천정과 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뿔활' 개최
	부천활박물관 제1종 전문박물관 경기도 등록		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페스티벌, 옹기, 향토) 위수탁 운영 종료
2007	특별전 '따로 또 같이 빛깔을 쏘다 I' 개최	2020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박물관(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페스티벌, 옹기, 향토) 위수탁 운영
	부천시박물관 박물관 경력인증 대상기관 선정		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페스티벌, 옹기, 향토) 위수탁 운영
2008	체험전 '따로 또 같이 빛깔을 쏘다 II' 개최	2021	특별전 '활쏘기, 매력에 취하다'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과녁과 마주서다' 개최 부천시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특별전 '각궁-part1: 재료와 제작과정'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오락장' 개최
2009	특별전 '활-다시 보는 최종병기 활' 개최	202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각궁 제작 설명서' 개최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복합문화공간조성(전시, 체험, 교육, 공연)		특별전 '畫中射藝: 옛 그림 속의 우리 활' 개최
2011	따로 또 같이 빛깔을 쏘다 III' 개최	202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궁방탐방(弓房探訪)' 개최 부천활박물관 인문학 특강 故 김장환 선생 서거 40주기 학술세미나' 개최
	특별전 '액궁로드=악기로드: 악기로 달리는 액궁로드' 개최		부천활박물관의 공간은 사무실과 수장고를 포함,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기증자전시실의 세 주요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에는 활과 화살 및 관련 도구 유물, 화포 등의 복제, 재현 유물들이 전시되
2013	특별전 '활쟁이 그들의 활 다시 태어난다' 개최	2024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특별전 '나라의 기틀을 세운, 조선 무과' 개최		특별전 '액궁로드=악기로드: 악기로 달리는 액궁로드'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각궁 제작 설명서' 개최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2014	부천활박물관 교육·체험프로그램 '대나무 활 만들기', '전통 활쏘기' 경기도관광공사 우수교육프로그램 선정	2021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특별전 '나라를 지켜낸 과학의 힘' 개최		특별전 '액궁로드=악기로드: 악기로 달리는 액궁로드'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각궁 제작 설명서' 개최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2015	특별전 '양궁전' 개최	2022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특별전 '우리 활 재료전-활 문화를 이루다' 개최		특별전 '액궁로드=악기로드: 악기로 달리는 액궁로드'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각궁 제작 설명서' 개최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2016	특별전 '활로 태평성대를 꿈꾸다' 개최	2023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부천활박물관 교육·체험프로그램 '대나무 활 만들기', '전통 활쏘기' 경기도관광공사 우수교육프로그램 선정		특별전 '액궁로드=악기로드: 악기로 달리는 액궁로드'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각궁 제작 설명서' 개최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2017	경기도 공,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우수모범사례관 3관 선정 (교육, 활, 페스티벌)	2024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부천활박물관 국립민속생활사협력망사업 선정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201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 '살장이' 개최		부천활박물관 활 연구 공유회 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지역문화예술품 육성사업 선정		

어 있으며, 기획전시실에서는 특별전이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획전을 전시한다. 기증자전시실에는 故 김장환의 유품인 활 제작 도구와 그 재료, 대회 기념품 등의 기증 유물들로서 장인이 남긴 삶의 기억과 기록을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공간이 20년이 지나 노후화되었고, 소장 유물 수의 한계로 인해 상설전 컨텐츠가 소략하며, 수장고 공간마저 부족하다는 점은 매번 지적받는 사항이다.

부천활박물관의 주요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부천활박물관 주요 현황

구분	내용
명칭	부천활박물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설립자	부천시장
등록번호(연월일)	제07-박-10호(2007. 5. 31.)
개관일	2004. 12. 14.
총부지면적	811.67m ²
건물 총 연면적	669.67m ²
수장고	1실 / 18m ²
전시실	3실 / 366m ²
교육실	3실 / 254m ²
사무실	1실 / 157m ²

한편 박물관의 주요한 역할에는 보존 및 전시 이외에도 교육이 있는데, 부천활박물관 또한 개관 이래 활쏘기를 포함한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대나무 활 만들기’와 ‘활 문화교육과 활쏘기’가 부천활박물관의 대표적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며, 한지, 보자기, 자개 등 전통 공예와 관련된 만들기 체험 역시 운영

하고 있다. 모든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유료이며 교육 대상은 주로 가족 단위의 아동이지만, 특별전이나 국가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전과 연계하여 관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부천활박물관의 2020~2023년의 교육·체험 사업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4. 부천활박물관의 2020~23년 교육·체험 사업 현황

연도	사업명	기간	참여 인원(명)
2020	전시 해설 ‘활 이야기’	1.~12.	
	문화가 있는 날 ‘전통놀이 한마당’	1.~12.	
	대나무 활 만들기	2.~12.	
	오색전지 공예교실	3.~12.	
	인문학 특강	3.~12.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진행 중단
	활 문화교육과 활쏘기	3.~12.	
	궁도장 연계 활쏘기 교실	3.~12.	
	역사탐험대	3.~12.	
	철릭 원피스 만들기	4.~12.	
	5G 기반 실감형 전시 체험존 조성	5.~12.	-
2021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 ‘우리 동네 공방 즐기기’	5.~8.	210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한 바퀴’, ‘특명! 부천활박물관의 보물을 찾아라!’	3.~12.	129
	부천활박물관 어린이날 체험 프로그램 ‘전통놀이 한마당’	5	81
	대나무 활 만들기(비대면)	6.~11.	58
	오색공예교실(비대면)	6.~11.	388
	여름방학 특별 교육·체험프로그램(비대면) ‘등공예: 라탄으로 엮는 여름 감성 소품’	8.~12.	76
	활 문화교육과 활쏘기	5.~11.	120

연도	사업명	기간	참여 인원(명)
2021	활활이야기(전시해설)	3.~12.	1,584
	역사탐험대	6.~11.	74
	특별전 전시연계체험	10	25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한 바퀴', ‘특명! 부천활박물관의 보물을 찾아라!’	2.~12.	129
	대나무 활 만들기	4.~11.	214
	오색공예교실	4.~12.	625
	활 문화교육과 활쏘기	4.~11.	614
2022	인문학 특강	10	49
	고주몽, 꿈 쏘는 볼펜 만들기	4.~11.	116
	힐링 식물로 들썩들썩	10.~12.	116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생활공예 만들기’	8	29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12	21
	협력기획 프로그램 ‘우리는 친구’	8	42
	5G 실감형 국궁체험	1.~12.	10,450
2023	역사탐험대	4.~11.	66
	활활이야기	1.~12.	3,816
	가을 특별프로그램 ‘청사초롱 만들기’	10	20
	문화가 있는 날	1.~12.	281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기획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대나무 활 만들기’	8	25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나만의 자개 꾸미기’	8	96
	국가무형문화재 시연 행사	9	48
	오색공예교실	3.~11.	115
	대나무 활 만들기	4.~11.	167

연도	사업명	기간	참여 인원(명)
2023	활 문화교육과 활쏘기	4.~11.	210
	보자기 100가지 활용법	5.~7.	149
	철릭 만들기	6.~8.	144
	인문학 특강 ‘활 연구 공유회’	10	26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한 바퀴’	2.~11.	996
	활활이야기	2.~11.	3,665
	역사탐험대	2.~11.	1,245
	5G 실감형 국궁체험	10.~12.	784

부천활박물관은 다양한 활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체험을 위한 체험이 아닌,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과도 연계하여 창의 적이면서도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I. 부천활박물관의 현재 유물 현황 분석과 향후 전략

부천활박물관의 2024년 현재 소장 유물 수는 총 219건 481점이다. 2018년의 부천시박물관 통합 유물감정평가 이전에는 총 248건 555점이었으나, 박물관 소장 유물과 자료의 정확한 가치 재정립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로 유물이 삭제되는 등 수량에 변동이 있었다. 이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9년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 유물 등록을 진행, 현재도 수량 및 이동 상황, 전시 상태 등을 관리하고 있다.⁹⁾

9) 그러나 몇몇 유물의 주수량 및 부수량, 사진, 실측치, 세부 설명, 이동 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간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천활박물관의 소장 유물 중 대부분은 활과 화살, 그리고 활쏘기나 무예와 관련된 유물로, 박물관의 테마이자 정체성으로서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요 유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¹⁰⁾

표5. 부천활박물관의 주요 유물 현황

구분	유물 수량		비고
	건	점	
활	각궁	11	11 호미명 각궁 포함
	정량궁	1	1
	예궁	1	1
	목궁(고궁)	1	1
	죽궁	1	1
노	수노기	1	1
총포	신포	1	2
	소총통	1	1 태평천국명
	고구려화살	7	7
	백제화살	10	10
	가야화살	7	7
화살	신라화살	5	5
	통일신라화살	5	5
	고려화살	2	2
	조선화살	10	10
	죽시	1	8
	신전	1	5 전가 포함
	대신기전	1	1
	중신기전	1	1 화차 장착용
	소신기전	1	1

10) 강신엽,『부천활박물관 외부인의 이해와 기대』『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부천활박물관, 2023, 9쪽.

구분	유물 수량		비고
	건	점	
화살촉	마제석촉	1	9
	청동촉	1	12
	철촉	1	8
전통	5	5	비단 전통 포함
깍지	1	4	
촉돌이	1	1	
완대	1	1	
서적	과녁	옹후	1 일부
	한국의 궁시	1	1
	국궁	1	1
계	83	124	

그러나 부천활박물관은 박물관 설립 요건 기준에는 소장 유물 수를 맞출 수 있지만, 절대적인 소장 유물 수 자체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물의 다양성이 미흡하며 소장 유물의 가치도 다소 낮다는 사실 또한 약점이 될 수 있다.¹¹⁾ 또한 자료 수집 및 관리, 유물 구입과 관련된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이후 문제점이 될 수도 있으며, 박물관의 위상 제고에 제한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¹²⁾ 이는 타 박물관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개관 이후 기획전이나 특별전 관련이 아닌, 부천활박물관만의 단독 도록이 제작된 적 없다는 것도 연구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으로는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산 미책정의 문제이지만, 개별 도록을 제작하게 된다면 부천활박물관 소장 유물의 정리에 도움이 되며 이후에도 개별 유물의 연구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11) 강신엽, 앞의 책, 12쪽.

12) 보존처리 미비에 따른 유물 훼손의 우려 및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다.

박물관과 관람객은 전시와 유물을 통해 가장 처음 만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와 유물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한 소장품 확보 방안이 박물관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해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³⁾ 그리고 박물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소장품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시행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예산 책정 후 대대적인 유물 구입을 통해 가치 있는 유물을 확보해야 하며, 그 확보 과정을 통해 부천활박물관을 홍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부천활박물관의 개요와 연혁, 그리고 유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4년 개관한 부천활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활 전문 박물관이라는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이다. 타 기관과 차별화된 부천활박물관의 독특한 개성으로서 전시 컨텐츠를 구성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기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 활의 고장’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통해 향토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다는 특성 역시 있다. 또한 부천에 연고를 두었던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보유자와의 협업과 연계 또한 타 지역, 타 기관과는 다른 특징 중 하나다.

하지만 전시 공간 및 수장고의 노후화, 소장 유물의 소략함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천활박물관의 약점으로 여겨진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약점은 절대적인 소장 유물 수 자체가 부족하고, 유물의 다양성이 미흡하며 소장 유물의 가치가 다소 낮다는 사실이다. 또한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학술지를 발간하거나, 전시를 전제로 한 연구 혹은 이론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라는 점 또한 부천활박물관의 약점으로 꼽힐 수 있다. 전통 활과 활 문화 관련 유물들이 더 확보되지 못한 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부천활박물관은 한국의 활 문화를 대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서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적인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유물의 확보이지만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향후 부천활박물관은 국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유물의 대여 및 교류와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접궁시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예천박물관, 육군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등 활 문화와 무예, 무기와 연관이 있는 국, 공, 사립 박물관 등과는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장품 교류 및 순회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강점, 자원을 공유하여 현재의 부천활박물관 소장품 구성에서 나타나는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시도를 통해 시너지 효과와 전시 기획의 질적 향상을 도모, 발전을 이끌어내어 위상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엽 외,『부천활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부천활박물관, 2023.
김일환,『궁시장』,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배기동 외,『부천과 박물관』, 부천시박물관, 2023
오영찬 외,『국·공립박물관 배치기준 및 설립요건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김창선, “부천 종합운동장에 활박물관 개관”, 연합뉴스, 2004.12.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851610?sid=103> (검색일: 2024년 10월 17일).
양주승, “부천에 활박물관 개관…좋은 학습체험장 될 듯”,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4.12.15.,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65084133> (검색일: 2024년 10월 18일).

13) 오영찬 외,『국·공립박물관 배치기준 및 설립요건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142~143쪽.

부천펄벅기념관의 소장유물현황과 수집방향

박민주¹⁾

목차

I. 서론

II. 소장유물의 현황

III. 유물 수집 방향

IV. 유물 수집 및 활용 전략

V. 결론

I. 서론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펄벅기념관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을 돋기 위해 소사회망원(1967~1976)을 설립하여 운영한 펄 벽을 기리기 위해 2006년 개관했다. 부천시는 기념관을 통해 펄 벽이 한국에서 보여준 인간 존중의 정신과 부천과의 연관성을 대중과 공유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기념관은 국제 교류, 펄 벽 연구, 서거 기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념관은 총 291건 373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건립 당시 한국펄벽재단, 부천시, 장영희, 김희태, 변창남 등 여러 기관이나 인물이 기증하였다.

소장유물들은 박물관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박물관의 특장점은 실제 유물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다. 부천펄벅기념관은 펄 벽의 출생지나 집필활동의 주 무대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펄 벽의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진 유일한 장소로서

1) 부천펄벅기념관 학예사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기념관은 편 벽에 관한 유물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공헌활동과 그에 따른 영향을 나타내는 유물도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천과 편 벽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유일한 편벽기념관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념관에서 유물 수집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소사회망원의 유물을 수집하여 한국 혼혈인의 역사에서 소사회망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둘째, 편 벽과 부천,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확보하여 현재 부천에서 편 벽이 가지는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편 벽의 한국 방문 기간의 여정과 교류한 인물들과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여 편 벽과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기념관은 개관 이후 유물 수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시 내용이 편 벽에 한정되어 있어 기념관이 왜 부천 소사구에 건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편 벽의 저서들은 전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시개선 및 콘텐츠의 외연 확장을 통해 추가적인 유물 수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의 II장에서는 현재 편벽기념관의 소장유물을 알아보고 분류하여 기념관 유물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전 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기념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물을 수집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유물 수집 방향성을 기반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할지 그리고 수집한 유물을 기념관에

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기념관의 유물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 기념관의 역할 등 종합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II. 소장유물의 현황

1. 소장유물 분석

현재 기념관에는 총 291건 373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기증과 복제 및 구입으로 확보한 유물이며 기록상 자체 제작은 1건 1점으로 추정된다. 이 중 55건 55점의 유물은 전시 중이며 236건 318점은 수장고에 소장하고 있다. 한국편벽재단, 김희태, 부천시, 장영희, 변창남, PSBI, 자체 제작, 중국 등에서 기증 및 구입으로 유물을 확보하였다. 기증은 총 156건 237점이며 구입은 34건 35점, 복제는 15건 15점 그리고 미상은 86건 86점이다. 구입과 복제는 주로 부천시, PSBI 그리고 기념관에서 이루어졌는데, 부천시의 경우 기념관 건립 당시 서적은 전량 구입을 통해 확보하였고 마패와 보석함 같은 유물은 복제하였다. 기념관에서 복제한 유물은 노벨문학상 메달인데, 기존 부천시의 메달이 낡아서 대체하려 제작하였다. PSBI의 구입 2건 2점은 기념 메달을 구매한 것이다. 미상의 경우 대체로 한국편벽재단에서 기증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연구를 통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입수처 및 입수 방법은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1. 부천편벽기념관 소장유물 입수처 및 입수방법

연번	입수처	기증		구입		복제		미상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1	한국편벽재단	53	134						
2	김희태	73	73						
3	부천시			32	33	14	14		
4	장영희	16	16						
5	변창남	12	12						

연번	입수처	기증		구입		복제		미상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6	PSBI	1	1	2	2				
7	기념관				1	1			
8	중국	1	1						
9	미상					86	86		
합계		156	237	34	35	15	15	86	86

소장유물의 물질적 종류는 크게 사진, 서적, 그림, 영상, 서류, 기타로 구분했다. 서적은 174건 175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사진은 153건 134점으로 그다음을 차지한다. 페 벽 및 소설의 배경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은 12건 12점이며 주로 기념관에 대해 다룬 영상자료는 8건 8점이다. 감사장, 편지, 소사회망원 이력서 등이 포함된 서류는 14건 14점이며 타자기와 책상 등 기타 유물은 30건 30점이다. 또한, 내용적 분류는 크게 생애, 문학, 사회, 기념관으로 분류하였다. 페 벽의 개인과 관련된 생애는 총 46건 100점이며 문학적 부분은 179점 180점으로 분류된다. 소사회망원과 여러 사회활동과 관련된 유물은 46건 73점이며 페 벽 사후 기념관과 관련 있는 유물은 20건 20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장유물의 물질적, 내용적 구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부천페 벽기념관 소장유물 구분

연번	구분	생애		문학		사회		기념관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1	서적			174	175				
2	사진	26	80			26	53	1	1
3	그림					4	4	8	8
4	영상					4	4	4	4
5	서류	7	7	3	3	3	3	1	1
6	기타	13	13	2	2	9	9	6	6
합계		46	100	179	180	46	73	20	20

이를 통해 기념관의 유물들은 한국페 벽재단, 김희태, 장영희 등의 기증과 부천시의 구입과 복제로 마련되었으며 기증의 비중이 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물 대다수인 271건 353점은 페 벽의 생애와 문학 그리고 사회활동과 관련 있으며 기념관 자체와 연관 있는 유물은 20건 20점에 불과하다. 페 벽의 생애 관련 유물은 주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학과 관련된 유물은 서적이 대다수이다. 그나마 사회활동 관련 유물은 사진,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수집되었으나 총 46건 73점으로 문학에 비하면 소량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문학 부문의 유물 수량은 많으나, 서적 대부분은 대지, 살아있는 갈대, 파빌리온, 동풍서풍, 칠판 등 주요한 작품들이 중첩되어있으며 종류는 대략 40종에 그치는 실정이다.

2. 보존 상태

기념관은 전시장 한쪽에 수장고 문폐를 붙여놓고 유물을 소장 중이기는 하나 항온항습기가 없는 관계로 유물이 훼손되기 쉬운 환경이다. 현재는 각 유물을 중성지로 포장하여 보습제와 방충제를 비치하였으나 유물을 보존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다. 이 문제는 기존에도 지적됐으나 예산과 행정상의 이유로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소장유물 대다수는 지류(서적, 사진, 서류 등)이며 지류는 온습도에 민감한 유물이다. 따라서 항상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어야 하나 현재 기념관의 수장고로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다.

III. 유물 수집 방향

페 벽은 중국에서 자랐고 『대지』 등 중국을 배경으로 한 여러 작품을 집필하였으며 중국의 고전인 『수호지』도 번역하는 등 페 벽의 문학과 중국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에서 또한 집필활동을 비롯하여 PSBI설립, 웰컴 하우스 운영 등 여러 사회활동 또한

진행하였고,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퍼카시에 안장되어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펠 벽의 생가나 묘지가 유적으로 존재하며 인생의 반을 각 국가에서 보낸 만큼 문학적 기반 또한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은 펠 벽의 유·무형적인 자산이 풍부하여 이러한 결과로 펠벽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펠 벽의 문학에 상당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있으며, 다방면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이 지난 펠 벽의 유형적 자산은 옛 소사회망원의 자리와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4권이다. 무형적 자산은 1960년대 펠 벽의 방한 당시 이루어졌던 국내 인사들과의 교류 그리고 소사회망원을 통해 펼친 그의 정신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천펠벽기념관의 전시 방향성은 펠 벽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펠 벽과 부천과의 연관성, 한국에서의 발자취, 한국에서 펠 벽의 위상 및 영향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념관의 유물 수집 방향은 펠 벽의 친필원고, 저서, 기록물 등 손때문은 일차적인 유물이 아닌, 소사회망원과 연관된 자료, 한국 혼혈 아동의 기록, 방한 당시 국내 인사들과의 교류 자료 등과 같은 이차적인 유물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를 연구하여 한국과 부천에서 펠 벽의 영향 등 부천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기념관의 전시를 펠 벽의 문학에서 벗어나 소사회망원, 한국펠벽재단, 혼혈인, 다문화가정 등으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외연이 확장되면 수집할 유물의 종류는 늘어나며 전시콘텐츠 또한 다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념관의 유물 수집 방향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펠 벽의 문학

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펠 벽의 문학과 관련된 유물은 총 179건 180점이다. 그중 서적이 174건 175점으로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문학 관련 유물 수집의 방향은 기준의 것을 정리하고, 문학과 관련된 연구 결과

를 수집 및 번역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현재 기념관에서는 펠 벽의 저서와 번역 목록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펠 벽의 저서를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국내에 번역된 저서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소장한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미확보된 저서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후 해당 서적들을 수집한다면 펠 벽의 문학 부문 유물은 구색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동시에 펠 벽의 문학을 주제로 한 국외의 연구자료를 확보하여 번역작업을 실시한다면 국내 펠 벽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추후 펠 벽 연구자를 양성한 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 소사회망원

소사회망원과 관련된 유물을 확보하는 목적은 펠 벽의 부천시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이 국내 혼혈인들의 역사에서 어떠한 영향을 가졌는지와 현재 다문화 사회에서 펠 벽이 지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사회망원 자료뿐만 아니라 기존의 혼혈아 고아원이던 명성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소사회망원의 존재가 한국 혼혈인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사회망원 폐쇄 이후 한국펠벽재단의 활동을 추적하여 펠 벽의 정신을 끊기지 않고 이어나갔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나아가 부천의 다문화가정의 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여 현재 부천에서 펠 벽이 지니는 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혈아 고아원의 자료, 소사회망원 입소자 카드, 한국펠벽재단의 활동 자료, 부천의 다문화가정 및 정책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펠 벽의 방한

펠 벽은 1960년대 조선일보와 여원사의 초청을 받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였다. 기존의 유일한 박사와 인연이 있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한

국과 펠 벽의 연이 공식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한국펠벽재단과 소사회망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펠 벽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이 방한 때 펠 벽은 서울, 대구, 경주, 부산 등을 돌며 여러 강연을 하였고 한무숙·한말숙·노윤숙·장왕록 등 국내 유명 인사들과 교류를 하게 된다. 이런 국가적인 초청행사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구전 및 단편적인 정보로 전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펠 벽의 방한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펠 벽이 누구와 교류하였는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활용하여 전시하여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관객들이 미국과 중국의 펠 벽보다는 한국에서의 펠 벽을 더 흥미롭고 친근하게 여길 것이다.

IV. 유물 수집 및 활용 전략

1. 유물 수집

기념관은 2006년 개관 이후 체계적인 유물 수집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국내외 학술대회 및 각종 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들이 자료집 형태로 제작되어 소장하고 있으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유물 구입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 방향을 설정하고 구입만 하면 되는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유물 수집계획은 최대한 기증 및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현 가능한 수집계획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유물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관련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네 기관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펠 벽의 문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이다. 현재 기념관은 미국과 중국의 펠벽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

었으며, 매년 순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심포지엄 때 개최 기관에 요청하여 미국과 중국에서 출판된 펠 벽의 저서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또한, 매해 발표되는 연구 및 발표 자료를 수집하여 번역한다면 추후 국내 펠 벽 연구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한국펠벽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소사회망원과 한국펠벽재단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이다. 한국펠벽재단은 소사회망원을 운영하였으며 펠벽기념관을 위탁 운영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소사회망원생들의 입소자 카드라던지 여러 관련 서류 등을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확인하고 선별하여 수집하게 된다면 기념관의 소사회망원 관련 자료는 풍족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는 부천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와의 협력이다. 부천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다수의 다문화가정이 존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료와 부천시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면 기념관에서 펠 벽과 혼혈 그리고 현재 다문화까지 관련지어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지역 내 대학교와의 협력이다. 미국과 중국의 펠 벽 연구기관들은 단순 행사만 운영하지 않고 지역 대학교와 협력하여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펠 벽과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펠벽기념관은 지속해서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기념관의 사업은 연속적이나 내용은 단발성에 그치는 행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기념관의 인력 상황으로 보아 자체적인 학술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를 지역 내 대학교와 협업하여 펠 벽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천 관내에는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있다. 이 중 유한대학교는 유한양행에서 운영하는 대학교로 유일한 기념관을 건립하여 운영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펠 벽과 유일한과의 관계를 유한대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한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국사학과가 존재하며 이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 혼혈인의 역사, 혼혈과 아원의 역사, 한국과 미국의 혼혈아 정책을 연구하고 이 과정에서 펠 벽과 소사회망원의 역할과 영향을 도출한다면 하나의 전시콘텐츠로 확립 될 것이며, 부천과 펠 벽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펠 벽의 한국 및 부천에서의 행적을 정리 후 이를 발전시켜 펠 벽이 만난 국내 인사들, 펠 벽의 여행경로 등을 연구해 놓을 필요가 있다.

2. 유물 활용 전략

지금까지 기념관의 유물 수집 방향과 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은 수장고에만 소장하는 것이 아닌 전시와 교육 등 여러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지역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자료들을 수집 후 어떻게 활용할지 전시기획,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출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네 가지 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수집한 자료는 기념관 전시기획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기념관의 전시 구성은 펠 벽의 생애, 문학, 소사회망원, 한국과 유한양행과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흥미로운 설명 없이 다소 메마른 전시만이 이루어질 뿐이다. 또한, 기념관의 건립 배경을 전시를 통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어렵듯이 부천시에 왜 펠벽기념관이 설립되었는지 짐작할 뿐이다. 수집한 유물을 바탕으로 특별전시를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펠 벽의 생애와 업적, 문학, 사회공헌활동,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할 수 있다. 그리고 상설전시 개선을 통해 주제 전시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펠 벽과 직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문화와 혼혈에 대한 주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전시하는 것이다. 혼혈인들의 역

사와 정책을 다루고, 현재 다문화가정까지 연결한다면 관람객들에게 펠 벽과 혼혈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두 번째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문학가인 펠 벽을 기리며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글쓰기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좌를 운영한다면 문학가인 펠 벽의 모습을 홍보할 뿐 아니라 추후 부천신인문학상, 수주문학상, 펠벽기념문학상 등에 출품하는 등 부천시의 문학적 저변 확대와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혼혈, 다문화 관련 교육자료를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제공하거나 관내 유·아동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다문화 이해와 역사적인 맥락을 배우도록 할 수 있다. 더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펠벽기념학아카데미의 강사진과 강연내용을 확보하여 다문화와 관련된 이슈를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연구와 출판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념관 자체적으로나 주변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를 펠벽학예총서 및 부천시박물관 학예지에 수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천의 ‘펠벽학’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펠 벽과 혼혈 그리고 다문화를 연구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외에서 수집한 자료를 번역하여 공유한다면, 국내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활용방안이다. 현재 부천시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펠벽기념관의 유물 100여 점이 공개되어 전시되고 있다. 총 유물 373점에 비하면 1/3가량만 공개되어 있으며, 유물에 대한 설명 또한 빈약하게 기록되어있다. 우선 소장유물에 관한 연구가 되어야 하고 이후 유물 사진을 재촬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준의 몇몇 사진들은 너무 오래되어 화질이 떨어져 제대로 식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장유물과 동시에 수집한 자료도 디지털화하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면 교통 여건이 열악한 펠벽기념관을 더 많은 대중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NS를 통해 유물의 수집과정이나 뒷이야기 등 흥미로운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관람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전시 및 SNS 홍보는 기념관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보완해줄 것이다.

V. 결론

부천펠벽기념관은 펠 벽의 사회공헌활동과 한국과의 깊은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통해 기념관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은 펠 벽의 생애와 문학적 업적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부천에서의 그의 영향력과 혼혈인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소사회망원과 관련된 자료, 혼혈인 및 다문화가정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유물 수집을 확장해야 한다.

기념관의 유물 수집 방향은 펠 벽의 저서 및 문학 관련 자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한국 방문 및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펠 벽의 다층적인 영향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유물 수집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증 및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구와 전시 활동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수집한 유물은 전시,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출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서 펠 벽의 가치를 알리고, 다문화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화와 SNS를 통한 소통은 기념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많은 관람객과의 연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천펠벽기념관은 펠 벽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여 한국 내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념관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부천시민과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을 이루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주문학관 소장 기증유물의 현황과 수집 방향

정보람¹⁾

I. 머리말

변영로는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단 한 편의 친일 문장을 남기지 않은 영광된 작가”로 평가받는 민족시인이다.²⁾ 변영로는 서울 가회동에서 태어났으나 스스로 부천을 ‘출생치 않은 고향’이라 할 만큼 자신의 근원지라 여겼다. 특히 고려시대 부천의 옛 이름인 ‘수주(樹州)’를 자신의 아호로 삼아 고향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부천의 대표 시인인 변영로의 시흔을 기리기 위해 2022년 8월 수주문학관이 개관하였다. 상설 전시를 통해 변영로가 태어난 1898년 이후 일제 강점기와 해방, 6·25전쟁과 민족 분단이라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근대문학을 개척한 그의 문학정신을 집중 조명하였다. 수주문학관은 개관하고 2년간 총 3번의 기획전시를 개최하며³⁾ 꾸준히 변영로와 그가 살아온 시대상 등을 연구하였다. 그렇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관

목차

-
- I. 머리말
 - II. 수주문학관 소장 기증유물 현황
 - III. 수주문학관 유물 수집 방향

IV. 맷음말

1) 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 학예사

2) 친일 연구가 임종국은 단 한 편의 친일 문장을 남기지 않은 영광된 작가로 변영로를 포함하여 윤동주·이육사·황석우·이병기·이희승·홍사용·오상순·조지훈 등 14명의 이름을 책에서 언급하였다. 임종국,『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13.

3) 첫 번째 기획전시는 2023년 <수주일대기 : 파란의 역사와 함께>展이다. 변영로의 일대기를 역사적 사건의 흐름과 함께 소개하는 8분 가량의 영상전시이다. 두 번째 기획전시는 2023년 수주문학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생시에 못 뵈줄 알았던 님을>展으로, 일제강점기 한국 문인들의 ‘광복’에 대한 염원을 주제로 한 전시이다. 올해 개막한 세 번째 기획전시는 <수주 변영로와 그의 시대>展으로 기증받은 자료 중 사진자료 등을 선별하여 변영로의 생애를 돌아보는 전시이다.

은 단순히 시인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문학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작가의 정신과 근현대문학의 가치를 계승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수주문학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문학관이 주어진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현대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역할이 중대되어야 한다.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학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기증문화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증’을 운영자에게도, 시민에게도 모두 이익이 되는 원활 구조로 구체화하고 이후 지역 공동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필수적이다. 특히 부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변영로의 흔적은 지역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얻기 쉽지 않은 실정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수주문학관과 기증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려고 한다. 우선 수주문학관의 기증유물 현황을 살펴보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유물 수집 방향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II. 수주문학관 소장 기증유물 현황

현재 수주문학관에는 구입유물 98건 101점과 변영로 후손의 기증유물 56건 529점, 기탁유물 7점 7건으로, 총 161건 637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⁵⁾ 변영로는 한국 근현대사 문학을 개척한 선구적 문필가로, 그가 남긴

4) 나윤자,『한국 근현대문학의 가치 계승을 위한 문학관 운영 방안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6), p. 74.

5) 본고에서 ‘수주문학관 소장 유물’이란 유물 감정평가가 완료된 102건 105점의 유물과 추후 전문가 감정평가 실시 예정인 2024년 기증 자료 49건 522점을 포함한 수량이다.

개인 소지품 · 사진 등은 그의 문학적 업적과 동반된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수주문학관은 2022년 개관 이래 변영로의 후손에게서 2차례, 연구자에게서 1차례로 총 3차례 유물을 기증받은 바 있다. 첫 번째 기증은 변영로의 직계 자녀인 변인숙이 기증 의사를 타진하며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변영로의 손녀인 변희원에 의해서 수증이 이루어졌으며 세 번째는 앞서 첫 번째로 기증을 해준 변인숙이 추가 기증 의사를 전하며 진행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증은 연구자 염경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증 유물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증유물 수집 과정과 중요 유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변인숙 기증

2022년 하반기 국외 거주 중인 수주의 막내 딸 변인숙이 한국을 입국하며 유물 기증 의사를 밝힘에 따라 2회에 걸쳐 수증이 진행되었다. 2022년 이루어진 1차 수증 유물은 4건 4점으로, 『수주시문선』, 『수주회상기』, 『곧고 다감한 구원의 자유인』, 『명정사십년』이며, 2024년 5월에 이루어진 2차 수증 유물은 3건 3점으로 『나무고을 코스모스의 거룩한 분노』, 『수주변영로 평전』, 『목마른 기다림을 단 한 술로 채워가며』이다(도1). 변인숙의 기증 유물은 총 7건 7점이며 종류는 모두 수주 변영로와 관련된 서적류이다. 이 중 대표적인 서적 몇 권만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수주시문선(樹州詩文選)』은 1959년 10월 경문사에서 간행하였으며 변영로 생존 시에 나온 마지막 단행본이다. 광복부터 수주의 타계 직전 사이에 발표된 후기작품이 수록되었으며 시와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주시문선』은 수주문학관 상설전시실에 저자 서명 초판본이 전시 중이기도 하다.

『수주회상기(樹州回憶記)』는 1969년 4월 변영로 사후에 ‘수주변영로선



도1-1. 2022년 1차 변인숙 기증 유물 일괄



도1-2. 2024년 2차 변인숙 기증 유물 일괄

생 묘지건립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대한공론사에서 간행한 단행본이다. 변영로 사후 평소 그와 절친했던 주봉 박종화 · 정인섭 · 염상섭 등 여러 인사들이 함께 간행하였으며 수주 미망인 양창희 여사의 「재세(在世) 때의 남편 수주」라는 제목의 추억담도 실려있다.

『곧고 다감한 구원의 자유인』은 1985년 8월 발간한 단행본으로 '수주 변영로기념사업회 발기준비위원회 대표 전택부'가 펴내었다. 문학관에서 기소장하고 있던 자료가 아니었으며 비매품, 4백 부 한정판으로 매우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수주를 그리워하는 이들의 글을 게재하였으며 책의 가장 앞 장에는 수주의 청년과 노년 시기의 사진을 실었다.

『명정사십년(酩酊四十年)』은 1986년 범우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1953년 발행한 『명정사십년』을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제작한 문고본이다. 해당 자료에는 초판본의 1부 에피소드 중 '동옹도주'부터 '나의 음주변'까지만 수록되어 있어 1953년 발행한 것과 일부 구성이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목마른 기다림을 단 한 술로 채워가며』는 1984년 동천사에서 간행한 변영로의 대표 수필선이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변영로가 술에 취해 별인 기행이나 실수에 대한 대표적인 글을 모았다. 2부에서는 그가 여행하며 겪은 경험담, 3부에서는 광복 이후 자주 독립 건설의 염원을 담은 글을 엮었으며 4부에서는 수주가 문단 활동을 시작한 1920년대부터 1961년 작고하기 직전까지 썼던 글 중 다른 수필집에도 정리되지 않았던 자료를 모았다.

변인숙이 기증한 도서류 7점은 모두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수주가 가장 애정한 막내딸이 고이 보관하고 있었던 자료로 매우 의미가 있다. 2022년에 기증받은 4점은 2023년 하반기에 수주문학관 유물 감정평가 시 전문가에게 가치를 인정받아 영구전환 유물로 선별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3년 자료 감정평가 작업 중, 변인숙이 기증한 자료인 『수주회상기』에서 '수주 변영로 선생 기념비 제막식순'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69년 5월 31일 열린 수주 변영로 선생 기념비 제막식순이 적힌 인쇄물로, 별도로 보관되지 않은 희귀한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소장 유물 목록에 추가하였다.



도2. '수주 변영로 선생 기념비 제막식순' 문서

2. 변희원 기증

2024년 상반기 수주의 셋째 아들 변갑수가 소장하고 있던 유품을 그의 딸 변희원이 기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증자의 자택에서 자료 확인 및 수증 절차가 이루어졌다. 기증유물은 기본적으로 수주 변영로가 사용하고 소장하였거나 변영로 사후 그의 아내인 양창희가 수집·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유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수주가 직접 사용한 해외여행권·낙관·파이프뿐만 아니라 1948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문학상) 상장·코주부의 작가 목정 김용환의 그림 등 변영로의 삶과 위상을 조명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료들이다. 더욱이 수주와 관련된 사진만 400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변영로의 생애와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연구자료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도3).

변희원 기증유물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감정평가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아직 개별 유물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가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증유물에 대한 분류 및 현황 그리고 주요 유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유물 현황의 이해를 돋기 위해 유물을 두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하였다 (표1). 먼저 첫 번째는 변영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물로, 변영로 본인 혹은 그와 관련된 특정 사건·인물·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물이다. 예를 들어 변영로가 직접 사용한 물품·변영로 화갑을 축하하는 서화·변영로가 쓴 글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변영로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물이다. 변영로와 그와 관련된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유물로, 수주의 문학과 삶의 맥락이나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물이다. 예를 들어, 변영로의 형인 변영만이 쓴 책·수주가 소장한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등이 있다.

표1. 변희원 기증유물의 변영로와의 관련도에 따른 분류

연번	구분	유물명	수량
1	직접	변영로 화갑 축하 서화, 꿈길악보, 수주 시화전 앨범, 변영로 접종 증명서, 변영로 여권, 수주 낙관,『명정사십년』,『수주회상기』, 목정 김용환 그림, 변영로·안익태 관련 영문 문서,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장, 수주 관련 사진6) 등	33건 504점
2	간접	각종 서화 및 족자,『산강재문초』,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월남 이상재선생묘비건립위원회 책자, 변진수의 글과 그림 등	15건 17점

첫 번째 주요 기증유물은 변영로의 해외여행권과 접종증명서이다. 해외여행권은 지금으로 치면 여권과 같은 기능을 한다.⁷⁾ 해당 증명서는 1955년 외무부에서 발급받은 것인데 변영로의 사진부터 볼펜 자국, 손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게다가 해외여행권을 발급받을 당시 외무부장관이 변영로의 둘째 형인 변영태였으며 그의 서명이 남아있기도 해 흥미롭다. 접종증명서는 변영로의 국제예방접종증명서로 1958년에 발급받았다. 내부에 여권번호와 검사 날짜 등이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외여행 시 필요했던 서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변영로의 개인 소장품을 통해 그의 개인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주요 기증유물은 서울시문화상장이다. 수주는 1948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는데, 해당 상장이 기증품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이 상은 1948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제정한 문화상으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윤보선이 시상하였다. 제1회 때는 문학·미술·음악

6) 변영로 관련 사진은 총 400점으로 직접 관련(수주가 포함된 사진)은 322점, 간접 관련(지인의 사진·신문스크랩·기타) 78점으로 세분할 수 있으나 한 건으로 묶여있어 '직접 관련'으로 우선 분류하였다.

7) 대한민국 최초의 여권은 1969년 최초로 발행되었다. 변영로의 해외여행권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 연극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였는데, 이 중 문학분야의상을
변영로가 수상한 것이다.⁸⁾ 상장의 보관 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추후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주요 기증유물은 특정 김용환 화백이 그린 수주의 일러스트이다.
특정 김용환 화백은 대한민국 초창기를 대표하는 1세대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다. ‘코주부’ 캐릭터로 유명한 김용환 화백은 한국 근대
만화사의 주요 인물로, 시사만화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근대문학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수주 변영로와 근대 만화사의 거목인 김
용환의 만남은 근대 문화사에 있어 의미있는 조합일 것이다.

도3. 수주문학관 기증유물(변희원)



도3-1. 변희원 기증 유물 일괄



도3-2. 변영로 여권

400장의 사진 자료 역시 체계적인 연구 ·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역사
적 기록 · 시각적 증거 · 관계의 맷음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와 의
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변
영로의 대외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이승만 대통령 · 공초 오상순 · 유

석 조병옥과 같은 유명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은 역사적 기록뿐 아니라
변영로의 인물 관계사 연구 또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
될 것이다.



도3-3. 제1회 서울시문화상장



도3-4. 김용환 화백이 그린 변영로

8) 1948년 제1회 서울시문화상 수상자는 문학분야 변영로, 미술분야 고희동, 음악분야 오라트리오 협회, 연극분야 극예술협회이다.

3. 염경화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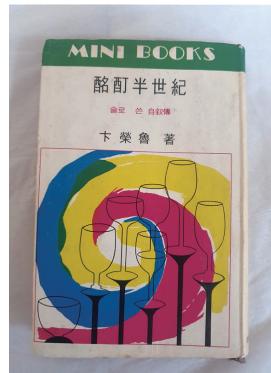
2024년 여름에는 한국 고고학 및 민속학을 연구하는 염경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과장이 유물 기증 의사를 밝혀 수증이 진행되었다. 기증유물은 변영로의 술로 쓴 자서전인 『명정반세기』이다(도4).

『명정반세기』는 변영로 사후에 발간된 책으로 『명정사십년』과 마찬가지로 수주가 술과 얹힌 이야기를 담았다. 신문 현재 역사소설가로 유명한 월탄 박종화가 「수주와 술」이라는 제목으로 서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서문에서는 '세상 됨됨이가 옥같은 수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아니치 못하게 한 것이 우리 겨레의 운명이었으며 난초 같은 자질이 그릇 시대를 만났으니 주정하는 난초가 되지 않고는 못 배겨 내었던 때문이다.'라고 수주를 평가하였다.

이처럼 연구자의 기증은 전문적 접근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증한 자료가 학술적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후속 연구나 연구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표2. 수주문화관 기증유물 현황표

연도	기증자	수량	기증 유물 내역	기증일
2022	변인숙	4건 4점	수주와 관련된 도서류	2022. 11. 1.
2024	변희원	48건 521점	수주와 관련된 서화류, 각종 문서, 사진, 도서류, 기타 생활용품 등	2024. 1. 27.
	변인숙	3건 3점	수주와 관련된 도서류	2024. 5. 11.
	염경화	1건 1점	수주와 관련된 도서류	2024. 7. 6.
총 수량		56건 529점		



도4. 수주문화관 기증유물
(염경화), 『명정반세기』

III. 수주문화관 유물 수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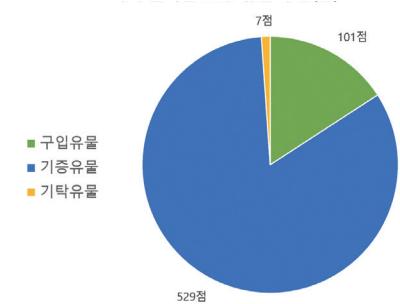
수주문화관 소장 유물은 수집 경위에 따라 구입·기증·기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기증 유물이 전체의 약 83%를 차지한다(표3). 이는 문학관 운영의 필수 요소인 소장품의 대부분이 기증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향후 진행될 자료 연구 및 전시 역시 기증유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증유물로 채워진 문학관의 주요 사명은 자료 수집·보존·정리·해석·제공에 있다. 자료의 정리와 해석은 곧 영양가 있는 전시 주제로 이어져 시민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정보와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증 문화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박물관과 관련한 기증행위가 가장 보편적으로는 유물 및 컬렉션을 기증하는 데서 일차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장 논리에 의거한 재화로서 인식 내지는 소유권 개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풍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증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한 사회의 생활 양태이자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박물관에 대한 기증이 한 단계 성장하려면 자발적 참여유형의 기증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어야 하며 동시에 박물관들도 일방적인 기증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증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표3. 수주문화관 수집 경위별
소장 유물 수량(점)



기울여야 한다.⁹⁾

그렇다면 개관한지 2년이 지난 수주문학관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유물 수집 방향 설정이다. 앞으로의 유물 수집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유물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수주문학관이 앞으로 부천을 대표하는 문학 중심지가 되기 위한 유물 수집 방향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변영로의 작품 원고 및 초고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주문학관은 1차적으로는 수주를 기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와 작품, 그의 문학적 영향을 반영하는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작품 원고, 특히 육필 원고를 수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원고와 초고는 그의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독자와 연구자들은 그의 수정 작업, 아이디어 발전 과정을 통해 그의 문학적 사고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문학 연구 기초 자료로서 그의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변영로의 작품이 실린 단행본이나 잡지, 교과서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2023년도 수주문학관 자료 획득 사업 시 가장 다수의 성과를 얻은 부분이기도 하다. 수주의 문학작품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 소장 자료 중에서 보존 상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웠던 자료도 추가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학예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9) 최선주·김행주, 「박물관을 위한 기증 기부의 활성화 방안」, 『동원학술논문집』11, 국립중앙박물관, 2010, 122쪽.

세 번째는 변영로의 개인 소장품 및 사진이다. 이는 변영로의 생애와 개인적 배경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 소장품을 통해 변영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변영로 관련 문헌 및 기념 자료이다. 변영로에 대한 연구서 · 비평문 · 인터뷰 자료 등은 그에 대한 시대별 문학적 평가와 이해를 돋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념 자료는 변영로를 기리기 위한 각종 기념품이나 행사 관련 자료, 전시회 포스터 등의 수집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여 지역 혹은 특정 단체에서의 변영로와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기념 사업 진행에 참고자료가 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는 문학적 컨텍스트이다. 그의 작품과 관련된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작품 이해의 심화를 돋고 연구 기반을 마련하며 추후 전시 및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각 방향에 따라 우선되어야 하는 수집 방법이 다르긴 하나 부천 지역 문학의 아카이브 역할을 맡은 수주문학관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기증과 기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수주문학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수집 방향 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기증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팔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자료의 기증·발견·공개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규명과 해석을 촉발한다. 우선 자료의 기증은 일차적으로 안전한 보존과 다음 세대로의 전수를 위해 진행된다. 그리고 기증을 받은 주체는 기증품의 가치를 온전히 밝히며 사회적 공공재로서 해당 기증품의 문학적 의미를 확산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즉, 기증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적 소유물로서 ‘비공개’적으로 ‘독점’될 수밖에 없던 자료는 공적 주체로의 기증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유’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¹⁰⁾ 이처럼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정리는 변영로와 그의 문학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방점을 제시해 준다.

수주문학관은 앞에서 나열한 기증과 수집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다양성과 깊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변영로와 그의 문학을 기리는 데에서 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라비키움의 형태로 수주문학관을 발전시켜야 한다. ‘라비키움’이란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다양한 정보자원을 서비스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한다. 부천시는 변영로를 필두로 부천 지역의 문학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문화예술 및 전시·세미나 등 복합문화 활동을 구축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부천을 구현해야 한다.

도5. 수주문학관 기획전시 <수주 변영로와 그의 시대>展



도5-1. 전시 전경



도5-2. 전시 세부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건전한 기증문화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증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시행하는 것이다. 기증자에게 정부 포상을 추진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기증자 명패 등을 통해 심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수주문학관에서는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다수의 유물을 기증한 기증자 변희원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자 변영로의 여행·취미·인간관계를 알 수 있는 사진자료를 선별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수주 변영로와 그의 시대>展을 열기도 하였다(도5). 이와 같은 기증문화재 전시 개최를 통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림으로써 기증문화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기증자에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김성연,『자료와 연구는 어떻게 문학관의 컨텐츠가 되는가?—윤동주기념관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리터러시연구』15, 한국리터러시학회, 2024, 569쪽.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박종민(부천시박물관장)

편집위원 김영주(부천시립박물관)

이준일(부천시립박물관)

전현정(부천시립박물관)

신지연(부천필벽기념관)

이종찬(수주문화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

부천과 박물관 제2호

발행처 (재) 부천문화재단

발행인 한병환

발행일 2024년 12월

총괄 박종민

기획·진행 김태동

I S S N 3058-6615

편집·인쇄 알투디



* 이 책에 수록된 사진과 글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제한하고 있지만, 저작권과 부천시박물관의 동의를 받아서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부천시박물관의 견해와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비매품